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⑤	0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⑤	15 ⑤
16 ④	17 ⑤	18 ②	19 ②	20 ⑤
21 ④	22 ⑤	23 ②	24 ④	25 ②
26 ④	27 ④	28 ⑤	29 ③	30 ③
31 ②	32 ③	33 ④	34 ④	35 ③
36 ②	37 ②	38 ①	39 ④	40 ③
41 ②	42 ①	43 ④	44 ⑤	45 ②

[01~06] 독서 - 주제 통합(인문)

(가)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

해제 이 글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제 및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덕성 생명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도덕성 생명 향상'은 도덕성의 생물학적 토대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인간을 좀 더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도덕성 생명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신경 약물이나 의학적 시술을 통해 폭력적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성향을 완화하여 동정·협력·정의감·이타성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함으로써 도덕성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덕성 생명 향상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주제 도덕성 생명 향상의 의미와 필요성

구성

- 1문단: 도덕성 향상의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변화
- 2문단: 도덕성 생명 향상의 의미
- 3문단: 도덕성 생명 향상의 생물학적 토대와 도덕성 생명 향상의 방법
- 4문단: 도덕성 생명 향상에 대한 토마스 더글러스의 견해
- 5문단: 도덕성 생명 향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

(나) 도덕성 생명 향상에 대한 비판

해제 이 글은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향상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의도적인 행동인데, 도덕성 생명 향상을 통해 단순히 반사회적 행동 성향을 완화하거나 도덕적 감정을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 향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을 통해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

성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도덕적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과잉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회 구조·제도·정책의 개선에 대한 성찰 없이 개인의 향상된 도덕 심리에만 호소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제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의 한계

구성

- 1문단: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의 효용성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비판의 제기
- 2문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에 대한 비판 1
- 3문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에 대한 비판 2
- 4문단: 도덕성 향상의 의미와 가치

01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와 인간 생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도덕성 향상이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 향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도덕성 향상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입장이 제시한 근거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과 도덕성 생명 향상을 역설하는 더글러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학 기술에 따른 도덕성 향상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 간의 차이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는 도덕성 향상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덕성 향상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도덕성 향상의 바탕이 되는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화된 도덕성 향상의 관점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는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학 기술로 인한 도덕성 향상의 사회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으나, 기술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덕성 향상이 지닌 다양한 의의를 비교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는 과학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하는 생명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과학 기술을 이용한 도덕성 향상의 심리학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문적 차이에 따른 도덕성 향상의 개념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2문단에서 최근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신경 심리학적 이해가 깊어지면서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생물학적, 신경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성 생명 향상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자원 부족, 빈곤과 같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모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향상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생명 자유주의자들은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폭력적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성향을 완화하여 동정·협력·정의감·이타성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함으로써 도덕성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도덕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기존 방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였다.

03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기보다 미래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자신을 바꾸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향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도덕성 향상의 전제로 상정하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도덕성 향상을 선택하여 한층 향상된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한 도덕적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덕성 생명 향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된 과학 기술이 도덕적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본 것은 아니다.
- ② ㉠은 도덕성 생명 향상의 구체적인 목표로 도덕적 동기의 향상을 지목하며 신경 약물의 사용,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전기 자극, 유전자 변형 등의 생명 의료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은 신경 약물의 사용,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전기 자극, 유전자 변형 등의 생명 의료 기술이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하는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 약리학적 방법과 유전 공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이 기존의 도덕적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도덕성의 향상으로 보았다.
- ④ ㉡이 주장한 도덕적으로 향상된 시민은 약리학적인 방법과 유전 공학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한층 향상된 도덕적 동기를 갖게 됨으로써 폭력적 충동에 덜 취약해질 수 있고 이타적인 행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도 신경 약물의 사용,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한 전기 자극, 유전자 변형 등의 생명 의료 기술을 사용하여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갖게 함으로써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덕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2문단에서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한 도덕성 향상이 행위자의 심적 속성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행위자의 도덕적 이해를 향상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도덕성 향상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생애에 걸쳐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발달 과업이라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도덕적 행동은 합리적인 추론과 타당한 증거에 근거한 도덕 판단을 토대로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혹은 옳은 것을 하겠다는 도덕적 의지에서 비롯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도덕적 악이 주로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는 과잉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을 통해 한 개인의 도덕 판단 혹은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하였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의 갑은 알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지에게 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즉 거지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는 갑의 의사 결정권을 알약이 강화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은 도덕적 속고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신경 약물이나 의학적 시술과 같은 생명 의료 기술을 활용하여 동정·협력·정의감·이타성과 같은 친사회적 성향이 강화되는 것을 도덕성의 향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보기>의 갑은 거지를 도와주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후 갑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거지를 도와주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을 기대하며, 스스로 이타성을 향상하는 알약을 먹기로 결정했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기보다 미래에 도덕적으로 더 나은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 자신을 바꾸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향상한 것이다. 이로 보아 갑이 이타성을 향상하는 알약을 먹은 것은 스스로 도덕성을 향상하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고, 이는 갑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기보다 더 나은 도덕적 동기를 미래에 갖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③ (나)의 2문단에서 도덕성 생명 향상 기술을 통해 한 개인의 도덕 판단 혹은 행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도덕적 속고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한다고 하였다.
-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과학 기술을 통한 도덕성 향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도덕적 결함이 있는 개인들을 도덕적으로 향상하면, 인류가 직면할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기후 변화, 전쟁, 빈곤과 같은 상황들을 조장하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

06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의 뜻으로,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

으키거나 만들다.'의 의미인 '이루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다.'의 뜻으로, '두루두루 자세히 보다.'의 의미인 '살펴보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는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하다.'의 뜻으로,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의 의미인 '가져오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는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이다.'의 뜻으로,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더욱 높여 주다.'의 의미인 '북돋우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⑤ ㉤는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다.'의 뜻으로, '다시 생각하다.'의 의미인 '되생각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07~12] 독서 - 사회 · 문화

위험 정보의 확산과 미디어의 영향력

해제 이 글은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로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증폭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와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는 전달되는 정보량, 논쟁의 정도, 선정적 표현의 정도와 같은 정보의 특성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한다.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다양한 주체가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전달하게 되는데,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의 반응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 이 위험 인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 정보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구성과 표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제 미디어의 영향력과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사회적 확산 과정

구성

- 1문단: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방법
- 2문단: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기능
- 3문단: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의 역할과 위

험 정보의 사회적 확산

- 4문단: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의 특징
- 5문단: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해석 및 반응 단계의 특징
- 6문단: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07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와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의 반응 등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와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속성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견해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 역시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형성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08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4문단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정보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도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6문단에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일차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지만, 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위험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준과 양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
- ③ 6문단에서 미디어는 대중이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위험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에 반응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역할을 하며,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고 하였다.

09 숨겨진 전제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2문단에서 위험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준과 양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위험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준과 양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미디어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미디어가 위험 요소를 자주 다루면 일반 대중의 사고를 지배하여 미디어가 대중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게 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 ③ 사람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할 때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 ⑤ 사람들에게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미디어가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 준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4문단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도 주택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 운동 단체, 방사선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하지

만 위험성에 대한 논쟁에서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 따르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전달 단계에서 전달되는 정보에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 전달하는 정보와 이를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있다.
- ③ 4문단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될수록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보도 내용에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중대 질병과 연관된 표현이 매우 많았다고 지적한 것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의미한다.
- ④ <보기>에서 정부의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5,000여 건의 추가 보도가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4문단에서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전달될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을수록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주택가 지역 주민들과 환경 운동 단체, 방사선 전문가 집단의 의견 표명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사흘 동안 4,000여 건에 해당하는 보도가 집중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 검출과 관련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짧은 시간 동안 대량 보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문단에서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될수록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전달되는 정보의 정보량이 많으면 정보 수용 주체들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보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어림짐작에 의해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카너먼은 이와 같이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불렀다.

- ② <보기>의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을 하기보다는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 답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위험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단순화해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A]에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어림짐작에 의해 직관적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해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들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로 보아 사람들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정보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어림짐작에 의해 직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보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해 합리적 추론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들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로 보아 사람들이 불확실한 위험 정보를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2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의 뜻으로,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는 사전을 찾아라.’의 ‘찾아라’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어떤 사람이나 기관 따위에 도움을 요청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③ ‘자신감, 명예, 긍지 따위를 회복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④ ‘원상태를 회복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곳을 보러 그와 관련된 장소로 옮겨 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3~17] 독서 - 과학 ·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해제 이 글은 최근 일반화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미와 특성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하나의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활용하거나 다수의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IaaS 모델, 사용자가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PaaS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SaaS 모델이 있다.

주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과 주요 모델의 특징 구성

- 1문단: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미와 특성
- 2문단: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의 특징
- 3문단: 논리적으로 분리된 장치를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의 역할
- 4문단: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 세 가지

13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3문단에서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 사이를 매개하는 하이퍼바이저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실제 하드웨어 대신 하이퍼바이저가 구축한 가상 머신을 접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IT 시스템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최근 컴퓨팅 환경은 인터넷과 결합한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논리적으로 추상화해 물리적 한계에 종속되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분리, 통합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를 통해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물리적 자원들을 논리적 자원들의 형태로 표시한다고 하였다.

1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 하나의 장치를 논리적으로 분리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다수의 운영 체제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운영 체제를 물리적 자원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가상 머신은 실제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의 단지 일부분에서만 실행된다고 하였다.
- ② [A]에서 하이퍼바이저는 물리적 하드웨어의 일부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가상 머신을 작동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 ③ [A]에서 각각의 가상 머신은 자체 운영 체제를 실행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한다고 하였다.
- ④ [A]에서 하이퍼바이저는 CPU나 메모리와 같은 물리적 컴퓨팅 자원에 서로 다른 각종 운영 체제의 접근 방법을 통제하고, 다수의 운영 체제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였다.

15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모델이다. 따라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은 사용자가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사용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자원을 직접 제공해 주는 모델로, 사용자가 저장 장치, CPU, 메모리 등의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직접 구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따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은 사용자가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모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개발 환경 설정 등의 모든 구성이 완료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 줄 수 있다.
- ③ ㉤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거나, 사용자가 원격

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로, 모든 관리 권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다.

- ④ ㉠은 다른 모델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저장 장치, CPU, 메모리 등 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요청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이다.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구성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에서 에지 컴퓨팅은 전통적으로 데이터의 전달 또는 부분적인 저장만을 지원하던 말단 장치들에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말단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한 에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대한 보안 문제의 위험성이 크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사용자 말단 기기 주변에 데이터 저장 장치가 위치하는 것은 <보기>의 에지 컴퓨팅이다.
- ③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 송수신의 지연 문제가 크다고 하였다. 반면, <보기>의 에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발생한 에지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 ⑤ <보기>에서 에지 컴퓨팅은 말단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한 에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은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의 뜻이다. ⑤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를 쓰다.'의 뜻이다. 하지만 ①에서는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게 하거나 오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② ㉠은 '골라서 지목하다.'의 뜻이다. 하지만 ②에서는 '수나 낱자를 세려고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③ ㉠은 '가리켜 말하다.'의 뜻이다. 하지만 ③에서는 '우러러 칭찬하거나 기리어 말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④ ㉠은 '여럿을 한 체제로 합치다.'의 뜻이다. 하지만 ④에서는 '법령 따위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8~23] 문학 - 고전 시가+현대 수필

(가) 작자 미상, 「기름노래」

해제 이 작품은 힘겨운 농민의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현실 비판 가사이다. 원래 '기름노래'는 논이나 밭에서 잡풀을 제거하는 김매기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이나, 이 작품의 내용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활을 제시하고, 애써서 농사를 짓지만 세금이나 빚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달픈 생활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노고와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

구성

- 어유와 계장님네 ~ 이 아니면 어이하리: 사민을 구분하고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함.
- 창경이 처음 울고 ~ 세벌 수고 꺼릴손가: 농민들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애씀.
- 추풍이 건듯 불어 ~ 남은 것이 얼마일까: 가을걷이를 끝낸 후 빚 갚을 일을 걱정함.
- 어유와 계장님네 ~ 되춤이 절로 난다: 가을걷이를 끝낸 후 마을 잔치를 열고 즐김.
- 어디에서 면주인은 ~ 님 계신 데 드리리: 농민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어 함.

(나)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아끼던 『강희자전』이라는 책을 팔았다가 다시 산 체험과 벼슬을 사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G 군을 질책한 체험을 연결하여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책 장사의 모습과 돈으로 벼슬을 사려는 사람들이 들끓는 당대의 현실을 제시하여 본질적 가치를 잊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

구성

- 그 뒤로 나는 ~ 촉할 만한 이야깃거리다.: 책을 팔았다가 되찾는 과정에서 많은 이자에 대한 문제점을 느낌.
- 지난여름에 시골서 ~ 옷을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 사는 G가 '나'에게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함.
- 이러한 현상은 ~ 못 견디었다.: '나'는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G의 부탁을 거절함.

1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가을걷이를 하고 마을 잔치를 하는 도중에 나타난 ‘면주인’에게 세금 징수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구체적 사례가 나타난다. 이는 가혹한 수탈이 일어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도 글쓴이가 G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돈으로 벼슬을 사려는 사람들이 들끓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는 모두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아 성찰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농사를 소재로 하고 있는 (가)는 인간의 삶과 공간이 연결되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지는 않는다.
- ④ (가)와 (나) 모두 당대의 세태는 드러나지만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 모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19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자네 거름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 가소 / 앞집 보습 뒷집 쟁기 선후를 다들손가’에서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짓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성인이 백성을 네 가지 계급으로 나누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화자가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학문을 배우려 애쓰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종년 작고 수근 줄도 알건마는 / 양사부육이 이 아니면 어이 하리’는 한 해 동안 고생스럽게 농사를 짓는 것이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보살피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로 볼 때 화자는 가족을 돌보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잔치 때 좌상으로 모신 사람들은 ‘김풍헌’과 ‘이약정’인데, 화자가 이들에게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청객으로 온 ‘면주인’에게 가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노동 후에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에 등장하는 새는 ‘창경’, ‘참새’, ‘기러기’ 등인데, 창경은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참새와 기러기는 가을에 익은 벼를 쪼아 먹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창경, 참새, 기러기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와 [C]는 동일한 대상인 ‘계장님네’에게 토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화자의 발언만이 제시될 뿐 이에 대한 계장님의 답변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화 내용을 통해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성인이 법을 지어 사민을 나누시니 ~ 복전 역색이 이 아니 근본인가’에서 신분 제도에 따라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의 관북 관찰사가 (가)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사대부인 작가의 관점이 농민으로 설정된 화자에게 투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B]의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일군 후에 ~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 수고 꺼릴손가’에서 농민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겪는 노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네 밭에 몇 묶음인가 내 논 소출 이뿐일세 / 공사채 다 갚으면 남은 것이 얼마일까’에서 농민이 수확 후 갚아야 할 빚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C]의 ‘건넌 동네 떡을 하고 너머 마을 술을 빚소 ~ 게 찌니 닭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에서 다양한 음식을 차렸음을, ‘질동이 내어놓고 쪽박 잔 가득 부어 ~ 술김에 흥이 나니 되춤이 절로 난다’에서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D]의 ‘한 집에 세네 군포 제구실도 못 하거든 ~ 뉘라서 우리 정상 그러다가 구중궁궐의 님 계신 데 드리리’에서 백성들이 겪는 힘겨운 고통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기>의 ‘관직을 마칠 때 임금께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필 것을 청원하였고, 그 후에도 거듭하여 그 뜻을 아뢰었다.’와 연결하면 적절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21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가을철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빻던 것으로, 화자가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은 글쓴이의 지인인 G가 돈을 써서 얻으려고 하는 벼슬자리를 빻던 것으로,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미래에 대비한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단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의 경우 당대 현실의 문제점과는 관련이 없다. ㉡은 당대 현실의 문제점과 관련은 있으나, 이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과 ㉡은 모두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세속적 가치에 대한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 ⑤ ㉠은 지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담은 사물로 볼 수 있으나, ㉡이 지난 삶에 대한 허무감을 담은 사물은 아니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첫 번째 체험’에서 글쓴이는 책을 되찾은 후에 ‘문명한 나라에서는 좁은 국토에 생식이 과다할 때는 산아 제한을 국책으로 강행한다는데……. 위정자, 모름지기 일고를 촉할 만한 이야깃거리다.’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도한 이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교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체험’에서는 G를 질책하여 돌려보낸 후 ‘괜히 웃음이 터져 올라서 못 견디는 상황을 언급할 뿐이지, 국가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돈만 생기는 날에는 그가 말한 대로 칠십 원을 주고 다시 회수하리라는 생각으로 부리나케 드나들어 보았으나’, ‘꼭 한 달 만에야 겨우 돈 칠십 원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 등을 통해 ‘첫 번째 체험’은 글쓴이가 돈이 필요해 아끼는 『강희자전』을 책사(서점)에 맡겨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 보니 그깟 놈의 것 아무것도 아닐데, 나라고 감투 못 쓰란 법 있을라구, 에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전후불고하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다.’를 통해 ‘두 번째 체험’은 높은 벼슬을 얻고 싶은 G의 출세욕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가령 책 장사가 『강희자전』 한 권을 오십 원이고 백 원이고 주고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 장사가 자기 신주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 둘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만 받고 팔겠나? 오백 원이고 육백 원이고 흠뻑 이를 남겨야 팔 것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는 책 장사요, 감투는 『강희자전』이란 말일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첫 번째 체험’의 ‘그 책사에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뻔질나게 드나들었다.’와 ‘두 번째 체험’의 ‘장안 안 여관마다 감투 사러 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꿇듯 한다는 소문이 신문마다 벽적거리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글쓴이는 ‘첫 번째 체험’에서는 “안 파는 책이 어디 있단 말이요. 당신이 오십 원에 사서 이십 원을 붙여서 칠십 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소?”라고 주인에게 묻는 방식으로, ‘두 번째 체험’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밀천 들여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밀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학자 아닌 책 장사가 자기 신주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 둘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만 받고 팔겠나?’라고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인은 표면적으로 얼굴색이 변했으나, G는 표면적으로 껄껄 웃기만 했다.

23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 앞의 ‘가령 책 장사가 『강희자전』 한 권을 오십 원이고 백 원이고 주고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 장사가 자기 신주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로 모셔 둘 리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만 받고 팔겠나? 오백 원이고 육백 원이고 흠뻑 이를 남겨야 팔 것 아닌가.’로 볼 때, ㉡는 책 장사가 책을 살 때 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겨 책을 팔려고 하는 것처럼, 돈으로 벼슬을 사게 되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의 본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벌어들여 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떤 관직에 있더라도 정치만 잘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③ 글쓴이가 G에게 『강희자전』을 구입해 연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글쓴이가 돈으로 벼슬을 사려는 G를 질책하는 의미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 벼슬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⑤ 글쓴이가 G에게 교육계를 떠나 장사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24~27] 문학 - 고전 소설

작자 미상, 「김원전」

해제 이 작품은 작자와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국문 고전 소설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소설이다. 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후, 황제의 명을 받아 요괴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고 용왕의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천상적 존재가 적당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 주인공이 비인간의 형태로 태어나 고통을 감내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모습을 찾는 서사 전개를 보인다는 점에서 「금방울전」과의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공주를 구출하는 과정을 통한 김원의 영웅적 활약

전체 줄거리 천상적 존재인 남두성은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나, 김수와 부인 유 씨 사이에서 둥근 모양의 괴상한 형태로 태어난다. 둥근 모양으로 태어나 10년 만에 허물을 벗고 미남자로 변신한 김원은 아귀가 황제의 세 공주를 납치하자 도원수가 되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 동굴로 내려간 김원은 아귀를 죽이는 데 성공하나 부하들은 김원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굴 입구를 막아 버린다. 굴속을 헤매던 김원은 용왕의 아들을 구하고 이를 계기로 용궁으로 가서 용왕의 딸과 결혼한다. 용왕의 딸과 고국으로 오던 김원은 주점 주인에 의해 살해되지만 선녀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후 황제는 김원을 부마로 삼고 용녀를 정숙 공주에 봉하고 김원은 두 부인과 함께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승천한다.

24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김원은 아귀를 무찔러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왔으며, 공주가 김원을 돕고 있다. 또한 김원이 공주의 도움으로 ㉠에 들어올 수 있었으므로, ㉠은 김원과 공주가 아귀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을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비복은 월영각에서 선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대로 승상 부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비복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승상 부부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공간이 ㉠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김원은 월영각에서 자신의 정체를 노복에게 드러내고, 노복이 이를 승상에게 전하였으므로 ㉠은 김원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③ 김원은 수박으로 변신한 상태에서 대아문에 다다랐으므로, ㉠은 공주가 김원의 초현실적 능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아귀는 보검을 놓고 자라는 공주의 말대로 보검을 머리맡에 세워 두라고 한 뒤 잠들었으므로, ㉠은 아귀가 공주의 제안을 수용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5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원수는 아귀를 죽이고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아귀가 있는 곳으로 온 상황이므로, 아귀의 거처에 있는 '준마 천여 필'을 보고 공주를 구출하기로 결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승상은 방 안에 있는 허물을 보고 김원의 정체를 믿게 된다.
- ③ 아귀가 독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이 상황을 틈타 원수가 아귀를 무찌르고 있으므로, '독한 술'은 원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 ④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는 것을 볼 때, 아귀의 비수는 원수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던 소재이다.
- ⑤ 원수가 아귀의 머리를 베었고 이어서 여러 여자가 재를 뿌림으로써 아귀는 완전한 죽음을 맞게 되었으므로, '재'는 아귀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김원이 공주에게 '어쩔거나 변신을 할 것'이라 말한 것은 김원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아귀에게 숨기는 장면이다. 또한 남두성은 김원이 천상계에 있을 때의 이름으로, 김원이 공주의 도움으로 아귀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천상계 존재인 남두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공주가 변신한 김원을 데리고 아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김원의 부탁에 따른 행위이므로, 공주가 변신한 김원을 데리고 아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김원에게 남두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 주려는 공주의 의도가 드러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였다는 것은 승상이 김원의 진짜 정체를 쉽게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원이 허물을 쓰고 '십 년 고생'을 하던 시기는 승상이 김원의 정체

를 모르고 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 ② 옥황상제가 남두성에게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있으라고 한 것을 볼 때, 남두성이 허물을 쓰게 된 것은 타자인 옥황상제의 결정에 따라 변신을 겪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김원이 보자기 속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선동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김원이 허물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드러낸 것이므로 자아의 속성이 변신을 통해 다른 대상에게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원수가 아귀를 무찌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변신한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행한 것이므로, ‘몸을 흔들어 작은 주먹만한 수박으로 변신’한 것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체를 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27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 글에서는 김원이 아귀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 수박으로 변신하여, 문졸들이 지키는 대아문을 통과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원님이 문을 막고 있던 독을 치운 다음 채계산 굴 안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주인공이 이물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계’의 존재가 넘어서야 하는 관문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는 아귀가 존재하는 곳이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러한 모습과 대비되는 ‘기존 세계’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보기>에는 금돼지가 있는 곳이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 ② 이 글은 김원이 이물을 물리치기 위해 변신을 하고 있으므로 초현실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보기>에서 원님이 비현실적 방법을 사용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이 글은 김원이 아귀를 죽이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이 ‘다른 세계’의 이물과 대결하는 장면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장면을 통해 김원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지는 않다. <보기>에서는 원님이 사령들과 함께 금돼지가 있는 굴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다른 세계’의 이물과 대결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지는 않다.
- ⑤ 이 글에서는 아귀를 물리치기 위해 공주가 원수를 도와주고 있지만, 원수를 돕는 공주의 행위로 인해 아귀가 원수에게 가하는 위협이 점차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보기>에서는 금돼지에게 잡혀 온 여자들이 굴 안에 머무르는 것을 이물에 의해

‘다른 세계’로 끌려온 존재들의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금돼지가 원님에게 가하는 위협은 나타나 있지 않다.

[28~31] 문학 - 현대 소설

(가) 집의 의미와 정착의 열망

해제 이 글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나는 집의 의미와 정착의 열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집은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적(私的) 영역이다. 안정성이란 정착의 가능성에 의해 보장되며, 정착을 통해 집은 개인적·심리적 가치를 지니는 장소가 된다. 안식처로서의 집은 구성원들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심리적 터전의 의미를 지니며, 구성원들의 결속을 통해 외부 세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집은 정착의 의지가 실현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정착의 문제는 사회적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형제인 두 인물의 관점을 통해 선조들로부터 이어진 정착의 열망이 담긴 자신들의 집을 지켜 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나는 집의 의미와 정착의 열망

구성

- 1문단: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적 영역으로서의 집
- 2문단: 외부 세계의 물리적·심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안락을 제공하는 안식처로서의 집
- 3문단: 정착의 문제와 사회적 권력의 관계
- 4문단: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나는 정착의 열망

(나)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해제 이 작품은 1976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로서, 같은 제목의 연작 12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도시의 외곽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 도시의 재개발 이면에 숨겨진 소시민들의 삶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소외된 계층의 삶에 대한 의지와 좌절

전체 줄거리 영수네 동네인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가 시작되자 주민들의 손에는 아파트 딱지가 주어진다. 입주권이 있어도 입주비가 없는 행복동 주민들은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 더 많은 돈을 받고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영수의 난쟁이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음에도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수의 어머니와 영수, 영호, 영희도 생계유지를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네 삼남매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식구들이 힘을 합쳐 지은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이른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에 입주권 시세가 눈 깜짝할 새에 뛰어오르자, 영수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에게 입주권을 팔고 만다. 그림에도 전셋값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없다. 영희는 집의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 집을 나간다. 영희는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나이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기회를 틈타 입주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다. 이사를 한 가족을 찾으러 이웃에 살던 집에 찾아가면 영희는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에서 죽은 사실을 전해 듣는다.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의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A]는 영희, 아버지, 어머니와 명희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나’가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B] 역시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다.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와 형,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이동하여, ‘나’가 관찰한 인물들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인물들의 행위와 대화를 드러나는 대로 서술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심리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B]에서는 여러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복적이지 않으며, 인물들 간의 갈등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③ [A]의 인물들의 대화에는 인물들이 숨기고자 했던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B]에는 인물이 과거에 한 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A]에는 시간의 순서가 바뀐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B]는 지섭, 아버지, 형, 어머니와 같은 여러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A]와 [B]는 모두 집을 잃게 된 인물들의 침울한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활발해지는 공간의 분위기를 부각한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29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의 ‘나’는 형이고, ㉡의 ‘나’는 동생 영희이다. ‘난쟁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는 거인처럼 보였다. / “너 봤지?” / 내가 물

었다. /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도 ㉠이 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아버지가 거인처럼 보일 때 그 광경을 보지 못한 ㉡를 책망했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증조부가 노비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②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책을 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④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는 ㉠이 자신에 대해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다.
 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와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과 ㉡는 동생을 찾아 함께 나섰지만 동생의 행방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30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 ‘나’가 영희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떠올린다. ‘영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괴었다.’와 ‘우리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으로 인해 과거의 행복했던 때를 떠올린다.
 ② ‘아무도 영희가 난쟁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 ‘나’는 타인들이 영희와 아버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④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저 왔다.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다. 우리는 아직 어려 힘든 일을 못 했다. 그래도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즐거웠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나’에게 집을 짓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뻐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나’

에게 영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 ⑤ ‘우리에게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와 ‘우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뻐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과 ㉡을 통해 ‘나’는 과거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상기한다.

3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집들이 다 헐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보였다.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보였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집들이 다 헐려’된 동네와 대비되는 깨끗한 주택가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헐리는 상황을 막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정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새로운 심리적 터전으로 옮겨 가고자 하는 ‘나’의 희망을 보여 준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착의 의지가 쉽게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개선과 같이 정착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들 역시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와 (나)의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엉뚱하게도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랏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계획을 내놓아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거 환경이 쉽게 변화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 ③ ‘어머니가 우리들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 주었다.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담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우리’ 식구들은 말없이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따라서 사적 영역인 ‘우리’ 집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가)의 3문단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런데 정착의 의지가 쉽게 실현되지 못하는 까닭은 정착의 문제가 사회적 권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때 사회적 권력은 (나)의 ‘행정 대집행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집에 대한 문

제가 사회적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가)의 4문단에서는 ‘집이 당대 가족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정착을 열망해 온 선조들의 역사가 중첩된 장소임을 강조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지섭이 사나이에게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가)에 제시된 진술을 고려하여 감상할 때, 지섭이 선조들로부터 이어진 정착의 열망이 훼손당한 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2~34] 문학 - 현대시

(가) 윤동주, 「길」

해제 이 작품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순수한 지식인의 성찰과 의지를 보여 준다.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잃어버린 담 너머의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돌담은 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단절의 상태이기에 절망을 느끼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며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고 삶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주제 이상적 자아 회복을 위한 의지

구성

- 1연: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길을 나선.
- 2, 3연: 화자가 걷는 길의 모습
- 4연: 연속된 삶의 과정과 같은 길
- 5연: 자아 성찰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낌.
- 6, 7연: 이상적 자아 회복과 현실 극복의 의지

(나) 나태주, 「사는 일」

해제 이 작품은 삶을 길을 걷는 여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길을 걷다 보면 굽은 길도, 곧은 길도 나오는 것과 같이 삶에는 시련이 있을 때도, 수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다른 아름다움과 가치를 노래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

구성

- 1연: 현실에 순응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감.
- 2연: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옴.

- 3연: 시련 속에서도 가치 있는 것들을 찾으며 긍정적으로 살아감.
- 4연: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함.

3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에서 ‘쇠문’을 닫는 ‘담’은 의인화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담’이 ‘쇠문’을 닫는 것은 단절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지 ‘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잃어버렸습니다’라는 서술어만으로 행을 구성하여 누가, 무엇을 잃어버린 상황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돌’이라는 시어를 반복하면서 돌이 연속되어 쌓아지거나 이어지는 ‘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통하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고 하며 아침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길’을 걷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길의 지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풀 한 포기 없는’ 길의 모습을 제시하며 화자가 처한 상황이 메마르고 고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바람’이 잠잠해지고,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날’이 저물어 감에 따른 것,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루가 마무리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걷지 않아도 좋은 길’에서 ‘나’가 그 사연을 듣게 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하루가 마무리되는 ‘막판’ 즈음에 ‘나’를 신고 가기로 한 차가 약속 시간보다 먼저 가 버리는 일로 인해 걷게 된 길이다.
- ② 차를 타면 흘러지 않았을 ‘땀’과 ‘두어 시간’이라는 시간을 쓰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차’를 타면 볼 수 없었던 ‘바람’, ‘명석딸기’, ‘물총새’ 등을 만나게 된 길이다.
- ⑤ ‘바람’, ‘명석딸기’도 만나고, ‘물총새’, ‘쪽빛 날갯짓’도 보았기 때문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자신의 하루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한 길로 볼 수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에서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 버린 ‘차’로 인해 화자는 길을 걸으며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 경험 과정 중 화자가 잊고 싶었던 순간들을 불러내거나 이를 바탕으로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가 마지막 연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라고 노래한 것은 화자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것이며, 잃어버린 것은 ‘담 저쪽에’ 남아 있는 이상적인 자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담’을 경계로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세는 자기 정화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를 교차시킴과 동시에 잊고 싶었거나 부끄러운 순간들을 시 속으로 다시 불러내 마주하게 하여 자기 정화를 이루도록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가)의 화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돌담’을 끼고 있는 길을 걷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부끄럽게 푸’르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현실에 안주하여 이상적 자아를 찾지 않던 부끄러운 순간들을 시 속으로 다시 불러내어 마주하고 이를 통해 자기 정화를 이루고자 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길]이나 [사는 일]에서는 길을 걷는 행위를 인생사와 동일시하면서 ‘깨달음’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나)의 화자는 ‘굽은 길’은 굽은 대로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갔다고 하면서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고 하는 것과 연관 지은 것을 통해 ‘길’을 걷는 행위와 삶을 사는 행위를 <보기>와 같이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나)에서 ‘제시간’보다 일찍 떠나 버린 ‘차’로 인해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을 걷는 일을 겪게 되지만, 그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며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일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는 작품에 담겨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

35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선영이 언니는 그 집에 이삿짐을 옮겼다.’에서 ‘그 집에’는 피사동주가 아니고 옮기는 행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이 예문과는 달리 ‘그 회사가 사실을 알았다.’와 같이 타동사가 사용된 주동문을 ‘나는 그 회사에 사실을 알렸다.’와 같이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문으로 만들면 ㉠의 예가 된다. 이때의 ‘그 회사’는 주동문에서 주어로 쓰였으므로 피사동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동문 ‘장미가 저절로 피었다.’를 ‘마술사’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피다’는 자동사이고 문장 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합하다.
- ② 주동문 ‘나의 마음이 아프다.’를 ‘누나의 고통’을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아프다’는 형용사이고 문장 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합하다.
- ④ 주동문 ‘내가 그 일을 했다.’를 ‘할아버지’를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하다’는 타동사이고 문장 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합하다.
- ⑤ 주동문 ‘내가 그 상품을 구입했다.’를 ‘동생’을 사동주로 하여 만든 사동문이다. ‘구입하다’는 타동사이고 문장 구조도 ㉠과 같으므로, ㉠의 예로 적합하다.

36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엄마가 나를 안았다.”는 피동문인 “나는 엄마에게 안겼다.”와 대조해서는 능동문이다. 만약 사동문인 “언니가 나를 엄마에게 안겼다.”와 대조한다면 주동문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은 적절한 진술이다.

㉡: (㉠)에서 ‘-게 하다’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Y인데, Y가 ‘-게’가 이끄는 부사절 바깥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면, ㉠에서 보듯이 부사절 안에서는 생략된다. 그러므로 ㉡은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사동문에 있는 사동주를 제거하면 주동문의 성분만 남게 되는데 서술어는 사동사나 ‘-게 하다’ 그대로이므로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 ㉡: 지문에서 ‘Y에/에게’ 대신에 ‘Y를’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개에게’가 ‘개를’이 된 것이지 ‘개가’가 ‘개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37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 ‘홀이불[흔니불]’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ㅣ’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되었다. 그다음으로 ‘ㄴ’ 앞에서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에서는 음운 변동이 3회 일어났다.

㉡: ‘갸히다[가치다]’에서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고, 이어서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에서는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다.

㉢: ‘꽃밭만[꼴뻬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ㅈ’이 ‘ㄷ’으로 바뀌었고 ‘ㄷ’ 뒤에서 ‘ㅂ’이 ‘ㅃ’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바뀌었고, 그 ‘ㄷ’이 뒤의 비음 ‘ㅁ’ 때문에 ‘ㄴ’으로 비음화되었다. 따라서 ㉢에서는 음운 변동이 4회 일어났다.

㉣: ‘짓밟는[질뻬는]’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ㅌ’이 ‘ㄷ’으로 바뀌었고 ‘ㄷ’ 뒤에서 ‘ㅂ’이 ‘ㅃ’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또 ‘ㅃ’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남은 ‘ㅂ’이 뒤의 비음 ‘ㄴ’ 때문에 ‘ㅁ’으로 비음화되었다. 따라서 ㉣에서는 음운 변동이 4회 일어났다.

38 용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 ‘노력했다면’은 어간 ‘노력하-’에 선어말 어미 ‘-었-’과 연결 어미 ‘-다면’이 결합된 형태이고, ㉡ ‘언었겠지’는 어간 ‘언-’에 선어말 어미 ‘-었-’과 ‘-겠-’ 그리고 종결 어미 ‘-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은 2개, ㉡은 3개의 어미가 결합되었으므로 동일한 개수의 어미가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 ‘언었겠지’에서는 종결 어미 ‘-지’가, ㉡ ‘상징합니다’에서는 종결 어미 ‘-ㅂ니다’가 분석된다. 따라서 하나의 종결 어미가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 ‘빛나는’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 ‘밝은’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분석된다.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미가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 ‘찬란하게’에서는 부사형 어미 ‘-게’가, ㉡ ‘빛나는’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 ‘밝은’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

이 분석된다. 따라서 각각 한 개의 어미만 분석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모든 용언은 하나의 어말 어미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으므로 용례와 관계없이 적절한 진술이다.

39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아드릭’에서 확인되는 형태소인 ‘아들’의 모음이 모두 양성 모음이고, ‘구름의’에서 확인되는 형태소인 ‘구름’의 모음이 모두 음성 모음으로 각각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를 보여 준다. 또한 관형격 조사가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익’,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나타나 체언과 조사의 모음 조화도 확인된다. 따라서 둘 다 ㉠과 ㉡에서의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누네’나 ‘고대’에서 부사격 조사가 선행 음절이 ‘눈’과 같이 음성 모음이면 ‘에’로, ‘곧’과 같이 양성 모음이면 ‘애’로 나타나 체언과 조사의 모음 조화가 확인된다. 그러나 ‘누네’와 ‘고대’에서는 ‘눈’과 ‘곧(곧)’이라는 단음절 형태소만 확인되어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 ㉡에서의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안좁(얕음)’이나 ‘업숨(없음)’에서 명사형 어미가 선행 음절이 ‘얕-’과 같이 양성 모음이면 ‘-음’으로, ‘없-’과 같이 음성 모음이면 ‘-음’으로 나타나 어간과 어미의 모음 조화는 확인되나, 체언과 조사의 모음 조화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안좁(얕음)’이나 ‘업숨(없음)’에서는 단음절 형태소만 확인되어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 ㉡에서의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저거(적어)’나 ‘작가(작아)’에서 연결 어미가 선행 음절이 ‘적-’과 같이 음성 모음이면 ‘-어’로, ‘작-’과 같이 양성 모음이면 ‘-아’로 나타나 어간과 어미의 모음 조화는 확인되나, 체언과 조사의 모음 조화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저거(적어)’나 ‘작가(작아)’에서는 단음절 형태소만 확인되어 형태소 내부의 모음 조화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 ㉡에서의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도련ㅎ다’, ‘두련ㅎ다’에서는 접사 ‘-ㅎ다’가 모음 조화를 보이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인 어근 ‘도련’과 ‘두련’에서도 모음 조화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 ㉡에서의 모음 조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40~45] 매체 + 언어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의 화면에서 동아리 학생 6명과 연구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이 함께 실시간으로 인터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데 학생 1, 2, 3과 송◇◇ 학생이 연구원의 발언에 대해 바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행 중에 궁금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질문하기 어렵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채팅 창을 통해 송◇◇ 학생의 질문 메시지와 연구원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의 블로그를 링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인터뷰에서 영상과 음성 언어 외에도 문자나 하이퍼링크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복합 양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가)에서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연구원이 미국에 있고 그곳은 늦은 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면 인터뷰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가)에서 ‘학생 1’이 첫 번째 발언에서 화면과 소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연구원이 잘 들리고 잘 보인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비대면 온라인 인터뷰는 연결 상태에 따라 영상과 음성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가)에서 연구원은 메타버스의 유형에 대해 답변하며 과일을 화면에 공유하고 화면의 글자 ‘라이프 로깅’에 동그라미를 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직접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전달하려는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학생 3’의 발언을 통해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b에서 이용자들의 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를 메타버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기업 간 재산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간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의 수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연구원의 마지막 발언에서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탈감각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가상 세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b에는 증강 현실 게임에 몰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메타버스 속의 각종 디지털 범죄가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수용한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③ (나)-b에서 메타버스 속 사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아쉬웠다는 내용의 수용은 적절하다.
- ④ (가)의 연구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의 정보 격차가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한편 (나)-a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의 도입을 위해서는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수용은 적절하다.
- ⑤ (가)에서 연구원은 라이프 로깅이 현실에서 겪은 경험이나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에 기록하여 저장, 공유하는 활동이며 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의 위치나 검색 내역 등이 기록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로 비밀이 없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수용은 적절하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나)-a는 본문의 앞에 우리 사회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 메타버스가 고령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메타버스가 소통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글의 구성과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a는 작성자가 칼럼을 최초 작성한 시간과 마지막 수정 시간을 나란히 적고 있지만 수용자들은 이를 통해 최초 글에서 수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수정 전의 내용과 수

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나)-b는 전달 내용과 관련하여 증강 현실 게임을 하면서 걸어가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수용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b에서 두 소재물은 글자의 굵기와 형태가 본문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지만 수용자가 이를 선택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퍼링크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나)-a는 ‘메타버스에서 찾자!’라는 청유형을 통해, (나)-b는 ‘메타버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관점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a의 제목은 수용자들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행동 촉구로 볼 수 있지만, (나)-b의 제목은 수용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4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a가 메타버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반해, (나)-b는 메타버스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제시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b는 a와 달리 메타버스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두 주장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a에서 작성자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 플랫폼을 제안하며 가칭 ‘은빛 세상’의 구상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한 대안의 실효성을 판단하며 수용하는 태도는 적절하다.
- ② (나)-b는 ‘열아홉 살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블로그 명칭과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메타버스의 이용자인 우리’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나)-b는 개인 블로그로 메타버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관련 정보를 전달한 매체이므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수용 태도는 적절하다.
- ③ (나)-b는 개인 블로그로 사적인 매체이지만 (나)-a는 인터넷 신문으로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나)-a의 작성자가 제안하고 있는 ‘은빛 세상’, ‘은빛 학교’, ‘은빛 병원’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는 수용 태도는 적절하다.

- ⑤ 메타버스에 대해 (나)-a는 메타버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보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관점을, (나)-b는 메타버스 안팎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의 각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수용 태도는 적절하다.

44 정보의 전달과 설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에는 메타버스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에 제시된 제목 ‘메타버스는 어디에서 타나요?’가 #2에 제시된 어원에 착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연구원은 메타버스가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신의 블로그를 링크하였다. 이에 부족한 설명을 보강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 #4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경제 활동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에서 연구원은 메타버스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한 화면에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네 유형의 명칭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3에서는 각 유형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메타버스의 유형 분류에 대한 출처를 밝힘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b에서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1년간 발생한 관련 사건 기사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고 있다. #6에서는 이 기사들의 주소를 그대로 제시하고 발표 시 기사를 보여 주기 위해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때 클릭 소리가 나도록 효과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시의성 있는 사건 기사를 직접 연결하여 메타버스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 줌으로써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a는 메타버스를 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고 있고, (나)-b는 메타버스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제시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각각 #5와 #6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각 화면 내용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품사의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㉞ ‘다른’은 ‘비교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이다. 형용사 ‘다르다’는 ‘~와/과 다르다’의 ‘~와/과’처럼 비교 대상이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데, ㉞에서는 ‘현실 세계와’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㉞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 ㉢의 ‘다른’은 ‘당장 문제가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의미를 갖는 관형사이다. 이들은 형용사 ㉞와 달리, ‘~와/과’와 같은 문장 성분이 쓰이지 않았고 의미적으로도 ‘다르다’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의 예가 아니다.

수능 감(感)잡기

감을 잡으면 수능이 두렵지 않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④	12 ②	13 ⑤	14 ⑤	15 ⑤
16 ④	17 ④	18 ②	19 ①	20 ④
21 ③	22 ②	23 ④	24 ①	25 ③
26 ③	27 ⑤	28 ③	29 ①	30 ④
31 ③	32 ④	33 ③	34 ②	35 ④
36 ②	37 ⑤	38 ④	39 ②	40 ④
41 ④	42 ④	43 ④	44 ④	45 ④

[01~05] 독서 - 인문

거짓말쟁이 역설

해제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고 보며, 진술의 배중률과 모순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 진술은 고전 논리의 규칙으로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타르스키는 문제의 원인이 해당 진술에 나타나는 자기 지시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고전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언어가 위계를 가진다는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역설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언어 위계론으로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진술을 메타언어나 대상 언어로 구분한 것은 고전 논리를 고수한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반론도 제기되었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크립키나 프리스트는 고전 논리의 가정인 배중률과 모순율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역설을 해결하려 했다.

주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학자의 견해

구성

- 1문단: 고전 논리에서 진술이 갖는 두 개의 진리치
- 2문단: 고전 논리로는 설명이 어려운 거짓말쟁이 역설
- 3문단: 자기 지시성을 역설의 원인으로 본 타르스키
- 4문단: 타르스키가 주장한 언어 위계론
- 5문단: 타르스키의 주장에 대한 반론들
- 6문단: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크립키와 프리스트의 견해

01 중심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옳답인 이유

- ④ 3, 4문단에서 타르스키는 언어 위계론을 통해 거짓말쟁이 진술이 가지는 자기 지시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어 위계론에서는 ‘이 문장이 있다.’는 대상 언어,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메타언어로 구분한다. 대상 언어는 메타언어보다

위계가 낮다. 메타언어에 포함된 ‘거짓이다’는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이 있다.’는 언급할 수 있지만, 위계가 같은 ‘이 문장은 거짓이다.’를 언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리 술어인 ‘거짓이다’가 대상 언어인 ‘이 문장이 있다.’를 언급한다고 본다면 타르스키의 관점에서 역설은 해소된다.

오답이 옳답인 이유

- ① ㉠은 ‘거짓이다’라는 진리 술어를 포함하고 있다.
- ②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진리 술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메타언어이다. 이는 대상 언어인 ‘이 문장이 있다.’보다 위계가 높다.
- ③ ㉠은 메타언어인데, 여기에 ‘거짓이다’라는 진리 술어를 덧붙이면 ㉠은 대상 언어가 된다.
- ⑤ ㉠에 ‘참이다’를 덧붙여 만든 새로운 진술은 ㉠보다 위계가 더 높다. 따라서 ㉠에 포함된 ‘거짓이다’는 새로 만들어진 진술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옳답인 이유

- ② 타르스키는 언어 위계론을 제시하여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면서도 역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언어 위계론에서는 고전 논리에 없던 규칙인 대상 언어와 메타언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진술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5문단에서 언급된 또 다른 규칙이란 진술을 메타언어나 대상 언어로 구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언어 위계론으로 역설을 설명한 것이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오답이 옳답인 이유

- ① 참과 거짓이 모순 관계라는 것은 고전 논리의 입장이고, 타르스키는 고전 논리 안에서 역설을 해소하려 하였으므로 참과 거짓이 모순 관계라고 규정한 것이 고전 논리에 없던 또 다른 규칙을 추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③ 타르스키는 고전 논리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고 보았다.
- ④ 타르스키는 ‘참이다’와 ‘거짓이다’의 의미 간에는 위계를 두지 않았다.
- ⑤ 타르스키는 진리치가 참인 진술의 개수와 거짓인 진술의 개수를 비교한 적이 없다.

03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모순율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고전 논리의 법칙 중 하나이다.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어떤 진술은 모순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크립키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사례가 거짓말쟁이 진술이라고 보았다. 즉 크립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은 배중률을 따르지 않는 사례로 보았다.
- ③ 거짓말쟁이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라고 본 것은 프리스트에 해당한다.
- ④ 크립키와 프리스트는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하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하고자 했다.
- ⑤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장 구조가 사용된 진술을 자기 지시성이 있는 진술이라 하는데,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보았다.

04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5문단에서 '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역설이 아닌 진술이므로 C에 해당한다. 이 진술에는 '참이다'라는 진리 술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의 경우도 '너의 말은 참이다.'와 같은 진리 술어가 포함된 진술을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자기 지시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역설인 진술이므로 거짓말쟁이 진술이 이에 해당한다. 고전 논리에서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해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 되었다. 즉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었다.
- ② 5문단에서 '뒤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의 경우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도 역설이 발생하는 진술이라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진술은 아니므로 역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신라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하는 진술이므로 자기 지시성이 없고, 역설도 아니다.

05 숨겨진 전제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먼저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T2)라는 진술에 포함된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된다고 하자. 그러면 갑돌이는 참말을 하는 고등학생이므로 가정과 결론이 모순되어 <보기>의 추론 과정에 따라 역설로 볼 수 있다. 이번에는 T2의 '어떤 고등학생'에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갑돌이는 거짓말을 하는 고등학생이므로 가정과 결론이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역설로 볼 수 없다.

[06~11] 독서 - 사회

조선의 화폐 개혁

해제 조선은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겨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명목 화폐를 발행하였다. 당시 민간에는 미포와 같은 물품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지만, 태종은 닥나무 껍질로 만든 명목 화폐인 저화를, 세종은 구리로 만든 명목 화폐인 조선통보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두 화폐 모두 물품 화폐에 익숙한 백성들의 관습과,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17세기 상업의 확대로 명목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자 속종은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원료가 되는 구리의 공급이 부족하여 전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상평통보에 포함된 구리의 양을 줄이면서 시중의 화폐량을 늘리는 노력을 통해,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은 거래의 기준으로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제 조선 시대의 화폐 개혁

구성

- 1문단: 조선의 명목 화폐 발행의 목적
- 2문단: 저화의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괴리
- 3문단: 조선통보의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괴리
- 4문단: 상평통보 중 초주단자전과 대형전의 발행 배경
- 5문단: 화폐의 공급 부족에 따른 전황 현상
- 6문단: 상평통보 중 중형전의 발행 배경

06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3문단에서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본 세종은 주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이 주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세종의 주화 제도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저화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화폐라고 하였다.
- ② 2, 3문단을 통해 저화와 조선통보의 발행이 사섬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서 발행 당시 주화 1문은 저화 1/2장으로 정했고 주화는 저화와 아울러 같이 쓰이게 했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발행할 당시에 저화 1장의 명목 가치는 포 1필 또는 쌀 2말로 맞췄다고 하였다.

07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4문단에서 초주단자전 발행 이듬해에 대형전을 발행했다고 하였으므로 대형전은 1679년에 발행된 것이다. 대형전은 초주단자전보다 1문당 명목 가치가 상승하였다. 초주단자전에서는 은 1냥과 교환하기 위해 400문이 필요하지만, 대형전은 100문만 있으면 교환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에서 상평통보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구리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도 공급받았다고 하였다.
- ② 5문단에서 전황 시기에 상평통보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물품이 아닌 주화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였다.
- ④ 4문단에서 1678년에 발행된 상평통보인 초주단자전의 명목 가치는 은 1냥당 400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2냥은 초주단자전 800문의 명목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일부 부유한 상인들이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 안에 쌓아 두기 시작하면서 전황이 발생하였고, 이 당시 채무자는 더 많은 물품을 주고 상환에 필요한 주화를 구해야 했다고 하였다.

08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ㄱ: 관청에서 백성들의 물품을 저화로 사 주는 것이므로, 관청이 보유한 저화가 시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저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ㄷ: 국가가 관리에게 녹봉을 저화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보유한 저화가 시장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저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ㄴ, ㄹ: 저화의 소유가 시장에서 관청으로 이동하므로 저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09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6문단에서 중형전의 명목 가치, 즉 액면 가격은 은 1냥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4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형전의 액면 가격과 동일하다. 또한 중형전의 발행이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1문단에 근거했을 때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중형전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 이유는, 액면 가격은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은데 주화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은 중형전이 더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형전과 대형전의 액면 가격이 동일한 것은 적절하지만, 구리의 함유량은 대형전이 더 높았다.
- ② 발행 당시 초주단자전은 400문으로 은 1냥과 교환할 수 있었고, 중형전은 100문으로 은 1냥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액면 가격은 서로 다르다.
- ③ 명목 화폐 형태로 유통된 것과 상평통보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 중형전이 발행되면서 주조 차익이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대형전과 중형전은 모두 발행 당시 은 1냥당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두 주화 모두 액면 가격의 척도가 은과 연관되어 있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주화를 녹여 구리로 만드는 것은, 주화의 명목 가치를 포기하고 재료의 실질 가치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 B의 상황에서 주화를 녹이면 주화의 명목 가치인 1문은 잃게 되지

만 구리의 실질 가치인 2문을 얻게 된다. 따라서 주화 1문을 녹여 팔면 1문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점 A는 주화 1문으로 구리 1g이나 쌀 1되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 ② 점 B는 점 A보다 구리와 쌀 가격이 모두 두 배씩 오른 상황이다. 점 B에서는 구리 1g으로 쌀 1되를 살 수 있지만, 주화 1문으로는 구리 1g이나 쌀 1되를 살 수가 없다.
- ③ 주화 1문을 화폐로 본다면 명목 가치도 1문이다. 반면에 주화 1문을 구리 1g으로 본다면 점 B의 상황에서 2문의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때 주화에 들어 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는 2문이다. 따라서 주화의 명목 가치보다 주화에 들어 있는 구리의 실질 가치가 더 높다.
- ⑤ 3문단에서 세종이 국고미를 팔아 주화를 환수한 것은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 주화로 표시한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주화를 환수해도 화폐의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으며,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점 B의 상황에서, 쌀 1되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은 하락하고 구리 1g당 주화로 표시한 가격은 하락하지 않은 (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11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범용’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아울러 같이 쓰임.’의 뜻은 ‘병용(併用)’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도모하다’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② ‘통용되다’는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다.’라는 의미로 ㉡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③ ‘빈번하다’는 ‘번거로울 정도로 도수(度數)가 잦다.’라는 의미로 ㉢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용이하다’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라는 의미로 ㉤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2~17] 독서 - 주제 통합(과학 · 기술)

(가) 식물의 광합성

해제 식물의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데, 포도당을 합성할 때 필요한 수소 이온과 전자를 명반응에 의해 생성된 NADPH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다. 식물의 생장에 알맞은 온도나 습도가 바뀌면 광합성 효율, 즉 시간당 포도당을 합성하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벼를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면, 벼는 낮 동안 기공을 닫아 수분 손실을 막는다. 그 결과 벼 내부에 이산화 탄소가 부족해져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 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인 광호흡을 하게 되고, 광합성 효율은 감소한다.

주제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원리

구성

- 1문단: 식물의 광합성의 의미
- 2문단: 명반응과 암반응의 과정과 원리
- 3문단: 광호흡과 광합성 효율의 의미

(나) 인공 광합성 기술

해제 식물의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을 ‘인공 광합성’이라 하는데, 이는 빛을 이용하여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반응을 뜻한다. 이 기술 중 광전기 화학 전지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모방한 것으로, 물에 반도체 물질인 ‘작동 전극’과 백금인 ‘상대 전극’이 담겨 있고 두 전극은 전선으로 이어진 구조이다. 작동 전극에 빛을 조사하면 상대 전극에서 수소(H₂)가 생산된다. 이때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동 전극에 사용되어 왔던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주제 인공 광합성 기술인 광전기 화학 전지의 구조와 원리

구성

- 1문단: 인공 광합성의 의미
- 2문단: 광전기 화학 전지의 구조와 원리
- 3문단: 광전기 화학 전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의 요건

12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광합성의 원리를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수소를 얻기 위해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인 인공 광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는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발견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인공 광합성 기술에 대한 변천 과정을 축전 장치의

유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광합성과 관련한 가설들을 검토하거나 입증하고 있지 않다.
- ⑤ (나)에서 식물의 광합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적인 기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3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2문단에서 암반응에서는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3문단에서 온대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벼를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하면,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보다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 광호흡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광합성 효율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2문단에서 음극인 상대 전극에는 백금을, 양극인 작동 전극에는 반도체 물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축전 장치는 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빛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모아 두는 곳이라고 하였다.
- ③ (가)의 3문단에서 고온 건조한 환경에 놓인 벼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나)의 3문단에서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띠틈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1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2문단에서 암반응에서는 포도당이 합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수소 이온과 전자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가 NADP⁺로 산화되면서 공급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명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NADPH이고 이것이 포도당을 합성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 NADP⁺는 암반응 과정에서 NADPH가 산화되면서 만들어진다.
- ②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암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볼 수 없다.
- ③ 루비스코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반응이 아니라 합성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 ④ 명반응에서 NADPH가 합성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물이 분해가 된다.

15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ㄴ: (가)의 2문단에서 광합성 색소에서 흡수한 빛에너지를 명반응에서 이용한다고 하였고, (나)의 2문단에서 양극인 반도체 물질을 향해 빛을 조사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음극 쪽에서 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ㄷ: (가)의 1문단에서 명반응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서, 암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나)의 2문단에서 광전기 화학 전지는 광합성의 명반응을 모방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광전기 화학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광합성의 과정 중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ㄱ: (가)의 1문단에서 식물의 광합성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고, (나)의 1문단에서 인공 광합성은 실제로 유기물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만들어 내는 반응을 뜻한다고 하였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현재 C는 띠틈이 3.0eV를 넘기 때문에 주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나)의 3문단에서 반도체 물질에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를 높여 주면 띠틈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고, 이렇게 만든 물질은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적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도를 높여 주면, 첨가 전보다 가시광선의 흡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B와 달리 빛에 의한 부식은 없다. 하지만 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물질의 띠틈은 1.3eV 이상이어야 하는데, A의 띠틈은 그보다 작다.
- ② C가 B보다 띠틈이 더 큰 것은 맞지만, 모두 반도체 물질이므로 상대 전극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B는 빛에 의한 부식이 있어서 작동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 ③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

다. 띠틈이 A는 1.1eV이고 B는 2.5eV이므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최소 에너지는 B가 A보다 더 크다.

- ⑤ ‘에너지띠 이론’에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흡수한 빛에 의해 띠틈 이상의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뛰어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의 기본형인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계획에 지장이 생겼다.’의 ‘생기다’가 문맥상 ㉠과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뭇이 분배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기본형인 ‘나누이다’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이 구분되어 분류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기본형인 ‘일어나다’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급한 일이나 임무가 맡겨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기본형인 ‘떨어지다’는 ‘값, 기온, 수준, 형세 따위가 낮아지거나 내려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높은 부분의 위를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의 기본형인 ‘넘다’는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에서 벗어나 지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23] 문학 - 현대시+현대 수필

(가) 신경림,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해제 이 작품은 특급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화자가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 회의를 느끼면서 목적 달성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화자는 여유로운 삶을 갈망하며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닌 여유로운 삶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대 문명이 만들어 낸 속도와 목적 지향적인 삶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던지고 있다.

주제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느낀 삶에 대한 반성과 여유로운 삶의 회복

구성

- 1연: 특급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 2연: 산역에서 내려 즐기는 여유로운 삶
- 3연: 목적에서 벗어나 즐기는 삶의 여유

(나) 한용운, 「사랑의 측량」

해제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임과 거리가 멀수록 오히려 사랑의 양이 많아지고 깊어진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비록 임과 떨어져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을 고백하고 있다. 측량은 기계를 써서 물건의 길이나 깊이 등을 재어 헤아리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물질인 것처럼 치환하여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송고한 사랑

구성

- 1연: 당신과 ‘나’의 거리와 사랑의 양
- 2연: 당신이 가신 뒤로 더 깊어지는 사랑

(다) 이어령, 「폭포와 분수」

해제 이 글은 폭포와 분수의 특성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글쓴이의 사유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동양인은 폭포를, 서양인은 분수를 좋아한다고 단정 짓고 이를 장소와 형태, 성질에 따라 비교하면서 이것이 동서양의 가치관이나 역사, 문명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동서양의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

구성

- 1문단: 폭포에 대한 동양의 인식
- 2문단: 분수에 대한 서양의 인식
- 3, 4문단: 폭포와 분수의 차이
- 5문단: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폭포
- 6문단: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는 분수
- 7문단: 폭포와 분수에 반영된 동서양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
- 8문단: 분수를 통해 본 서양 문화의 특성

1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기차를 타는 상황과 걷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걷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는 적은 사랑과 많은 사랑과 관련하여 화자가 웃는 상황과 우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임과의 사랑을 희구하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상황과 자연을 거스르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두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산’이나 ‘숲’과 같은 이상적 공간이 드러나지만, (나)와 (다)에서는 이상적 공간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가치의 중요성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에서는 목적과 속도에 쫓긴 인간의 삶에서 벗어난 산속의 공간과 연결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인간의 삶과 공간을 연결 짓지 않고 있다. (다)는 광장이나 산속과 같은 공간을 인간의 문화와 연결한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를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
- ④ (가)는 근대적인 도시 공간과 대비되는 자연 속 공간을 통해 여유로운 삶의 공간인 자연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와 (다)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가)에는 여유를 잃고 속도와 목적에 집착하는 현실, (나)에는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인 부정적인 현실이 드러나지만, (다)에는 특별히 부정적인 현실이 언급되지 않으며, (가)~(다)는 모두 절망감과도 거리가 멀다.

19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 버리자’, ‘~ 걷자’와 같이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실천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명령형 어미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걷자 발이 부르릉 때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어쩌랴 이르고자 한 곳에’와 같이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유로운 삶의 회복이라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목적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난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양’이나 ‘거리’와 같이 가

시적인 것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측량하여 ‘나’와 ‘당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희구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버니다’, ‘~요’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면서 시적 대상인 임을 우러르는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던 화자가 내리고자 하는 곳으로, 평소 화자가 살았던 ‘서둘러 달’리는 삶과는 다른 여유로운 삶과 연결되는 장소이고, ㉡은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 즉 분수가 있는 공간으로, 도시에 있는 ‘분수’를 보면서 글쓴이가 자연의 섭리에 저항하는 서양의 가치관을 발견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화자가 지금까지 서둘러 목표만을 지향했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으로 화자의 조바심과는 거리가 있다. ㉡은 서양의 역사 및 문화, 서양인의 의식과 관련된 공간으로 의아함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화자는 ㉠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 일체화된 여유로운 삶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글쓴이가 서양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설명할 뿐,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 ③ ㉠은 화자가 ‘차를 버리고’ 여유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삶의 태도가 그 공간을 통해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은 글쓴이가 서양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설명할 뿐, 스스로를 성찰하는 공간은 아니다.
- ⑤ 화자는 ㉠에서 과거의 어려움을 떠올리고 있지 않으며, ㉡에서 글쓴이가 현재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어야 ‘사랑의 양’이 많다는 것을 통해 ‘사랑’과 ‘거리’의 역설적 관계가 드러나지만, <보기>를 통해 볼 때 이는 임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나’를 웃기는 것은 ‘적은 사랑’이고 이는 거리가 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웃음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고 이는 숭고함을 소실한다는 것이므로, 임을 향한 사랑의

숭고성을 노래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즐거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다는 통념을 제시하면서 '당신의 사랑'은 이와는 달리 양이 적을수록 좋은 것 같다는 상반된 인식을 드러낸다.
- ② '사랑의 양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어, 사랑의 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거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은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더 많이 알고자 하면서 서로 유사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유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익숙함은 처음에 서로에게 가졌던 사랑의 숭고함을 소실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워야 사랑도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유사해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나는 입과 멀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익숙함이 아닌 숭고함을 위해 거리가 멀어지는 슬픔을 받아들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한다고 한 것을 통해 '나'가 우는 것은 멀리 떨어질수록 커지는 역설적인 입과의 사랑과 그 숭고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폭포'는 '심산유곡'이라는 공간에 있어 숨어 있고, '분수'는 '도시'의 변화한 곳에 있어 길으로 드러난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폭포'와 '분수'가 있는 곳을 언급하고 있지만, '심산유곡'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녀'나 '용'의 이야기는 '동양인'의 마음속에 흐르는 이야기들로 글쓴이가 폭포에 '원시적인 환각의 무지개'가 서려 있다고 생각하게 된 동양적 이야기들의 예시로 볼 수 있다.
- ③ '폭포'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낙하'한다고 밝힌 문장으로, '폭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자연스러운 물의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 ④ '분수'를 가장 물답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본성을 거스르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솟구치는 '분수'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한 것이다.
- ⑤ '분수'가 지속적으로 물을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는, 즉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인위적인 '모터'의 힘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의 '그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보아 온 같은 풍경과 말들과 '중착역'에 도달하면 보게 될 것들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기차는 오로지 출발과 도착의 공간 이동만 있을 뿐, 그 사이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과 관련하여 '속도 지향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의 '심산유곡'은 서양의 인위적인 힘이 아닌 자연에 순응하는 폭포가 있는 공간으로 기계론적 세계관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서둘러 달려갈 일'은 <보기>의 '근대의 목적 지향적, 속도 지향적인 기계론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빠른 속도로 목적지로 가는 것과 연관되며, (다)의 '원초적인 꿈의 무지개'도 서양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여유를 중시하는 삶보다는 목적 지향적인 삶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설렘'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멈추고 삶의 여유를 찾았을 때 느끼는 것으로, <보기>의 근대 이전의 삶, 즉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 이전의 삶과 연결이 된다. 그러나 (다)의 시원하고 힘찬 '물줄기'는 '폭포'와 '분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된 것이므로 인위적인 물줄기로 한정할 수 없다.
- ③ (가)의 '내가 할 일'은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해야 할 일로, 사색을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다)의 '로켓이 치솟아 오르듯이'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것은 서양의 인위적인 기계의 힘과 관련이 되므로 <보기>의 새로운 공간을 여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는 (다)의 서양인들이 말하는 '창조의 힘'과도 관련이 된다.
- ⑤ (가)의 '복사꽃 숲'은 '낮잠' 등과 같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공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의 '문명의 질서'는 서양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이는 <보기>의 목적 지향적 삶과 관련이 되지만, 글쓴이가 목적 지향적 삶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최명익, 「비 오는 길」

해제 이 작품은 사색적 인물인 병일의 자의식에 천착하여 지식인의 고독과 허무를 다룬 소설로, 1936년 『조광』에 발표되었다. 인물의 심리 변화와 의식의 흐름을 섬세하게 그려 낸 심리 소설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주제 현실의 변화를 모색하는 지식인의 내면과 고뇌

전체 줄거리 병일은 성 밖에 있는 공장에 사환 겸 사서로 근무하고 있다. 병일은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집에서 옛 성문 안을 가로질러 공장에 이르는 길을 왕복한다. 어느 날 그는 비를 피하기 위해 사진관 앞에 서 있다가 사진관 주인을 만나게 된다. 사진관으로 병일을 불러들인 사진사는 병일에게 술을 권하며 큰 사진관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진사에 대해 병일은 집으로 돌아와 사진사를 비웃는다. 그럼에도 병일은 사진사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사진사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도 병일은 고독을 느낀다. 공장에서 돌아오면 책을 보던 습관도 버리고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사진사가 장티푸스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병일은 사진사의 죽음을 통해 더욱 독서에 매진해야겠다고 다짐한다.

24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그의 미간에 칼자국같이 깊이 잡힌 한 줄기의 주름살과, 구똥술을 잘라 붙인 듯한 거친 눈썹과, 인중에 먹물같이 흐른 커다란 코 그림자는 산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얼굴의 윤곽을 도려낸 백지 판에 모필로 한 획씩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보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눈썹’, ‘코 그림자’와 같은 얼굴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에 대한 병일의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A]에서는 대상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에 대한 인물의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백지 판에 모필로 한 획씩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보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관적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 ④ ‘인중에 먹물같이 흐른 커다란 코 그림자는 산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얼굴의 윤곽을 도려낸 백지 판에 모필로 한 획씩 먹물을 칠한 것처럼 보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사물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으나 사물로 보이는 대상이 점차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A]에서는 병일의 눈에 보이는 얼굴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의 전체 형상에 대한 추측은 나타나지 않는다.

2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비에 놀란 듯한 얼굴은 쇼윈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같이 친절한 것은 등실한 그 배의 성격이거나 생각하며 원하는 대로 현관문 안에 들어섰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사진사가 병일에게 사진관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은 병일이 사진사의 권유를 수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렇게 서서 의식의 문밖에 쏟아지는 낙숫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있는 병일이는, 광선이 희화화한 쇼윈도 안의 초상이 한 겹 유리창을 격하여 흠금흠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충혈된 눈을 마주 보았다.’와 ‘비에 놀란 듯한 얼굴은 쇼윈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다.’에 나타나듯이, 병일은 쇼윈도 안의 초상이 상대방의 얼굴임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병일이 상대방의 얼굴과 자신을 바라보는 쇼윈도 안 초상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인물의 얼굴임을 알아차린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 ② ‘지금껏 자기를 흠금흠금 바라보는 그 충혈된 눈에 작은 반감을 가졌던 것이었다.’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같이 친절한 것은 등실한 그 배의 성격이거나 생각하며 원하는 대로 현관문 안에 들어섰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은 사진사에게 반감을 느끼지만, 사진사에게 반감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④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올걸요.’ / 휘파람을 불다 말고 사진사는 이렇게 말을 건네며 병일이를 쳐다보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사진사에게 홍수에 대한 화젯거리를 제공한다. 그런데 “글쎄요……?”와 같은 병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은 사진사의 예견에 선뜻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은 사진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사진사의 예견에 동의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 ⑤ ‘이 완고한 젊은이의 무지와 충돌하여 부질없는 얘기가 벌어지게 되면…… 귀찮은 일이다. / 그때에 현관문으로 작은 식함이 들어왔다. 오늘 만든 듯한 새 사진을 붙이고 있던 주인은 일감을 밀어 치우고 식함에 놓인 술병과 음식 그릇을 테이블 위에 받아 놓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 “자,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미 청하였던 것이지만.” / 하고 술을 따라서 병일에게 건네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사는 병일의 속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 ㉡은 병일의 속내를 파악한 사진사가 병일에게 반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26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한 느낌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하여짐을 금할 수 없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은 퇴근길에서 시원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 병일이 같은 길을 걷는 이유는 그 길이 집과 공장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저녁마다 장구 소리와 어울려서 나어린 계집애의 목청으로 부르는 노랫소리가 새어 나오던 집이었다. / 새 문등이 달리자 초롱을 든 인력거꾼이 그 집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새 문등이 달리자 집 문밖에서 기다리는 인력거꾼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 ②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하여 이 신작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 상공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 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은 옛 성문 밖 신흥 도시의 공장 지대에 위치한다.
- ④ ‘병일이는 이렇게 꼭 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하기가 미안하였다. 그렇다고 “설마 그럴까요.” 하였다가 이 완고한 젊은이의 무지와 충돌하여 부질없는 얘기가 벌어지게 되면…… 귀찮은 일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은 사진사가 노인들의 증척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 ⑤ ‘오늘 만든 듯한 새 사진을 붙이고 있던 주인은 일감을 밀어 치우고 식함에 놓인 술병과 음식 그릇을 테이블 위에 받아 놓고 의자를 당겨 앉으며 / “자,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미 청하였던 것이지만.”, “그러지 마시구 자, 한 잔 드시우. 자, 이미 권하던 잔이니 한 잔만…….” / 아직 인사도 안 한 그가 이렇게 치근스럽게 술을 권하는 것이 불쾌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여 보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은 술잔을 사진사에게 권하지 않고 술잔을 내려놓는다. 이는 술꾼들의 습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병일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병일이 술꾼들의 습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여름에는 초저녁부터 그 집 안방에 가득 차게 쳐 놓은 생초 모기장을 볼 수 있었다. / 다른 집들은 이 여름에도 여전히 모기쑥을 피우고 있다.’와 ‘옛 성벽 한 모퉁이를 무찌르고 나간 그 거리는 아직 시가다운 시가를 이루지 못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이 길에서 발견하는 것은 점차 도시의 생활 방식이 도입되는 모습들이다.
- ②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의 시재를 적어 놓으면 주인은 금고의 현금을 세었다.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 놓은 숫자와 주인이 센 현금이 맞아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의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은 신원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이는 <보기>의 ‘계약에 의해 신뢰가 형성되는 도시민의 세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이나 아까 보던 사진의 그것은 모두 조화되지 않은 광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였다.’와 ‘희화된 초상화에서 흐르는 땀방울!’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은 사진관의 사진과 사진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는 병일이 갖고 있는 기계 문물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갈기려는 채찍을 피하여 달아나는 구렁이를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하며, 잡지 말라는 노인들을 둘러싼 젊은이들은 문 위에 올라간 사람을 지휘하며 웃고 떠들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구렁이를 대하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반응은 과거의 인습에 대한 세대 간의 사고가 대립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돌아가는 잔이라든가 권하던 잔이라든가 하는 술꾼들의 미신적 습관과 ‘마지못해서 받아 마시고는 잔을 그이 앞에 놓았다. 술을 따라서 잔을 건네면 이 술추렴에 한몫 드는 셈이 되겠는 고로 빈 잔을 놓은 것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일

(가) 「원생몽유록」의 이해

해제 이 글은 「원생몽유록」이 창작된 배경과 몽유록의 특징을 담고 있다. 「원생몽유록」은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신하들이 죽음을 맞게 된 병자사화를 소재로 하였다. 임제는 병자사화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원생몽유록」을 창작하였다. 한편 몽유록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들이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자신의 이상을 표출하기 위해 꿈을 활용한 환몽 구조로 풀어낸 갈래이다. 특히 몽유록은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몽유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주제 「원생몽유록」의 창작 배경과 몽유록의 특징
구성

- 1문단: 병자사화를 소재로 창작된 「원생몽유록」
- 2문단: 몽유록의 다양한 특징

(나) 임제, 「원생몽유록」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임제가 지은 한문 소설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반발하여 단종의 복위를 꾀한 병자사화를 소재로 ‘현실-꿈-현실’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몽유록계 소설이다. 주인공 원자허가 꿈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비분강개를 드러내며 흥망의 도를 토론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치권력의 모순과 인간사의 부조리를 비판한 작품이다. 특히 임몽과 각몽이 뚜렷하고, 꿈속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몽유자인 원자허의 경험에 대해 해월거사가 듣고 몽중 상황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등 몽유록계 소설의 대표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인간사의 부조리와 정치권력의 모순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선비인 원자허는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든다. 꿈속에서 원자허는 어느 강변에서 휘파람을 불며 시 한 수를 읊고 있다가 복건을 쓴 이의 영접을 받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 임금(단종)과 다섯 신하를 만난다. 먼저 복건을 쓴 이가 중국 고대의 성왕인 요순탕무가 선위를 통해 왕이 된 것을 비판하자, 단종은 그를 타이르며 네 성왕은 죄가 없고 다만 그들의 양위를 빙자한 자가 도적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임금과 다섯 신하, 복건 쓴 이와 원자허가 차례로 애절한 심회를 시로 읊는다. 끝으로 뒤늦게 참석한 무신 유응부가 비분강개의 심정을 시로 표현하자 갑자기 버락 치는 소리가 나고 원자허는 꿈에서 깨어난다. 원자허의 꿈 이야기를 들은 해월거사는 단종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화를 당한 것에 대하여 하늘을 원망한다.

28 갈래의 특징과 성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원자허는 몽유 과정이 끝난 다음, 꿈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해월거사에게 전하였고 해월거사가 통분한 어조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그런데 원자허는 몽유 경험 후 과거 울분을 느끼던 현실로 되돌아왔으므로, 원자허가 현실에서 가졌던 고뇌가 몽유 과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첫 문단에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원자허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몽중에서도 몽유자 원자허는 임금 및 다른 신하들과 현실 정치에 대한 울분을 털어놓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자허의 비분강개하는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원자허가 처한 상황과 그의 성격을 묘사한 것은 정치권력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몽유록은 몽유자의 특성과 의식이 꿈꾸기 전과 꿈속 세계, 꿈꾼 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몽 이전에 원자허가 가진 슬픔과 울분은 몽중에서 임금이 높이 평가하는 원자허의 지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④ 해월거사는 원자허의 꿈 이야기를 듣고 ‘충의로운 신하들이 현명한 임금을 보필하였는데, 어찌 이리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와 같이 임금과 여섯 신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데, 이 장면은 몽유자인 원자허의 경험을 다른 인물인 해월거사가 듣고 몽중 상황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원자허는 꿈속에서 임금 및 여러 신하와 국가의 흥망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조선 시대 제도권에서 소외된 불우한 선비들이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현실에서의 불만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표출한 것과 관련이 있다.

2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자허는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늙름한 사람들의 마중을 따라가 임금에게 문안을 여쭙고 자리에 앉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자허가 ‘이상하기 짝이 없어 몹시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안함인 것이지, 세조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의 상황에 대한 자허의 연민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복건 쓴 자’는 ‘후세에 여우처럼 알랑거려 선위를 차지하는

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세조에 대한 사육신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임금이 여섯 사람에게 '자기 뜻을 말하여 말 못 할 억울함'을 풀어 볼 것을 제안하고, 이에 임금이 먼저 노래를 부른 다음 신하들이 뒤따라 부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자기 뜻을 말하여' 풀어 보고자 하는 '말 못 할 억울함'은 병자사화로 인해 단종과 여섯 신하가 모두 느낄 법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를 통해 유응부는 문신들의 우유부단함을 질책하며 예정대로 거사를 치르자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범 같은 한 선비'가 "아! 썩은 유생들과는 큰일을 함께 이루지 못하겠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유응부의 입장이 연상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복선화음은 하늘의 도가 아니었던가?'라고 한 것은 원자허의 몽중 경험에 대한 해월거사의 인식으로, 이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상황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0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원자허가 꿈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해월거사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귀를 찢는 천둥소리가 울리니 모두가 홀연히 흩어졌다. 자허도 놀라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허는 선비의 노래가 끝나기 전에 천둥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허가 꿈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해월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꿈에서 깨려고 노력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허는 어찌 그리 더디 오시는가? 우리 임금께서 받들어 마중하게 하셨다네."를 볼 때 복건 쓴 이는 원자허를 마중하라는 임금의 지시에 따라 원자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그 모습이 빼어나고 행동거지에 기품이 넘쳐 저도 모르게 속으로 '뛰어난 이로다.' 감탄하며'를 볼 때 원자허는 복건 쓴이의 외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건 쓴이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복건 쓴 이는 요순탕무를 만고의 죄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네 임금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네 임금을 병자하여 명분을 삼는 자들이 역적일 뿐이다.'를 볼 때, 임금은 요순탕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그 여섯 사람도 모두 충의로운 신하임이 분명하네.'를 볼 때

해월거사는 원자허의 꿈에 등장한 여섯 신하를 충의가 있는 선비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는 임금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한 것으로, <보기>의 화자는 '강 물결 흑흑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슬퍼하며 한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예닐곱 신하와 함께하니 님을 그나마 기대했다고 했으므로, <보기>를 듣고 있는 여섯 신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A]에는 노래를 듣고 있는 신하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바람 소슬하니 나뭇잎 지고 물결은 차다'를 통해 임금과 신하들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달빛에 빛난 물결 내 마음 시름겹게 하느니'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부각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살아서는 충효 온전하고 죽어서는 군센 혼백 되었던도다'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강 물결 흑흑 흐느끼는 소리여 끝이 없도다 / 내 한스러움 길고 길어 그와 같구나'를 통해, 자신이 처한 한스러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A]와 <보기> 모두 자신이 이르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에 대해 노래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A]에서는 '아아! 함께 창업을 도모할 수 없는 썩은 유생들 구라 탓하라'에서 반성적 인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기>에서는 화자의 반성적 인식이 드러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2~34] 문학 - 고전 시가

(가) 작자 미상, 「영산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십이 잡가의 하나로, 인생은 덧없으므로 살아 있을 때 마음껏 놀아 보자고 권유하고 있다. 후렴구 없이 인생무상과 삶의 유희를 노래하는 비교적 일관된 내용을 지닌 작품이다. 한자어나 고사의 활용 같은 당대 양반층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시조를 인용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인생무상의 토로와 삶의 유희에 대한 권유

구성

- 1~11행: 봄날의 경치에서 느끼는 흥취
- 12~24행: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

(나) 김창업, 「벼슬을 저마다 헛면 ~」

해제 이 작품은 명문가의 후손이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전원 속에서 풍류를 즐기던 김창업의 평시조이다. 초장에서는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말로 출세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사람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 방식대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주제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추구

구성

- 초장: 모든 사람이 벼슬을 할 수는 없음.
- 중장: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음.
- 종장: 풍류를 즐기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음.

(다) 작자 미상, 「술 먹고 빚둑 뷔척 ~」

해제 이 작품은 금주를 맹세한 화자가 놀기 좋은 시절을 맞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자,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며 맹세를 어기고 유희를 즐기려는 태도를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술을 먹지 말자고 맹세한 화자가 핑계를 대며 자신이 했던 맹세를 가소롭다고 말하는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주제 술을 마시며 유희를 즐기는 삶의 추구

구성

- 초장: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걷다가 금주를 맹세함.
- 중장: 남린 북촌 사람들과 어울려 즐길 적에 금주의 맹세를 어김.
- 종장: 덧없는 인생이므로 유희를 즐기며 살아가려 함.

하여 인생에 대한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음의 방식은 화자의 심리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영산홍록', '황봉백접', '붉은 꽃 푸른 잎' 등과 같은 색채어를 활용하여 봄날의 풍경을 언급하며 화자가 느끼는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의 종장에서 화자는 '아희'를 부르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아희'가 잔에 술을 가득 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③ (다)는 중장에서 '어허'라는 감탄사와 '-로다'라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초로인생', (다)는 '일장춘몽'이라는 한자어를 활용하여 삶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의 '산 절로 수 절로 하니 산수 간에 나도 나도 절로'는 화자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덧없는 인생을 빚댄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의 '희호동락 흐을 머테'는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함께 즐기는 상황이지, 화자가 유희를 즐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만장폭포'는 화자가 자연에서 즐기는 공간이다. '여산'은 중국의 명승지로,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즐기고 있는 자연을 여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산이 여기로다'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나)의 '의원이 병 고치면 북망산이 저려하라'는 의원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없으므로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무덤에 묻힌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천만 년 살았더니'는 진시황과 관련한 중국의 고사이다. 이 구절은 사대부 가사의 영향을 받아 상류층의 언어 관습을 따른 표현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의 '술 먹고 빚둑 뷔척 뷔거러 가며'는 화자가 술을 먹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일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어지는 (술을) 먹지 말자고 크게 맹세한 내용과 연결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내 뜻대로 흐리라'는 화자가 덧없는 인생 속에서 출세에 뜻을 두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술을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의 '먹고 놀여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는 '뗏뗏이나', (나)는 '저려하라' 같은 묻는 방식을 활용

호노라도 인생은 덧없는 것이므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㉓는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지만 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대상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존재이지, 화자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존재로 볼 수 없다. ㉔는 화자가 좋은 시절을 맞이하여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함께 즐기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는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존재이지, 화자가 재회를 바라는 존재는 아니다.
 ③ ㉓는 화자가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대상이므로 장점을 인정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부러워하는 존재로 볼 수는 없다. ㉔는 화자가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대상이지 화자가 장점을 인정하며 부러워하는 존재는 아니다.
 ④ ㉔는 화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㉓는 유흥성을 상징하는 대상일 뿐, 인생무상과 관련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는 아니다.
 ⑤ ㉓와 화자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대상이므로 동일시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㉔는 화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는 아니다.

[35~39] 언어

3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신라[실라]’에서는 앞에 있는 ‘ㄴ’이 뒤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는데, 동화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 ‘ㄴ’이 영향을 주는 ‘ㄹ’과 동일한 ‘ㄹ’로 바뀌었으므로 완전 동화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국물[궁물]’에서는 앞에 있는 ‘ㄱ’이 뒤에 있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는데, 동화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 ‘ㄱ’이 영향을 주는 ‘ㅁ’과 다른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부분 동화이다.
 ② ‘엮는[엄는]’에서는 앞에 있는 ‘ㅂ’이 뒤에 있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는데, 동화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 ‘ㅂ’이 영향을 주는 ‘ㄴ’과 다른 ‘ㅁ’으로 바뀌었으므로 부분 동화이다.
 ③ ‘낫말[난말]’에서는 ‘ㅈ’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ㄷ’으로 된 다음, ‘ㄷ’이 뒤에 있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는데, 동화의 결과로 영향을 받는 ‘ㄷ’이 영향을 주는 ‘ㅁ’과 다른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부분 동화이다.
 ⑤ ‘칼날[칼랄]’에서는 뒤에 있는 ‘ㄴ’이 앞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두 음운이 ‘ㄹ’로 같아졌으므로 완전 동화가 일어났지만, 앞엿것의 영향을 받아 뒤엿것이 바뀌었으므로 순행 동화이다.

36 한글의 창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므로 기본자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서술과 일치한다. ‘ㅋ’은 예사소리인 ‘ㄱ’과 달리 거센소리이기 는 하지만, 연구개음이라는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 따라서 글자 모양을 유사하게 만들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ㅏ’와 ‘ㅑ’이 획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소리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은 ‘ㅏ’와 ‘ㅑ’이 이체자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에 들어갈 수 없다. ‘ㄴ’에 한 획을 더한 ‘ㄷ’은 글자 모양이 유사한데, 이는 같은 발음 위치임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수 있다.
 ③ ‘ㅣ’의 오른쪽에 ‘·’를 더해 ‘ㅊ’를 만든 것은 상형의 원리와는 무관하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ㅡ’가 땅의 평평한 모양을

상형한 것이라는 진술은 ㉠이 아니라 ㉡에 들어가야 한다.

- ④ ‘ㅅ’이 이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라는 진술은 ㉡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종성에 원칙적으로 8가지 글자만을 사용했다는 진술은 같은 성질을 가진 글자는 글자 모양을 유사하게 만든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종성을 위해서는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썼다는 진술은 상형의 원리와는 무관하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ㅅ’과 ‘ㅈ’을 나란히 써서 ‘ㅆ’을 만들었다는 진술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진 글자는 글자 모양을 유사하게 만든 것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에 들어갈 수 없다.

37 품사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4문단을 통해, ‘아니-’는 형용사 어간이므로 어미가 직접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에 ‘-에요’가 결합하면 ‘아니에요’가 된다. 따라서 ‘아니에요’의 종결 어미 ‘-에요’가 ‘-에요’에서 줄어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을 통해, 체언과 ‘이다’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미이다’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1, 2문단을 통해, ‘이다’는 조사의 특성과 용언의 특성을 모두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다’는 조사와 용언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2문단을 통해, ‘이다’는 다른 말과 결합하여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인’ 등과 같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때 ‘학생이다’의 ‘-다’는 다른 용언과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다’의 ‘-다’는 ‘먹다’의 ‘-다’처럼 종결 어미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3문단을 통해, ‘아니다’는 형용사로 ‘아니다’, ‘아니고’, ‘아니니’ 등과 같이 활용을 하는데, ‘아니-’는 변하지 않으므로 어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니다’의 활용을 고려하면 ‘아니다’의 어간이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38 품사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가 ‘호랑이’와 결합하여 ‘호랑이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종결 어미 ‘-에요’가 결합하면 ‘호랑이이에요’가 된다. 이를 줄이면 ‘호랑이예요’가 된다. 따라

서 ‘호랑이예요’가 올바른 표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예요’는 ‘이에요’를 줄인 말이므로 ‘*꽃이에요’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가 두 번 나오는 셈이다. 따라서 ‘*꽃이에요’는 ‘*꽃이이에요’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모음으로 끝난 명사의 경우, ‘장미이에요’는 ‘장미예요’처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장미예요’의 ‘예’는 ‘이’가 줄어든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책이에요’는 ‘*책예요’로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예’로 줄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장미이었다’보다 ‘장미였다’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장미이에요’보다 ‘장미예요’가 자연스럽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이에’는 ‘예’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9 높임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화자인 ‘할머니’가 청자인 ‘손자’를 고려하여 자신의 아들인 ‘아빠’를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높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청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이는 예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인 ‘아들’이 청자인 ‘엄마’와 관계없이 높여야 할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청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이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화자인 ‘누나’가 청자인 ‘동생’과 관계없이 높여야 할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청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이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화자인 ‘손자’가 높여야 할 대상인 ‘아버지’를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하여 높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청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이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자 입장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을 청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해 높이지 않는 예에 해당한다.
- ⑤ 화자인 ‘교사’가 청자인 ‘유치원생’이 다수임을 고려하여 청자를 높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 입장에서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청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높이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40 매체의 생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진행자의 첫 번째 발화를 통해 해당 방송이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행자의 마지막 발화를 통해 다음 방송의 출연자와 방송 내용, 그리고 참여 독려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방송을 안내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방송에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개인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진행자가 지난 방송의 인기를 실감했던 경험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 진행자가 언급한 의류 매장 방문의 경험은 방송의 주요 소재인 복고풍 패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며, 이전 방송의 인기를 실감한 개인적 경험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 ② 실시간으로 진행되므로 중간에 접속한 경우 앞의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방송을 마무리할 때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개인 방송의 경우 고정 시청자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댓글을 소개할 때 이전 댓글의 내용을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⑤ 개인 방송이 시청자의 흥미를 유지해야 하는 매체인 것은 맞지만, 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접속자가 찾아볼 수 있게 누리집의 주소를 소개하여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41 뉴미디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김□□가 소개한 뉴트로의 사례 중 곱창 밴드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설명 대상 중 일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김□□는 뉴트로의 사례로 곱창 밴드를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 내용의 오류를 인지하고 그중 일부를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진행자가 제시한 레트로라는 용어가 맞는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김□□에게 어떤 말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유도한 뒤 뉴트로가 더 적합한 용어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② ㉢은 진행자가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다. 진행자는 이 경험을 활용하여 뉴트로가 요즘 유행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를 추가하고 있다.

- ③ ㉣은 뉴트로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의문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진행자는 김□□에게 사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 ⑤ ㉤은 소개된 뉴트로의 사례처럼 예전의 유행이 다시 유행하게 되는 이유를 묻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주요 대화 내용이 뉴트로의 사례에서 뉴트로가 나타나는 이유로 바뀌게 되며, 진행자가 그 이유를 김□□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에서는 레트로와 뉴트로를 설명하면서 모두 과거의 것을 재현하거나 재해석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B]에서는 소위 세기말 패션이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모두 과거의 것이 현재의 상황과 관련성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특정 현상이 현재로 진행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레트로와 뉴트로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C]에서는 대상 간 비교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B]에서는 최근 유행이 소위 세기말 패션이라는 과거의 유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C]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특정 시기와 연결하지는 않았다.
- ③ [C]에서는 뉴트로 유행의 원인에 대한 생각이 전문가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A]에서는 자신의 답변 내용이 갖는 한계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⑤ [B]와 [C]는 모두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B]에서는 뉴트로의 사례들을, [C]에서는 바지의 사례를 사용하고 있다.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소위’는 ‘이른바’와 유의어로서 ‘세상에서 말하는 바’라는 뜻이다. 따라서 ‘세기말 패션’이라는 용어가 발화자 자신에 의해 처음 쓰이게 된 것임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르 것 같다’는 추측 표현인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표현을 약화하여 청자에게 부드럽게 들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② 보조 동사 ‘주다’는 주로 어떤 행위가 다른 대상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 방송에서는 시청자를 위한 것임을 나타냈다.

- ③ 보조사 ‘만’은 다른 대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다른 대상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므로 ‘저만’은 자신의 지식과 견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아닐까요’로 끝나는 의문문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데에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44~45] 매체

44 매체 언어의 정보 구성 및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블로그 글의 하단에는 블로그의 동일 카테고리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매체 수용자는 블로그에 누적된 다른 정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누적된 글의 작성 일자가 각기 상이한 점으로 볼 때 비슷한 시기에 누적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들이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도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블로그 글의 제목 아래에는 작성자와 함께 작성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매체 수용자들은 블로그 글을 보는 시점에서 글의 작성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블로그 글에서 일부 내용은 글씨의 크기와 진하기가 다른 내용과 다르며, 이 내용은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매체의 생산자가 중요하게 생각해 강조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③ 블로그 글의 하단에는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과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매체 수용자들은 매체 생산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 ⑤ 블로그 글의 하단에 ‘#’ 기호와 함께 제시된 내용은 전체 글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해시태그이다. 이를 통해 해당 블로그 글의 중요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5 시각 매체의 활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그림 1]은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핵심적 정보를 담은 시각 매체로, 한 남성의 디저트를 보기 전과 후의 위 모습을 비교한 것이다. 블로그에서는 이 시각 매체를 바탕으로 소위 ‘디저트 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는 블로그에서 언급한 ‘가짜 식욕’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되지 않은 정보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시각 매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그림 1]이 아닌 [그림 2]이다.
- ② [그림 1]과 [그림 2]의 출처는 ‘의학 상식 ○○’로 동일하며 모두 정보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2]가 [그림 1]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③ [그림 1]은 문자로 제시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 시각 매체이지만, [그림 2]는 문자로 제시된 정보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정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그림 1]은 위의 변화 전후 모습을 나란히 배치하여 두 정보 간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며, [그림 2]도 가짜 배고픔과 진짜 배고픔을 상하로 배치하여 두 정보 간의 차이를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들 간의 유사한 특성을 부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특강 Light

수능 영어 대비를 Light 하게!
수능특강을 풀기 전
가볍고 부담 없이 시작하자

01 ②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③
11 ②	12 ⑤	13 ④	14 ④	15 ④
16 ④	17 ⑤	18 ②	19 ②	20 ④
21 ⑤	22 ①	23 ③	24 ⑤	25 ⑤
26 ⑤	27 ③	28 ⑤	29 ⑤	30 ③
31 ②	32 ④	33 ④	34 ④	35 ⑤
36 ①	37 ④	38 ③	39 ④	40 ④
41 ③	42 ③	43 ⑤	44 ②	45 ③

[01~03] 독서 - 독서 이론

독서 과정의 모형

해제 이 글은 독서 과정의 세 가지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작은 언어 단위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큰 언어 단위의 이해로 확대하면서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본다.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 상호 작용식 모형은 텍스트의 직선적인 해독을 중시하는 상향식 모형과 독자의 배경지식을 통한 가정과 추측을 중시하는 하향식 모형의 절충적 관점이다.

주제 독서 과정의 세 가지 모형의 특징과 한계

구성

- 1문단: 독서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
- 2문단: 상향식 모형의 특징과 한계
- 3문단: 하향식 모형의 특징과 한계
- 4문단: 상향식, 하향식, 상호 작용식 모형의 관계
- 5문단: 상호 작용식 모형의 특징과 한계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4문단에서 상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텍스트 해독을 하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상향식 모형은 텍스트 해독을 중시하고, 하향식 모형에서는 독서를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가정이나 추측에서 비롯되는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본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하향식 모형에서 중시하는 배경지식을 통한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상향식 모형에서도 독서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하향식 모형에서는 텍스트의 구조나 내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가진 독자는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고 하였다.

- ⑤ 5문단에서 상호 작용식 모형에서는 다양한 독서 기능이 동시에 상호 작용하며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02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㉓는 단어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이 단어의 인식과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하향식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독서를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의 해석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보는 상향식 모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㉓는 독자가 가진 배경지식이 텍스트의 정보를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라, 독자의 배경지식이 단어 인식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③ ㉔는 단어를 주어진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니라, 독자의 배경지식이 단어 지각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④ ㉕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모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이다.
- ⑤ ㉖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의 글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단순히 해독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을 기억하기 힘들다. 하지만 ‘세탁기 사용에 대한 글’이라는 제목을 미리 알고 읽으면 쉽게 글을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즉 세탁기 사용이라는 독자의 배경지식이 텍스트와 연결되면 텍스트를 쉽게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글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보기>의 글은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이 텍스트의 내용 추측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 ③ <보기>의 글은 독자의 배경지식이 텍스트와 연결되면 텍스트

를 쉽게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 ⑤ <보기>의 글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며 순서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04~09] 독서 - 주제 통합(사회·문화)

(가) 시장 실패의 원인인 외부 효과

해제 이 글은 시장 실패의 원인인 외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부 간섭 없이 민간의 의사 결정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 시장 실패이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이다.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 효과를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이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주제 외부 효과의 종류와 해결 방법

구성

- 1문단: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의 개념과 관계
- 2문단: 외부 효과의 종류
- 3문단: 외부 효과를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
- 4문단: 코즈의 정리

(나)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 실패

해제 이 글은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 실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공공재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고,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이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어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길 경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되지 않아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주제 공공재의 특징과 시장 실패와의 연관성

구성

- 1문단: 공공재의 개념과 문제점
- 2문단: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

- 3문단: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재화 및 서비스
- 4문단: 공공재의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실패

0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인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인 외부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나)는 특정한 경제 개념인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에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나 경제 개념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사례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④ (가)는 특정한 경제 현상인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외부 효과라는 경제 현상이 존재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많지 않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경제 이론인 코즈의 정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한 경제 현상인 시장 실패를 언급하고 있지만, 시장 실패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5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1문단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가)의 3문단에서 ㉠을 발생시키는 생산 주체에게 사회가 받은 혜택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어 해당 생산을 사회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에서 정부의 세금 부과로 ㉠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을 통해 ㉠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였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의 2문단에서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 ㉡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제삼자에게 끼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

불하지 않는 것을 ㉠이라고 하였고,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제삼자에게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이라고 하였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고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고 있어도 ㉠과 ㉡이 존재할 수 있다.

06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A]에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할 때 코즈의 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병의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정의 가족이 질병에 걸린 것이 밝혀진다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진 것이므로, 코즈의 정리에 따라 개인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A]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나 협상을 하여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개인 간에도 충분히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A]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많거나 이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할 때, 코즈의 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④ [A]에서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코즈의 정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거래나 협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래 비용이 매우 크다면 국가의 개입 없이 개인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의 1문단에서 D에 해당하는 공공재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즉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 국가의 영주권이 없더라도 그 국가의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특정한 소유의 주택은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

불하고 거주하므로 배제성이 있으며,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면 다른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경합성도 있다. 따라서 A에 해당한다.

- ②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서비스는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배제성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경합성이 없다. 따라서 B에 해당한다.
- ③ (나)의 4문단에서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였다.
- ⑤ (나)의 4문단에서 D에 해당하는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08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시간에 따라 어떤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일반 도로는 시간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공유 자원과 동일할 수도 있고 공공재와 동일할 수도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산한 고속 도로는 통행 요금을 지불하므로 배제성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합성은 없다.
- ② 꽉 막힌 고속 도로는 통행 요금을 지불하므로 배제성이 있고, 어떤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게 되어 경합성도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사적 재화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출퇴근 시간의 일반 도로는 통행 요금이 없으므로 배제성이 없고, 어떤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게 되어 경합성이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유무가 공유 자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심야의 일반 도로는 통행 요금이 없으므로 배제성이 없으며, 어떤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합성도 없다.

09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은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이며 ①도 이러한 의미로 쓰였으므로, ①이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깝게 쓰인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의 의미이다.
- ③ ‘색깔이나 모양이 어떤 것에 어울린다.’의 의미이다.
- ④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의 의미이다.
- ⑤ ‘빛, 별, 열이나 바람 따위의 기운이 닿다.’의 의미이다.

[10~13] 독서 - 인문

행동주의 심리학의 강화와 벌

해제 이 글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개념인 강화와 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화는 보상을 통해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나눌 수 있다. 학습된 행동이 소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화 계획이 필요한데, 강화 계획은 지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간헐적 강화 계획은 고정 간격 계획, 변동 간격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비율 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벌은 특정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수여성 벌과 제거성 벌로 나눌 수 있다.

주제 행동주의 심리학의 강화와 벌의 특징과 종류

구성

- 1문단: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설명과 핵심 개념
- 2문단: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의 개념
- 3문단: 학습된 행동의 소거를 막기 위한 강화 계획
- 4문단: 강화 계획의 종류
- 5문단: 강화 계획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
- 6문단: 벌의 개념과 종류

10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강화, 소거, 강화 계획, 벌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강화 계획 중 간헐적 강화 계획은 보상이 제시되는 간격과 비율이라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이론의 원리를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행동주의 심리학을 적용한 사례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심리학을 적용한 사례와 비교하여 행동주의 심리학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인간의 내면 의식과 정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⑤ 행동주의 심리학이 등장한 배경이나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달 과정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1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은 특정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6문단에서 ㉡은 특정 행동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행동의 주체에게 긍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은 대상에게 특정 행동을 약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③ ㉠은 특정 행동을 한 주체에게 그가 바라지 않는 어떤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은 행동의 주체에게 긍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 ④ ㉠은 대상에게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것이며, ㉡은 대상이 이미 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⑤ ㉡이 특정한 행동을 점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대상이 강화를 언제 받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고정 간격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이며,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변동 간격 계획과 변동 비율 계획이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고정 간격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보다는 변동 간격 계획과 변동 비율 계획일 때 시간에 따른 누적 행동의 빈도가 더 일관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 간격 계획과 고정 비율 계획은 강화를 받은 직후 행동의 빈도가 줄어든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강화를 받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고정 간격 계획을 의미한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고정 간격 계획은 강화를 받은 직후에 행동의 빈도가 감소하였다가 다음 강화를 받을

때까지 점차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정해진 횟수의 행동 후에 보상을 제시하는 것은 고정 비율 계획을 의미한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고정 비율 계획은 보상을 제시한 직후에 행동의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대상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마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는 것은 변동 간격 계획을 의미한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변동 간격 계획은 기율이 일정하므로, 행동의 빈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강화를 받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변동 비율 계획을 의미한다. <보기>의 그래프에서 변동 비율 계획은 보상을 제시한 직후에도 꾸준히 행동이 나타난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4문단에서 일정하지 않은 행동 횟수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변동 비율 계획이라 하였다. 제과 회사에서 사람들이 구매한 과자에 있는 추첨권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정하지 않은 과자 구매 행동 횟수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변동 비율 계획을 사용한 것이다. 과자의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지지만, 정해진 구매 횟수마다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첨 번호를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올리더라도 매주 항상 추첨이 되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고정 간격 계획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이가 도서관을 싫어한다면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이에게 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문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고정 비율 계획은 정해진 횟수의 행동이 일어날 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고객이 후기 열 개를 작성할 때마다 인터넷 쇼핑물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고정 비율 계획을 사용한 것이다.
- ③ 6문단에서 수여성 별은 행동의 주체에게 부정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학생이 독서를 싫어한다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소란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교사가 학생에게 독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수여성 별에 해당한다.
- ⑤ 3문단에서 강화에 의해 특정 행동이 학습되었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학습된 행동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소거라고 하였다. 아이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부모의 관심으로 인해 강화되었다면,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의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점차 소거될 것이다.

[14~17] 독서 - 과학

바이러스의 침투 및 증식과 그로 인한 질병

해제 이 글은 바이러스의 침투 및 증식과 그로 인한 질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유사하다.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기 위해 살아 있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한다. 여러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지만, 모든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한 후 유전자를 복제하여 증식하기 시작한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에 침투해 증식하면 숙주에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단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주제 바이러스의 침투 및 증식과 그로 인한 질병

구성

- 1문단: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통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 2문단: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 과정
- 3문단: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 4문단: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한 질병 발생
- 5문단: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양상

14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문단에서 중심 원리의 흐름에 따르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RNA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것은 중심 원리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동물과 식물, 세균은 생명체라고 하였고,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에 기생한다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을 제공하여 숙주에게 질병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③ 5문단에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단백질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질 이중막을 가지고 있지만 HIV 바이러스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15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문단에서 바이러스 중 일부는 일반적인 생명체와 달리 ㉠이 아닌 ㉡을 유전 물질로 가진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즉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로 ㉠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또한 존재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는 숙주의 세포 안에서 ㉠이나 ㉡과 같은 유전 물질을 많이 복제한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생명체는 ㉠의 유전 정보를 전달받은 ㉡의 유전 정보에 따라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을 mRNA라고 한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지만, 3문단에서 ㉡으로부터 ㉠을 만드는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였다.

16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문단에서 리보솜은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없어 증식을 위해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한다고 하였음을 볼 때 [A]를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에 있는 리보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숙주의 세포가 점점 죽어 간다고 하였음을 볼 때 [B]를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음을 볼 때 [A]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에 있는 리보솜을 바이러스의 증식에 이용한다고 하였지만 숙주의 세포가 바이러스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B]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에 있는 리보솜을 바이러스의 증식에 이용한다고 하였지만 숙주의 세포를 바이러스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A]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바이러스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으므로

[A]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4문단에서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 안의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해 간세포가 죽어 간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반응이 통제를 벗어나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어 너무 많은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인체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② <보기>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인체의 면역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은 인체의 면역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다.
 ③ 4문단에서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에 침투하여 숙주의 세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지질 이중막을 가진 바이러스와 지질 이중막을 가지지 않은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21] 문학 - 현대시

(가)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해제 이 작품은 현대 사회가 가져온 산업화된 도시 문명과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삶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 내는 일종의 정화 의식을 치르기 위해 강에 오지만, 강 역시 고통받는 사람들처럼 썩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희망 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통해 산업화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주제 가난하고 무력한 노동자의 비애와 삶

구성

• 1~4행: 강물에 슬픔을 씻고 싶어 함.

- 5~8행: 강을 보면서 깊어지는 무기력함
- 9~12행: 힘든 삶을 돌아보며 달을 바라봄.
- 13~16행: 희망 없는 고단한 일상을 수용함.

(나)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해제 이 작품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인 '면면함'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고통받는 느티나무가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시련과 고통을 견뎌 내며 다시 푸르름을 빛내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힘든 삶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다.

주제 느티나무에게서 배우는 면면한 삶의 태도

구성

- 1연: 동구 밖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 2연: 겨울을 견뎌 낸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 3연: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들의 슬픔
- 4연: 시련을 이겨 내고 봄을 맞은 느티나무
- 5연: 어려운 현실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18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나)의 '푸르른 울음'은 소리(청각)를 보이는 것(시각)처럼 표현한 감각의 전이가 나타난 공감각적 표현이며 이를 통해 2연에서는 느티나무가 겪는 고통을, 4연에서는 생명력이 만발한 나무의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물뿐이라'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지만 이는 '물'과 '우리'의 유사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지,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 ③ (나)의 1연과 3연에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④ (나)는 '둥둥둥둥'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너 들어 보았니'와 같은 의문형 문장은 사용되었지만, 명령형 문장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19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연에서는 '느티나무'가 '삭풍'이 치는 계절에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는 모습과 '온몸'에 '상처'를 입은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느티나무'에 대해 화자가

애잔함과 동질감을 표현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연과 3연에서는 '너 들어 보았니'라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연을 시작하여 친근감을 줌과 동시에 '너'라는 청자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2연에서 '느티나무'가 내뿜는 '울음소리'를 3연에서는 사람들이 '흐느끼던 소리'라는 사람들의 울음을 제시하고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와 이를 또다시 관련지음으로써 '느티나무'와 '사람들'이 모두 고통받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오늘은'이라고 시상을 시작하여 과거의 상황을 담은 1~3연에 나타난 '느티나무'의 모습과 다른 '초록의 광휘'를 '생생히 내뿜는' 모습을 보여 주며 고통받던 '느티나무'에서 생명을 주는 희망의 '느티나무'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존재였기에 희망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암시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0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처럼 화자가 삶을 이어 가기 위한 노동의 수단이며, ㉡은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행위와 연결되는 것으로 농촌에 남아 삶을 이어 가기 위한 노력과 연결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노동의 고됨과 슬픔이 담겨 있는 소재이며, 화자가 그러한 삶에 순응하며 돌아간다는 점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은 노동으로 인한 힘겨운 삶을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에 대한 비애를 표현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은 농사와 관련된 행위이지만 그것이 노동으로 인한 삶의 힘겨움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을 '강'에 씻는 행위는 '삽'에 담긴 '슬픔'을 씻어 내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은 씻어 내려 하지만 결국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순응적 태도로 연결되고, ㉡은 생계와 관련된 행위로 저항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2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의 ‘푸르른 울음’을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는 것은 겨울의 삭풍 속에서 고통받던 나무가 봄을 맞이하며 생명력을 회복하는 모습에 대해 노래한 것으로, 이농 현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촌 사회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농촌을 떠난 이들이 ‘마을’에 가져온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적인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흐르는 것이 물’만이 아니라 사람들, 즉 ‘우리’도 ‘저와 같’이 소외된 노동자로 살아가는 ‘슬픔’을 씻어 보낸다고 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나타난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된 자연물에 대한 동질감’을 드러낸다고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씻장’의 물이 씻은 것을 드러낸 것은 <보기>에서 ‘산업화’가 가져온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이며,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하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은 희망도 없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이 환경 오염의 문제와 도시 노동자의 모습을 작품 속에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③ (나)는 이농 현상으로 인해 붕괴된 농촌 사회의 고통을 담은 작품으로 ‘느티나무’가 ‘상처투성이’인 모습과 함께 ‘울음소리’를 내는 모습이 드러난다. <보기>에서는 ‘인간을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서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나무’라는 마을의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보기>에서는 ‘경제의 중심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하면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이농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에 남은 사람들은 공동체 붕괴로 인한 슬픔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은 농촌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며, ‘지킬 것’은 농촌 공동체로 볼 수 있으므로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2~27] 문학 - 현대 소설 + 시나리오

(가) 최일남, 「노새 두 마리」

해제 이 작품은 1975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서울 변두리 동네를 배경으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로 이동한 계층들이 겪는 소외감을 드러낸다.

주제 산업화가 진행되는 도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향민의 삶

전체 줄거리 서울에 올라오기 전 마부였던 아버지는 번듯한 주택들이 들어서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시기에, 가난한 판자촌에 살고 있으면서 늙은 노새가 끄는 마차로 연탄 배달을 한다. 아버지는 자신이 마부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나’가 연탄 배달 일을 하던 어느 날, 새 동네 오르막길을 오르던 연탄 마차가 턱에 걸리는 바람에 노새가 놀라 달아나는 일이 벌어진다. ‘나’와 아버지는 노새를 찾으러 다니다가 동물원에 들르게 된다. 다른 동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얼룩말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을 본 ‘나’는 아버지가 노새를 닮았다고 생각한다. 끝내 노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나’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노새가 여러 피해를 입혀 그 책임을 물으려고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이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아버지를 뒤따르며 ‘나’는 아버지가 또 한 마리의 노새 같다고 생각한다.

(나) 정윤철·송예진·윤진호, 「말아톤」

해제 이 작품은 2005년 개봉한 영화 「말아톤」의 시나리오이다. 자폐를 가진 ‘초원’이라는 인물이 마라톤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주제 자폐아의 장애 극복 의지와 극복 과정

전체 줄거리 자폐성 장애를 가진 초원은 5세 어린아이의 지적 수준을 보이는 스무 살 청년이다. 그런 초원은 달리기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을 가지고 있다. 초원의 엄마 경숙은 아들의 능력을 살려 마라톤 ‘서브스리 달성’을 목표로 초원을 훈련시킨다. 전직 유명 마라토너였던 정욱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초원의 학교로 오게 되자, 경숙은 정욱에게 초원의 코치 역할을 맡긴다. 정욱은 초원의 상태를 보고 마라톤을 가르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운동장 100바퀴를 뛰는 초원의 능력을 보고는 초원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초원이 달리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초원과 정욱 사이에 친밀감이 생긴다. 한편 정욱의 불성실한 훈련 태도에 실망한 경숙은 정욱과 심한 갈등을 겪는다. 경숙은 정욱에게 코치 역할을 중단하게 하고, 정욱은 경숙에게 자식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에 경숙은 초원이 마라톤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결심한다. 예정된 마라톤 대회 당일 초원은 아무도 모르게 경기장을 향해 달아난다.

경기장으로 달려간 경숙은 초원을 말리지만, 초원은 경기에 나갈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 경숙은 초조하게 경기 종료를 기다리고, 정욱과 초원 동생이 초원을 응원하는 가운데 초원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마라톤 완주에 성공한다.

2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 마차를 끌었다. 어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 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 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골에서 말 마차를 끌기도 했던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온 후 노새를 몰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 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짹— 짹—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체하고 달렸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새가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들이 놀란 것이지 노새가 차들에 놀라 길 복판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다.
- ③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 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웅, 웅,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가에서 사람들은 눈앞으로 노새가 뛰어오자 달아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세 명이 이놈의 노새,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젓 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경비원들이다.
- ⑤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빠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와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새를 찾아다니던 ‘나’에게 사람들은 말을 걸지 않았으며,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나’가 동물원에 간 소회를 밝힌 것이다.

23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는 노새가 뛰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을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B]는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애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 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새를 찾아다니며 느낀 ‘나’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앓, 앓,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통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메 소리를 지르며 펍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통이가 데그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뭇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새의 행위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아무리 가도 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박깜박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B]에는 노새를 찾기 어려운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B]는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와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새를 찾는 인물들의 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A]는 노새의 행위와 이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제시할 뿐, 노새의 의식의 흐름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인화된 노새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는 노새로 인해 심화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B] 역시 ‘나’와 아버지 간의 외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S#66은 대사 없이 지시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⑥는 사람들 틈에 서서 달리는 말 자체를 구경하는 초원과 정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경마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그들 틈에 서 있는 두 인물이 말 자체를 구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인파가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 장면을 원경으로 나타내 두 인물이 관중과 구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⑥의 공간적 성격을 고려하면 경마장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질주하는 경주마들과 경마장 트랙이 함께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⑥의 아름답게 클로즈업된 말의 근육과 갈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클로즈업 효과가 나타나도록 화면에 말의 근육과 갈기의 움직임을 크게 나타내야 한다.
- ③ ③의 낮이 나간 얼굴로 달리는 말들을 쳐다보고 있는 초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굴 표정에서 '낮이 나간' 초원의 심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④ ④의 초원의 옆에서 낮이 나간 초원을 바라보고 있는 정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욱이 바라보는 대상이 초원임을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욱이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초원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2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 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에서 아버지에게서 말과 닮은 유사성을 발견한다. 또한 (나)의 '카메라가 우리 안쪽에서 초원을 잡는다. 초원도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듯 보인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초원과 동물들의 유사한 처지가 드러나는 곳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애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에서 '나'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노새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 정욱은 초원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 ② (나)의 '정욱, 생각보다 초원이 재미없어하는 게 이상하다는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에서 정욱은 초원의 표정에서 이상함을 느낄 뿐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③ (가)의 ㉠에 '나'가 노새에 대해 걱정을 숨기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나)의 '웬지 불안한 표정의 초원…… 정욱의 손을 숙 잡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초원은 ㉣에서 정욱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④ (가)의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엘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나'가 우연히 당도하게 된 곳의 의미를 지닐 뿐 '나'가 소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의 '기운 없고, 마치 자파아 같은 동물들을 보면서 표정이 더 이상해진다.'에서 알 수 있

듯이, ㉥은 초원이 자신을 우리 안의 동물들과 동일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원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음을 깨닫는 곳과는 관련이 없다.

26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복세를 떨고는 다시 한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 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새는 포획의 대상이지 포획된 것이 아니다. 또한 (나)에서 교장의 '그만큼이면 학교로선 충분히 도와드린 겁니다. 마라톤 완주를 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와 담임의 '마라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취미로 충분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초원이 마라톤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초원이 달리기로 인해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삼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들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 마차가 위험을 느낌 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나)의 '직업 교육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뇨, 똑같아요, 달릴 때만큼은…….'과 같은 경숙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숙은 학교 교장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가)의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마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의 '……내일도 또 오세요?'라는 초원의 말은 초원이 정욱에게 마라톤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음을 나타낸다.
- ③ (가)의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는 다른 동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얼룩말을 보고는 발을 멈춘다. 또한 (나)의 '낙오된 얼룩말들은 사자와 하이에나 밥이 된다~.'라는 초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얼룩말은 초원이 너무 빨리 뛰어 지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④ (가)의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에서

알 수 있듯이 ‘나’와 아버지는 노새의 행선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나)에서 초원은 ‘오래오래 뛰려면,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는 거야.’라는 정욱의 말이나 ‘이 아저씨만 따라가, 알았지? 혼자 빨리 뛰면 안 돼?’라는 경숙의 말에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의 S#65에서 ‘한강이 보이는 반환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두 사람.’과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자전거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온 두 사람. / 길옆 풀밭 위에 사지를 짝 뺀고 누운 정욱……’의 장면 사이에 제시되는 ‘시간의 경과’는 날씨의 변화와 공간의 이동을 나타낸다. 그런데 ‘빛속에서 내달리는 그들의 육체가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의 경과 전 정욱과 초원의 모습은 서로에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따라서 생략된 시간 전 심화되었던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뒤미처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와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다. 뒤미처 쫓아오는 순경과 백차의 다급한 분위기와 노새의 아랑곳없는 모습은 상반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독자가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반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독자가 상황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내 경우 동물원에 와 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와 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 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를 통해 과거의 기억과 대비되는 한적한 동물원에 대한 인물의 인상을 제시한다. <보기>의 과거와 현재의 대비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부각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동물원에 대한 인상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S#76에서 ‘5킬로미터 지점’에서 초원이 페이스메이커와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과 ‘결승점’에서 초원을 기다리는 경숙의 상황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보기>의 인물들은 서로 알 수 없는 동 시간대·다른 공

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일어난 일을 수용자가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초원과 경숙의 상황을 나란히 제시함으로써 초원과 경숙이 다른 공간에 있어 서로 알 수 없는 상황을 수용자가 종합적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S#76에서 ‘5킬로미터 지점’ 이후에 제시되는 ‘결승점’의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는 경숙’과 ‘30킬로미터 지점’ 이후에 제시되는 ‘결승점’의 ‘초조하게 초원을 기다리고 있는 경숙’에서 알 수 있듯이, 경숙의 모습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행위이다. <보기>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속되는 특정한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부각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이는 경숙의 심리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31] 문학 - 고전 소설

권필, 「주생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 권필이 지은 한문 소설로, 주인공 주생과 배도, 선화 간의 삼각관계를 둘러싼 애정담을 담은 작품이다. 삼각연애를 중심으로 남성의 이기적인 사유, 여성의 질투심을 그리고 있다. 특히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성 주인공의 심리, 애정담 속에 잠재된 인물들의 욕구 등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살다 간 권필 본인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삶의 비극적 과정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비현실적 요소는 없고 배경·사건·인물 등이 모두 현실감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인물들의 좌절과 슬픔을 표현한 서정시가 삽입되어 작품 전체적으로 애상적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주제 세 남녀의 사랑과 이별

전체 줄거리 주생은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계속 낙방하여 결국 장사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곳저곳을 유랑하다가 고향인 전당에 이르게 된다. 주생은 이곳에서 어릴 적 친구인 배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노 승상 댁에 간 주생은 노 승상의 딸 선화를 보고 호감을 느낀다. 그리고 선화의 남동생 국영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노 승상 댁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선화와 정을 통하게 된다. 주생과 선화의 사랑을 알아차린 배도는 실의에 빠져 괴로워한다. 그러던 중 선화의 동생 국영이 병이 들어 죽고, 얼마 후 배도 역시 병이 들어 죽는다. 실의에 빠진 주생은 정처 없이 방랑하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결혼하게 되는데, 선화와의 혼인을 앞둔 어느 날 왜적이 조선에 쳐들어와 주생은 출병을 하였고, 주생은 선화를 그리워하며 글을 짓는다.

28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선화는 푸른 비단에 쓰여 있는 배도의 시를 지우고 자신이 지은 시를 써 놓는데, 어느 날 배도가 이를 발견하고 이러한 행위가 선화가 벌인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화와 배도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배도가 주생에게 승상 댁에 무작정 머무르는 이유를 묻는 장면이나 배도가 숨을 거두는 장면 등에서 긴박한 분위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장면은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이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할 만한 초현실적인 사건 전개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창밖의 그림자 보이는 듯 사라지고, / 기울어진 달은 누각 위에 높이 떴네.’에서 공간적 배경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주생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화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지 주생과 선화의 사랑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주생은 각각 선화, 배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권위 있는 조력자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
- ④ 이 글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주생을 둘러싼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다.

2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배도는 주생과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있으므로, 주생과의 결연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려는 배도의 욕망이 좌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선화가 화장 거울을 깨뜨려 한쪽을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을 주생에게 준 것은 주생과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선화는 안정적인 가문의 규수였고 주생은 사대부이긴 했지만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화가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선화는 향낭 주머니를 풀어 본 후 화가 치밀고 질투심이 솟아 배도의 시를 까맣게 지우고 ‘안아미사’를 써 놓았는데, 선화는 이러한 사실을 주생에게 숨긴 채 원망스러운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고 또 주머니를 꺼 본 것도 말하지 않았다. 화가 치밀고 질투심이 솟았다는 것은 도리어 심리적 결핍이 있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선화가 원망스러운 얼굴을 하지 않고 향낭 주머니를 풀어 본 사실을 주생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주생과의 사랑을 통해 이미 심리적 결핍을 충족했기 때문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배도의 질문에 주생이 국영의 공부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배도는 ‘처의 동생을 가르치는 것이니 불가분한 마음을 다해야겠지요.’라고 말하는데 배도의 이러한 말에는 주생을 비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주생의 심리적 결핍이 국영의 가문에서 해소되는 것은 주생이 선화와 사랑에 빠지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상황은 배도가 기대하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
- ④ 주생이 승상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에 머무른 것은 주생과의 맹세를 지키지 않겠다는 배도의 말에 주생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상황이다. 또한 배도는 선화와의 관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다시는 주생을 선랑이라 부르지 않고 마음속에 불평이 끓어올랐으므로, 주생이 승상 부인에게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에 머무른 것이 주생에 대한 배도의 불안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3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A]에서 선화는 주생과 연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B]에서는 ‘그들에만 의지하여 살아오다가 아름다운 청춘이 다 가기도 전에 시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배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으며, ‘내 죽은 뒤 시신은 낭군님이 왕래하시는 길가에 묻어 주신다면’과 같이 자신이 죽은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생에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선화가 주생에게 절단지기를 어겼다고 말하는 부분을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화가 주생을 용서하려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B]는 배도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생과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생에게 미안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② [A]에서 선화가 주생과 사랑을 나눴던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과거 행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선화가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배도가 자신이 죽은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곤란할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생을 질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에서 선화가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나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서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이 근심을 하게 된 원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주생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배도가 '저는 봉비하체로서 그늘에만 의지하여 살아 오다가 아름다운 청춘이 다 가기도 전에 시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이 처한 고된 현실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생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A]에서 선화가 주생과의 인연을 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선화가 겪는 시련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에서 배도가 주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도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31 작중 상황의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대나무 소리는 누각 위에 뜬 '기울어진 달', 집 안에 가득한 '오동나무 그림자'와 더불어 주생이 배도의 집으로 가 버린 상황이나 그러한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선화의 심리를 연상하게 한다. 주생은 선화와 사랑을 나누다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배도의 집으로 간 것이므로, 주생이 선화를 오해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오동나무 그림자'가 선화에 대한 주생의 오해를 유발한 장애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생이 배도에게 가 버린 상황을 감안할 때 '창밖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다가 사라지는 것은 주생이 곁에 없는 선화의 상황이 연상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선화가 주생의 향낭 주머니를 풀어 본 후 배도의 시를 지우고 '안아미사'를 쓴 것을 감안할 때, '방탕한 임'은 주생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멀리 있는 정은 답답도' 하다고 한 것은 자신과의 사랑에 전념하지 않고 배도에게 가 버린 주생으로 인해 고뇌하는 선화의 모습이 연상된다.
- ⑤ '시간을 헤며 앉아 기다리'는 것은 주생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생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독수공방하고 있는 선화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32~34] 문학 - 고전 시가

신계영, 「전원사시가」

해제 이 작품은 총 10수의 연시조로, <제1수>부터 <제8수>까지는 춘하추동의 사시(四時)를 노래하는 부분이고, <제9수>와 <제10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제석(除夕)의 감회를 노래하는 부분이다. 사시를 노래하는 부분에서는 사계절의 순서에 따라 눈이 녹고 매화가 지는 봄을 맞이하는 모습, 녹음이 우거진 한적한 여름날의 모습, 가을의 흥취를 드러내는 모습, 눈이 내리는 겨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원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한 후 제석을 노래하는 부분에서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전원에서의 유유자적한 삶과 늙음에 대한 탄식
구성

- 제1수: 잔설이 녹는 봄의 정취
- 제3수: 녹음이 깊어 가는 한가로운 여름날의 정경
- 제6수: 가을에 느끼는 흥취
- 제8수: 겨울에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 제9, 10수: 세월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

3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 글의 <제1수>부터 <제8수>까지가 사시가에 해당하고, <제9수>와 <제10수>는 제석에 해당한다. <제8수>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여기서 계절감과 관련된 소재는 자연 현상인 '서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9수>에서는 '서리'와 관련된 다양한 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9수> 종장의 '백발'을 계절감과 관련된 관습적 소재로 본다면 시각적 이미지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1수>의 '채전', <제6수>의 '자채' 등이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 ② <제9수>의 종장에 화자의 외모 변화가, <제10수>의 종장에 화자가 현재 느끼는 심리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를 '아히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제1수>는 봄, <제3수>는 여름, <제6수>는 가을, <제8수>는 겨울을 다룬 것으로 계절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제9수>와 <제10수>는 설달그믐날 밤(제석)에 새해를 떠올리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제1수>, <제3수>, <제6수>, <제8수>의 종장 첫 구절은 '아히야'라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고, <제9수>와 <제10수>의 초장은 '이바 아히들아 ~ 마라'의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3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울타리를 잘 고치고 채전을 가는 것, 자해나 황계로 안주를 장만하는 것 등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는 화자가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날이 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여 깨우치는 대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화자가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은 아니다. ㉡는 화자가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날이 샌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지난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화자와 비교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화자를 위해 화자가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는 늙은 화자의 안타까움을 자극하는 대상이지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화자가 ㉠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며, ㉡의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 ⑤ ㉠은 화자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를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를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3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어제 소여물을 꿰민 구들이 오늘 아침에야 겨우 따뜻하다는 것으로, 점차 날씨가 풀리고 있는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에 어제와 오늘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내용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매화가 지고 버드나무 가지의 잎이 누렇게 변화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녹음이 깊어 가는 여름날 낮에 조용한 마을에서 즐기고 있던 화자가 '계면도' 노래를 들으려 하는 상황은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로 볼 수 있다.
- ③ '자체'로 술을 빚은 것은 농촌 생활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흐마 아니 니것느냐'라는 의문의 방식으로 자신이 느끼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⑤ 화자는 '헨스훈(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이라는 나이와 모습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늙은 화자가 덧없는 세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39] 언어

35 국어 음절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만약 '방울'에서 'ㅇ'이 연음된다면 둘째 소리 음절의 초성이 된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모든 음절의 초성에서 'ㅇ' 발음이 나타날 수 없다고 했으므로, 'ㅇ'은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소리 음절 유형 12가지 중 일부는 글자 음절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글자 음절이 소리 음절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 ② '복어'는 소리 음절로 '부거'이므로 초성은 'ㅂ'과 'ㄱ'이다. 그러나 초성 게임에서는 'ㅂ'과 'ㅇ'이 초성이다.
- ③ 초성과 종성에는 자음이 하나밖에 올 수 없고 중성에는 모음과 반모음이 올 수 있으므로, 국어에서 1개의 소리 음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절 음운의 수는 최대 4개이다.
- ④ 영어에서는 음절 초에 하나의 자음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음 's', 'p', 'r'가 연달아 나올 수 있지만, 국어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초성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s', 'p', 'r'의 음절을 분리하여 3음절인 '스프링'으로 말하게 된다.

36 국어 음절의 유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은 '모음+자음' 유형의 음절이다. 거기에 ㉡의 특성을 더해 모음 앞에 반모음이 오면, '반모음+모음+자음'의 음절 유형이 된다. '약'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병고'의 '병'은 '자음+반모음+모음+자음' 유형이다.
- ③ '여비'의 '여'는 '반모음+모음' 유형이다.
- ④ '과제'의 '과'는 '자음+반모음+모음' 유형이다.
- ⑤ '권한'의 '권'은 '자음+반모음+모음+자음' 유형이다.

37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서술절 '인형이 많다'를 안고 있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진희의 언니는'이다.
- ㉡: '(술이이) 바스락거린다고'를 간접 인용절로 안고 있는 인

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가랑잎이’이다.

- ㉠: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홀문장이다.
- ㉡: ‘서울에는 눈이 왔지만’과 ‘부산에는 비가 왔다’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홀문장이다.

38 담화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 ‘저기’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감탄사로, 말을 바로 꺼내기 거부할 때 쓰는 독립어이다. 따라서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이번’은 담화 문맥상 ‘민성’이 말하고 있는 시간이 속한 주를 나타낸다. 따라서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 ‘여기’는 화자에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따라서 발화 과정에서 휴대 전화 화면을 통해 소개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 ‘우리’는 화자 ‘민성’과 청자 ‘성민’을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 ‘그렇던데’는 ‘그러하던데’의 준말로, ‘시끄럽지’를 가리켜 ‘시끄럽던데’의 의미이다. 따라서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대응 표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39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어간 ‘:동-’과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므로 어간 말음은 ‘ㅎ’이고 ㉡의 어간 말음은 ‘ㅌ’이다. 따라서 어간 말음이 모두 ‘ㅌ’으로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을 형태 음소적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동·다’가 되어야 하는데, ‘:도·타’로 적고 있으므로 모두 음소적 표기법에 따라 적은 것이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과 ㉡은 모두 ‘:도·타’로 단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고 ㉡은 동작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과 ㉡이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각 형용사와 동사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 ‘:도·타’의 어간 음절은 방점이 둘이므로 상성이고 ㉡ ‘홀·다’의 어간 음절은 방점이 없으므로 평성이다. 따라서 ㉠과 ㉡의 어간 성조가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과 ㉣은 모두 ‘홀·다’로 단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은 목적어를 취하고 ㉣은 목적어를 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 ㉣이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각 타동사와 자동사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0~43] 매체 + 언어

40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진행자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도의 주요 소재만 제시하고 이후 정보 제시는 모두 의학 전문 기사가 담당하고 있다. 의학 전문 기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한 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함께 보도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학 전문 기사는 보도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학 전문 기자와 전문가가 준비된 질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 ② 제시된 뉴스는 일정 공간에서 혼자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자와 다른 공간에서 인터뷰를 수행하는 의학 전문 기사가 상호 작용을 하며 특정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전문가에게 진행자가 직접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③ 의학 전문 기사는 자신의 생각을 별도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가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 ⑤ 진행자가 시청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의학 전문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제시되는 화제를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도의 주요 제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의 주요 제재인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는 글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자막과 다르다. 이는 주요 제재를 부각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다.
- ② '나'라는 주어, '체중 감량에 도전해 볼까?'라는 표현을 볼 때, ㉠은 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청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 ④ '□□ 대학'은 전문가의 소속이며, '식품 영양학과'는 전문가의 전공 분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보도에서 제시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
- ⑤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워 일부 문장 성분을 생략한 채 사용되기도 한다. 자막에서 '인체에'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는 음성 언어에서 생략된 내용이며, 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다.

42 정보의 전달과 설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인공 감미료를 장기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들의 대사 산물이 비만, 대사 증후군,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의 장기 섭취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한다는 내용은 적절한 반응이라 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첫 번째 [기자 멘트]를 보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는 수크랄로스, 아스파르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가 사용되며 이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칼로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 ② 첫 번째 [진행자 멘트]를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과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가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 ⑤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공 감미료는 미국 식품 의약국이 밝힌 인공 감미료 승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식을 권고 용량보다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명사구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주어로 하는 관형사절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이 '영향'을 수식하는 구조이다. 명사구와 관형사절 구성을 통해 정보를 집약적으로 요약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사절을 활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걸까요'는 '것일까요'의 준말로, '것입니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격식적인 자리에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오체의 준말을 사용하여 격식체에 비해 시청자들에게 더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인용할 때 쓰는 조사 '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설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보가 남의 말이나 글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종속적 연결 어미 '-아서'를 사용하여 앞 절로 인해 뒤 절의 상황이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앞 절과 뒤 절이 인과적으로 이어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보조사 '는'은 칼로리 없는 탄산음료가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상황과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44~45] 매체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독자 게시판의 내용에 따라 기사에서는 축제의 변화 내용, 체험 행사의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축제의 기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새 활용'이라는 용어에 대해 '업사 이클링'이라는 유사 어휘와 '재활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플라스틱 '새 활용' 체험 행사,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먹거리 구역, 뽕튀기에 담긴 비빔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 ④ 표제인 '환경을 먼저 생각한 올해의 ○○시 축제'를 보면, 기사의 주요 소재인 '올해의 ○○시 축제'를 언급하면서 축제의 여러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생각한'을 포함해 기사의 전체 내용을 추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기심만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도 '독자 게시판'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축제에 참여했던 관람객과 ○○ 시청 관계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기사의 하단부에는 '관련 기사(클릭 이동)'를 제공해 제시된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필요한 경우 클릭을 통해 기사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표제 아래에는 기사의 입력 시간과 수정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입력과 수정의 시간은 기사가 언제 작성되었고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의 요구에 알맞은 성질을 의미하는 시의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두 시간 간의 격차는 기사의 시의성과 관련이 없다.
- ② 독자의 반응은 '행복해요' 등을 포함한 5가지 이모티콘과 아래의 숫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반응의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반응의 이유

를 확인하기 어렵고, 따라서 신뢰성도 확인하기 어렵다.

- ④ 기사는 기본적인 문자 텍스트 이외에도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양식성으로 인해 수용자는 정보를 비선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므로 문자 정보를 모두 수용해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수용자의 의견은 인터넷 신문 화면 맨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의 순서상 기사 작성 및 수정 이후에 의견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기사에서 수용자 의견에 대한 기사 작성자의 생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수능개념

EBS 대표강사들과 함께 하는
수능의 개념을 잡아주는 필수 기본서

01 ①	02 ④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③	08 ④	09 ①	10 ③
11 ③	12 ⑤	13 ①	14 ①	15 ②
16 ⑤	17 ③	18 ⑤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④	24 ③	25 ④
26 ④	27 ②	28 ①	29 ④	30 ②
31 ③	32 ⑤	33 ①	34 ⑤	35 ③
36 ⑤	37 ⑤	38 ③	39 ①	40 ③
41 ②	42 ③	43 ⑤	44 ⑤	45 ④

[01~06] 독서 - 주제 통합(인문)

(가)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의 양상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 신분제가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 계층 내부의 분화와 함께 양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비 제도에 변화가 생겨 노비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신분 제도로 인한 현실적 모순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개혁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유교적 계층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주제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의 요인과 실학자들의 개혁안 제시 구성

- 1문단: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의 원인
- 2문단: 조선 후기 노비 제도의 변화
- 3문단: 신분제를 개혁하려 했던 조선 후기 실학자
- 4문단: 실학자들의 한계점과 의의

(나) 실학자의 신분제 개혁 방안

해제 이 글은 조선 후기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했던 다양한 실학자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유형원은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거제와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자고 했고, 이익은 사농합일론과 역전과, 노비종모법을 주장하였다. 유수원은 능력 중심의 관료 체제 정착과 재산 정도에 따른 균분 균세를 주장하였고, 사농공상을 능력에 따라 구별하자고 제안했다.

주제 유형원, 이익, 유수원의 신분제 개혁 방안

구성

- 1문단: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려고 한 실학자들
- 2문단: 유형원의 신분제 개혁 방안
- 3문단: 이익의 신분제 개혁 방안
- 4문단: 유수원의 신분제 개혁 방안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가 변화한 요인을 설명하고 노비 제도 변화 등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학자들이 신분보다는 능력에 맞게 업무나 직업을 가지는 사회 분업적 개념을 도입하여 신분제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과 그들에게 유교적 계층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는 실학자들이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 계층이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③ (나)는 여러 학자가 제시한 신분제 개혁안을 살피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변화한 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④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신분제 개혁안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⑤ (가)는 조선 후기의 봉건적 제도인 신분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개혁하는 방안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나)도 조선 후기의 봉건적 제도인 신분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방안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02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2문단에서 유형원이 주장한 공거제는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 중 우수한 인재를 추천해 관리로 임명하는 것이다. 즉 천인이 제외되므로 모든 신분의 사람 중 능력이 있는 자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시험 방식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1문단에서 상민들이 과중한 균역과 같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했다고 하였다.
- ② (나)의 3문단에서 이익은 양반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노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비종모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였으므로, 노비 제도를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노비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2문단에서 부를 축적한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고 하였다.
- ⑤ (나)의 2문단에서 유형원은 노비 제도 폐지 이후 노동 인력의

부족 문제를 고공 제도의 운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신분제 개혁안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조건 없는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유교적 계층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정약용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음을 볼 때 유교적 계층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보기>에서 정약용이 양반도 국익을 위해 실용적 학문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음을 알 수 있지만, 그가 양반 인구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보기>에서 정약용은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가)의 1문단에서 잔반 또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양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정약용이 잔반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보기>에서 정약용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의 4문단에서 조선 후기 신분제의 개혁안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조건 없는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정약용이 대부분의 실학자들처럼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가)의 2문단에서 조선 후기에 노비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조선 후기에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04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자료 3]에서 유수원이 사농공상은 모두 같은 백성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유수원은 사농공상을 평등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유수원은 신분 고하의 차별이 없는 백성에서 천인을 제외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유수원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농공상으로 구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료 1]에서 공경의 자제도 서인이 될 수 있으며 귀천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도라고 한 것과, (나)에서 유형원이 양반 세습제의 개혁을 위해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공거제로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볼 때, 유형원이 신분에

다른 서열을 비판하고 양반 신분의 세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② [자료 2]에서 이익의 주장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여 각자가 그 업에 안정될 것이라고 한 것과, (나)에서 이익이 신분제로 인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볼 때,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익의 주장을 알 수 있다.
- ③ [자료 2]에서 농사짓는 선비 중 재덕이 있는 자를 초야에서 뽑아 천거하자고 한 것과, (나)에서 이익이 주장한 사농합일론을 볼 때, 농사를 짓는 선비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이익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④ [자료 3]에서 선비가 농공상업에 종사하면 벼를 사귀고 혼인과 벼슬에 장애가 있다고 한 것과, (나)에서 양반이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유수원이 비판했다는 내용을 볼 때, 유수원은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비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 박지원은 농공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양반의 역할을 강조하며 양반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나)의 4문단에서 유수원은 이용후생의 실현을 위해 양반 문벌의 타파를 주장하고, 사농공상의 평등과 균형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3문단에서 이익은 놀고먹는 양반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홍대용은 양반이라도 학식이 없어 관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② (나)의 4문단에서 유수원은 벼슬을 하지 않는 사대부가 농업 및 상공업과 같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박제가는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③ (나)의 3문단에서 이익은 당시 조선에 놀고먹는 양반이 크게 늘어 사회적 폐단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였고, <보기>에서 박지원은 양반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지 않아 국가가 피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④ (나)의 2문단에서 유형원은 노비 제도 철폐를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낱짜를 정해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노비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하자고 하였고, <보기>에서 박제가는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은 ‘가치, 명성, 지위, 품질 따위를 낮게 하거나 잃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가 문맥상 같은 의미로 쓰인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입찰이나 시험 따위에 붙지 않게 하다.’의 의미이다.
 ③ ‘무엇과 거리가 벌어지게 하다.’의 의미이다.
 ④ ‘값이나 금액을 낮추다.’의 의미이다.
 ⑤ ‘웃이나 신 따위를 헤어지게 하여 못 쓰게 만들다.’의 의미이다.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특강을 공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07~11] 독서 - 사회 · 문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해제 이 글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증가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창작물로서의 표현 기준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창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공 지능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렇게 볼 때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제시된 창작물로서의 표현 기준 중 하나인 창작성의 의미를 인간의 의식이나 자각의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인공 지능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의 창작 수준은 단순한 반복과 변경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창작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 외에도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의 저작자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배타적 권리인 지식 재산권을 대량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 지능에게 부여할 경우 독점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수반되기에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과 유의점

구성

- 1문단: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주요 논란
- 2문단: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한계
- 3문단: 창작성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인공 지능의 창작성에 대한 인정
- 4문단: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자 설정 문제
- 5문단: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귀속 주체의 설정 문제
- 6문단: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

07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2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이 저작권법상에 명시된 표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법상에 명시된 표현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논란이 되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되는지 등의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며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쟁점을 소개한 후, 마지막 문단에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독점화로 인한 부작용 문제, 인간의 창작 영역에 대한 침해,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제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1문단에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인공 지능의 구체적 예로 베토벤이 미완성으로 남긴 교향곡을 완성한 인공 지능의 창작 활동을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1문단에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법상 두 가지 논란을 미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논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독자는 서두에서 제시한 주요 쟁점을 미리 확인하여 내용을 예측하며 읽을 수 있다.

08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5문단에서 저작권을 창작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는 창작의 촉진이라고 하는 법 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귀속 주체를 찾는 과제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리주의에서는 창작의 촉진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에게 저작권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즉 공리주의는 저작자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저작권은 창작 촉진이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인공 지능이 작품을 제작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3문단에서 창작성을 인간의 의식이나 자각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인공 지능의 창작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저작권법 제2조에 명시된 저작물 요건으로서의 표현 기준은 표현의 주체로 인간, 즉 자연인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6문단에서 인공 지능은 인터넷상의 무수한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창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공정 이용, 저작권 침해의 쟁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 ③ 6문단에서 인공 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창작해 내기 때문에 향후 창작 활동의 범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위치에 놓이게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빅 데이터 기술과 컴퓨팅 연산 기술로 무장한 인공 지능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6문단에서 인공 지능은 인터넷상의 무수한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창작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09 중심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보기>의 실정권론에서는 저작권을 사회 발전의 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6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인공 지능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여 사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정권론에서는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대량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독점화는 인간의 창작 영역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가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정권론에서는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대량 생산이 불러일으키는 독점화를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보기>의 자연권론에서는 저작권을 인간의 지적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자연권론에서는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은 인간이 아닌 인공 지능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④ 사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권론이 아니라 실정권론이다.
- ⑤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통한 창작 활동의 증진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권론이 아니라 실정권론의 입장이다.

10 글에 드러난 관점 비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2문단에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사상 및 감정과는 다른 내용의 창작물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인공 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저작권법상에 명시된 저작물의 표현 기준 중 창작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작성의 개념을 정의하면 인공 지능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독자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마음과 머리를 감동시킨다면 인간이 만든 저작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하였다.
- ④ 4문단에서 인공 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의 '창작'에 참여한 당사자로 인공 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코딩한 프로그래머, 일련의 선택 내지 지시와 이미지를 입력한 이용자, 상당한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학습시키는 자, 인공 지능 또는 로봇 그 자체 가운데 누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인공 지능이 만든 작품에 인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대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1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㉓는 '숨쉴나 기술 따위가 정밀하고 교묘하다.'의 뜻으로, '엮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다.'의 의미인 '뚜렷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는 '양이나 수치가 늘다.'의 뜻으로, '부피나 분량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거나 길어지거나 많아지다.'의 의미인 '늘어나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② ㉒는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의 뜻으로, '어떤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의 의미인 '던지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④ ㉔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의 뜻으로,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의 의미인 '이르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 ⑤ ㉕는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의 뜻으로,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난다.'의 의미인 '따르다'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다.

[12~17] 독서 - 과학 · 기술

CPU 스케줄링

해제 프로그램이 작업을 처리하려면 우선 CPU를 할당받아야 한다. CPU에는 한 번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할당할 수 있으므로, CPU 스케줄링이란 CPU를 언제 어느 프로그램에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CPU 스케줄링에 사용되는 기법에는 대기열에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는 단순한 방법부터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과 대기 시간에 따른 응답률을 고려하여 CPU를 할당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CPU 스케줄링의 성능을 평가할 때, CPU를 멈추지 않고 최대한 많이 일을 할수록 시스템 입장에서는 고성능이라 보고, 사용자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기급적 빨리 CPU를 할당받아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성능으로 본다. 2000년대 이후에는 두 개 이상의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대중화되었고, 이때부터는 일부 CPU만 일하는 상태를 방지하는 기술인 이주가 스케줄링에 추가되었다.

주제 CPU 스케줄링의 의미와 작동 방식

구성

- 1문단: CPU 스케줄링의 역할
- 2문단: CPU 스케줄링의 성능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
- 3문단: CPU가 한 개뿐인 컴퓨터에서 스케줄링의 고안
- 4문단: CPU 스케줄링의 네 가지 방식 소개
- 5문단: CPU가 두 개 이상인 컴퓨터에서 필요한 이주 기술

12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에서 CPU 이용률은 단위 시간당 CPU가 일한 시간의 비율이라고 하였고, 이는 시스템 입장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이 가급적 빨리 처리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스케줄링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CPU 이용률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CPU 스케줄링을 운영 체제의 일부라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실행시킨 순서대로 대기열에 등록되었다가 CPU 스케줄링에 의해 CPU에 할당된다고 하였다.
- ③ 5문단에서 두 개 이상의 CPU를 사용할 때는, 일부 CPU만 일하고 다른 CPU는 쉬는 상태를 방지하는 기술이 스케줄링에 추가되었는데 이 기술을 이주라 한다고 하였다.
- ④ 2문단에서 작업 처리량은 시스템 입장에서 CPU 스케줄링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고, 작업 처리량이 많을수록 시스템 입장에서 고성능으로 본다고 하였다.

13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SJF 방식은 오직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할당 순위를 정하므로,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보다 실행 시간이 짧은 다른 프로그램이 대기열에 많이 있다면 대기를 오래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계속 순위에 밀리게 된다. HRN 방식은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의 합을 실행 시간으로 나눈 응답률을 이용한다. 응답률의 분자에 대기 시간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 길면 분자의 값이 커져서 응답률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실행 시간이 긴 프로그램이라도 대기를 오래 했다면 우선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SJF 방식과 HRN 방식은 모두 대기열에 등록된 순서가 늦더라도 대기 시간은 짧아질 수 있다.
- ③ HRN 방식은 응답률이 높은 프로그램부터 CPU를 할당한다.
- ④ SJF 방식은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계산한 후 CPU를 할당한다. 그리고 HRN 방식이 두 순서를 바꾸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⑤ SJF 방식은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할 때 실행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HRN 방식도 대기 시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4 중심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RR 방식은 모든 프로그램마다 균일하게 최대 할당 시간을 부여해 그 시간만큼만 CPU를 할당하고, 최대 할당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대기열의 다음 순서인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하므로 선점 방식에 해당한다. 반면에 FCFS, SJF, HRN 방식은 할당된 프로그램이 작업을 완료해야 다음 프로그램에게 CPU를 할당하므로 비선점 방식에 해당한다.

15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X가 실행된 후 대기열에 재등록된 것은 X의 실행 시간이 3초여서 최대 할당 시간인 1초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X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열의 마지막 순서로 재등록되므로 대기열에 등록된 순서는 Y, Z, X가 된다. 다시 X가 실행되기 직전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Y가 실행된다. Y는 최대 할당 시간과 실행 시간이 같아 CPU에서 Y의 종료가 발생한다. 그다음은 Z가 실행되는데, Z의 실행 시간은 최대 할당 시간 1초보다 큰 2초이므로 Z는 종료되지 않고 대기열에 재등록된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상황 3]에서 CPU1에 SJF 방식을 이용하면 P, Q 순으로 실행되며 25초 후에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다. CPU2에 SJF 방식을 이용하면 R, S 순으로 실행되는데 25초 후에 CPU2는 R를 처리 중이고 대기열에는 S가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CPU2의 대기열에 있는 S가 CPU1의 대기열로 옮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상황 1]에서 FCFS 방식을 이용하면 등록 순서인 P, Q, R, S 순으로 처리되고, SJF 방식을 이용하면 실행 시간이 짧은 순서인 P, Q, R, S 순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처리 순서는 서로 같다.
- ② [상황 1]에서 FCFS 방식을 이용했을 때 P는 즉시 실행되므로 대기 시간은 0이고, [상황 2]에서 FCFS 방식을 이용했을 때의 S는 즉시 실행되므로 대기 시간은 0이다. 따라서 대기 시간은 서로 같다.

- ③ [상황 1]에서 FCFS 방식으로 총 대기 시간을 구하면 90초이다. 이는 Q의 대기 시간 10초, R의 대기 시간 25초, S의 대기 시간 55초의 합이다. [상황 2]에서 FCFS 방식으로 총 대기 시간을 구하면 195초이다. 이는 R의 대기 시간 40초, Q의 대기 시간 70초, P의 대기 시간 85초의 합이다. 따라서 [상황 2]에서 이용할 때보다 [상황 1]에서 이용할 경우 총 대기 시간은 더 짧다.
- ④ [상황 3]에서 CPU1에 FCFS 방식을 이용하면 등록 순서인 Q, P 순으로 처리한다. Q의 실행 시간이 15초이므로 P의 대기 시간은 15초이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의 기본형인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집에 우산을 놓고 나왔다.'의 '보다'가 문맥상 ㉠과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로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의 기본형인 '듣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소리를 감각 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의 기본형인 '고르다'는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위태롭거나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의 기본형인 '구하다'는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목청에 탈이 나서 목소리가 거칠고 맑지 않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의 기본형인 '쉬다'는 '물체나 물질 따위가 움직임을 멈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21] 문학 - 고전 시가

안동 권씨, 「반조화전가」

해제 이 작품은 18세기에 안동 권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원장이라는 남성이 화전놀이를 하는 여성들을 보고 「조화전가」를 지어 조롱하자,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에 대해 반박한 화전가사이다. '반조화전가'는 '조화전가에 대해 반대로 답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남자와 달리 평소에 규방에 머무는 여자들은 오직 봄날의 화전놀이를 통해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으므로 화전놀이를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봄철에 화전놀이를 하는 즐거움과 화전놀이를 조롱하는 남성의 입장에 대한 반박

구성

- 심규에 드러안자 ~ 인생이 이만이라: 가사 노동을 하다가 봄을 맞이함.
- 여자의 달라짐도 ~ 주야를 모르거니: 여인들이 모여서 봄 풍경을 완상하며 취흥을 즐김.
- 아는가 모르는가 ~ 신선인가 하노라: 남성들을 조롱하며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냄.

18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오색은 깊은 골의 척촉이 만발하니 / 무릉도원인들 이에서 더하오며 / 전계에 맑은 징담 한가도 한가할샤 / 청승별계를 다시 보와 무엇하리'에서 화자는 자신이 체험한 철쭉이 만발한 오색구름이 낀 깊은 골짜기가 '무릉도원'이나 '청승별계' 같은 이상향과 비교할 때 더 낫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서 화자가 과거의 즐거웠던 일을 떠올리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② 이 글에 설득적 어조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잘못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는 내용은 없으며, 역동적 측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에 '도리화', '춘풍', '벽도화', '푸른 풀' 등 여러 가지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으나,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은 ‘벽도화’와 ‘양류지’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가 느끼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화전놀이 도중에 여성들이 꽃으로 치장한 후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원근의 벼랑과 마을 주변에 꽃이 피어 있는 광경을 ‘홍금당을 둘러 잇고(붉은 비단을 둘러 잇고)’, ‘가지마다 색을 띠어’라고 묘사하며 색채 이미지를 통해 봄철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부녀 삼십여 명이 벌여 앉아 규중의 한가로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다.
- ③ 화전놀이에 참가한 부녀자들은 먼저 요기를 한 후 일어서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즐겨 구경하고 있다.
- ⑤ 화자는 ㉔에서 도리를 모르는 남자들이 세속적인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욕심일 뿐이며, 꽃을 비추는 달이 떠오른 단오절의 좋은 시절에 여인들의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술에 취하지 않아 부끄러운 상태라 여기며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보기>의 ‘남성 중심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맺혔던 감정을 완화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보기>의 화자는 여성들의 화전놀이를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감상할 줄 모르는 ‘단청 구경’에 불과하다고 조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의 화자는 [A]에서 사서삼경과 제자백가 그리고 위인의 도리와 세상살이의 경계술을 보고 읽고 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단청 구경’에 불과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즉 <보기>의 화자가 사용한 ‘단청 구경’이라는 표현을 되받아 활용하여 <보기>의 화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옛말’은 여성들은 집에 머무르고 남자들이 강산을 즐겨 구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들의 조롱에 반박하는 이 글의 화자는 <보기>의 ‘옛말’을 본받아 행동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 ② [A]에 ‘강산완경(강산을 구경하며 즐기는 일)’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산경 좁은 길로 구차하게 찾아가니’는 남성들의 잘못된 행태를 빗댄 것이다.
- ④ <보기>의 화자는 부녀자들이 산수 구경을 하고 남자들이 홀

로 빈방을 지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화자는 [A]에서 여성들이 화전놀이를 즐기는 분위기를 남성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을 일삼는 것에 대해 남자의 수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화자가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 ⑤ <보기>의 화자는 화전놀이의 실행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다.

2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여자의 달라짐도 예부터 이심으로 / 한 걸음 돌려서 완풍경 하려 하고 / 지심하는 우생들과 일언의 구일하니’에서 화자가 화전놀이를 하기 위해 밭에서 김매는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 화전놀이를 나온 여인들을 남성이 방해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여행을 맑게 닦고 방적을 힘쓰더니’를 통해 여인이 집 안에서 노동하는 모습은 떠올릴 수 있지만, 신세를 한탄하며 남편을 원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에 여인들이 일부러 허름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금차 옥잠은 용모의 광채 되고 / 녹의홍상은 도로의 문명하다’를 통해 여인들이 금비녀 옥비녀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전놀이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 ④ 이 글에 여인들이 돌아가며 직접 시를 지어 낭송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 작자 미상, 「까치전」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우화 소설로, 탐관오리와 토호들이 결탁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당대의 사회상을 그린 풍자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까치를 죽인 부도덕한 비둘기를 2차에 걸친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송사를 통한 사건 전개는 당대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재판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상, 불공정한 재판, 무능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사 난춘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는 두 번째 재판은 현명한 관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서민들의 기대 심리와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탐관오리와 지배층의 부정부패 비판

전체 줄거리 까치가 낙성연에 온갖 우족(羽族)들을 초청하는데, 비둘기가 까치의 초청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까치를 죽게 한다. 남편을 잃은 암까치는 군수에게 제소를 하지만, 비둘기로부터 뇌물을 받은 두꺼비는 까치가 비둘기와 다투다가 절로 떨어져 죽었다고 위증을 하여 비둘기는 혐의가 풀려 석방된다. 암까치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삼년상을 지낸 뒤 어느 날 할미새가 암행어사 난춘에게 진실을 털어놓자 어사는 허위로 증언을 한 두꺼비를 유배 보내고, 암까치로 하여금 비둘기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뒤 암까치는 남편의 영혼과 만나 1남 1녀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나)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

해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한글 수필로, 규중 부인이 바느질에 사용하는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를 각각 '척부인, 교두 각시, 세요 각시, 청홍백 각시, 감토 할미, 인화 낭자, 울 낭자'로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처세술과 이해관계에 따른 세태를 우회적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규중 칠우가 공을 다투는 부분과 인간에 대한 원망을 하소연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감토 할미가 규중 부인에게 사죄를 하고 규중 부인이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연륜에 따른 처세술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여성 취향의 소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소재로 삼은 「모영전보(毛穎傳補)」나 「사우열전(四友列傳)」 같은 작품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제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 풍자

전체 줄거리 규중 부인이 잠든 사이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제각기 자신의 공을 늘어놓으며 다툰다. 잠시 잠에서 깨어난 부인은 이들을 꾸짖고 곧바로 다시 잠이 든다. 이에 칠우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 잠에서 깬 부인은 칠우를 다시 꾸짖는데 연륜이 있

는 감토 할미가 나서서 규중 부인에게 사죄를 하고 죄를 용서받는다.

2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 어사는 민정을 살피려고 순행을 하다가 할미새로부터 까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므로, 어사가 까치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엿탐을 하다가 할미새 집에 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군수는 회답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암까치의 남편을 죽인 비둘기는 곤장 세 대만 치고 풀어 주고 증인들도 특별히 풀어 주도록 하였다. 이를 볼 때 회답 문서에는 비둘기와 증인들을 풀어 주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암까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어사는 '법전에 일렀으되 '살인자는 사(死)라.'라고 말한 다음 비둘기를 때려서 죽게 하였으므로,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비둘기를 처벌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가)의 '너희는 관가 봉공지도에 힘을 다하여 위로 국정을 있는 힘을 다해 떠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어루만져 달래는 것이 사리에 온당할 것이어늘'을 볼 때, 어사는 책방 구진이 관가에 매여 있는 몸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암까치는 남편의 제사를 지낸 후 죽은 남편이 등장하는 꿈을 꾸었고, 잠시 죽은 남편과 함께 지낸 후 일남 일녀를 낳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죽은 남편이 등장하는 꿈을 꾸 다음 아들딸을 낳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울 낭자는 자신의 소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그러나 인화는 침선뿐이라.'와 같이 인화는 침선에만 사용될 뿐이고 자신은 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울 낭자와 인화는 모두 바느질 도구로 둘 중에 어느 쪽을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통해 인간 세태의 선악의 대립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군수는 비둘기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무능한 관리를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가)의 ‘너희는 관가 봉공지도에 힘을 다하여 위로 국정을 있는 힘을 다해 떠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어루만져 달래는 것이 사리에 온당할 것이어늘 한갓 청탁을 위하여 국정을 흐리었으니’에서 알 수 있듯이 책방 구진은 뇌물을 받고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뇌물을 바친 정범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고 곤장 세 대의 형벌만 받고 풀려나는 것은 불공정한 판결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송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세태를 가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감토 할미는 “칠우는 내 허물을 그대로 하느냐.”라는 규중 부인의 말에 평소의 깊은 정과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를 해 달라고 청하고 있다. 감토 할미의 이러한 모습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륜에 맞게 처신을 하는 모습을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24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에서 송사의 거짓 증언을 한 존재는 두꺼비와 책방 구진, 수청 기생이다. 이들은 ㉡에서 내려진 처벌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송사의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존재는 군수인데, 군수는 ㉡에서 송사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 ② ㉠에서 송사 결과에 만족한 존재는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에서 송사의 결과에 반발하고 있지 않다.
- ④ ㉠에서 패배한 존재는 암까치이다. ㉢에서 암까치가 어사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사가 천상계의 절대자인 것은 아니다.
- ⑤ ㉠에서 송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존재는 암까치인데, 암까치는 ㉢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데 방해를 하고 있지 않다.

2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제 옷을 문지르고 먹을 잡아 몹시 흔들며 우겨 누르니, 황천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여 나의 목이 달아날 적이 몇 번이나 한 줄 알리오.’에서 알 수 있듯이, 올 낭자는 심신이 아득해지고 목이 달아날 것 같았던 과거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화 낭자는 자신 때문에 미누비, 세누비, 혼술이 고와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 ② 척 부인은 의복 마를 때나 게으른 종을 깨울 때 자신을 사용해 놓고, ‘허리 부러짐’과 ‘공’을 몰라주는 규중 부인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교두 각시는 옷을 자를 때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규중 부인의 태도에 대해 불쾌함과 노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규중 부인은 ‘내 손부리 성함이 할미 공이라. 께어 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와 같이 감토 할미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며,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감토 할미를 넣고 다니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26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비둘기가 군수를 ‘명찰하신 사또’라고 부르는 데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 있으며, 자신의 죽고 삶이 군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 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금년 수가 불길하와 관재 구설수가 있으니 잔치를 벌여 즐기는 곳에는 가지 말라.” 하는 것을 정녕이 알지 못하옵기로 무심히 알았삼더니, 까치 낙성연에 우연히 지나오다가 이 지경을 당하오니’에서 비둘기가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군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오는 수는 면하기 어렵단 말이 옳사오며, 일전에 어려운 줄을 알지 못하던 말이 옳사외다.’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지만, 군수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저 암까치 사리도 알지 못하고 소생을 모함하였사오니’에서 암까치에 대한 비둘기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지만, 비둘기가 암까치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소생이 근본 충효를 본받고자 하여 사서삼경과 외가서를 많이 보았으니 족히 육십사과를 짐작하오며 충효를 본받았더니’에서, 비둘기가 근본 충효를 본받으려고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비둘기가 군수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7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B]에는 '마음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않으리오.'에서 규중 부인과 갈등을 겪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세요 각시의 원통함이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는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 중의 명물이요, 굳세고 끈기는 만고의 충절이라.'와 같이 바늘에 대한 예찬적 인식이 나와 있지만, [B]에는 바늘에 대한 예찬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B]에는 규중 부인이 세요 각시의 약한 허리를 휘두르거나 허리를 부러뜨려 화로에 넣는 등 세요 각시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세요 각시가 이따금 사람의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어 한을 푸는 것을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려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바늘이 두 동강이 나는 것과 같이 대상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드러나 있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대상의 노력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보기>에는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을 깨쳐 내는 듯, 이속도록기가 막히고 혼이 나갔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에서 바늘이 훼손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나 있다. [B]에는 세요 각시가 훼손된 상황은 나와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B]는 등장인물의 대화 부분이므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B]에는 의인화한 세요 각시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깊을 길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어 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나, 간혹한 감토 할미 밀어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디리르다.'와 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하는 세요 각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바늘을 '너'로 지칭하며 의인화를 하였지만, 바늘이 내적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28~31] 문학 - 현대 소설

이무영, 「제과 제1장」

해제 이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지식인이자 신문 기자였던 수택이 농촌으로 귀향하여 진정한 농민이 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불분명한 귀향 동기, 다소 낭만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묘사 등으로 인해 당대의 농촌 현실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지만, 한국 농촌의 전통적 윤리관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 농촌 생활에 대한 향수와 애정

전체 줄거리 수택은 가족과 함께 농촌인 고향으로 귀향을 한다. 그런데 수택에 대한 고향 집 아버지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타지에서 생활하던 수택이 설을 쇠고 고향에 왔을 때, 고향 집에 도둑이 든 일이 있었다. 수택이 유도 실력으로 도둑을 잡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몰인정하다며 수택을 책망한 적이 있다. 수택은 그런 아버지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수택이 동경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다가 생활에 회의를 느껴 귀향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농촌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자 수택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게 될 뿐이다. 또한 스스로 패배자라고 자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사일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흙냄새의 의미를 알아 나간다. 수택은 가을 추수를 마친 후 농사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만, 정작 소작료와 비료대와 지세(地稅)를 제하자 허망함을 느낀다. 이에 아버지가 거친 목소리로 지계를 지라고 호통을 친다. 아버지의 호통에 수택은 눈과 콧속이 화끈해지며 넘어진다. 그리고 수택은 일어나 코피를 흘리며 걸어간다.

2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그는 걸으려는 하도 오래간만이니 집에 와서 과세를 한다고 꾸뻬지만 기실은 근방 읍에까지 출장이 있어서 온 김에 들른 것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택은 고향 집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침 출장을 온 김에 집에 들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세상이란 모두 거꾸루 봐야 하는 게다. 경치 경치 하지만 제 대루 볼 땐 보잘것없던 것이 가랑이 밑으로 보니까 희한하잖으냐. ~ 거꾸루 봐야지! 너들 눈엔 우리가 이리구 사는 게 개 돼지같이 보겠지만서두 알구 보면 신선야, 신선. 너들 월급쟁이예다 대?'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영감은 수택에게 농촌의 생활이 도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 ③ '하면 되리라고 생각한 낫질이 그 좁은 원고지 칸에 글자를 써넣기보다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택은 자신이 그간 해 온 글쓰기보다 농사일이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④ “‘에이끼, 미련한 것! 배추밭 때는 걸 밭 먹듯 하는구나. 밥 한술 떠 넣구 반찬 한 가지 집어 먹구— 그 식이 아니냐. 아, 이쪽으론 흙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왼손으론 풀을 집어내야지, 그걸 어떻게 따루따루…….’ / “‘아직 손에 안 익어 그렇습니다, 아버지.’ / 수택은 이렇게 변명을 하는 도리밖에 없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김 노인의 편지에 수택은 변명을 하고 있다.
- ⑤ ‘수택은 빨래 자리로 놓은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치를 쳤다. 아침저녁으로 반죽한 치분으로만 닦아 온 이가 물로만 웅얼웅얼해 뱉어도 입안이 환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택은 물로만 양치를 해도 입안의 느낌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29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일테면 말이다. 내가 네 발등을 잘못해 밟았다고 치자꾸나. 그러면 넌 발끈할 게다. 허지만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잘못해 밟았나 보다 하군 그만이거든.’에서 알 수 있듯이 ㉠에 대해 김 노인은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또한 ‘산이 없냐 물이 없냐. 숲이 있겠다, 십 리만 나가면 수리 조합 보가 있겠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에 대해 김 노인은 예를 들어 수택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많은 인층에 정오만 가지고 살려구 들어?’라는 김 노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김 노인은 ㉠을 통해 도시인들이 중시하는 삶의 원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② “그래, 여기 경치가 서울만 못하단 말이나.”와 ‘경치 경치 하지만 제대루 볼 땐 보잘것없던 것이 가랑이 밑으로 보니까 희한하잖으나. 사람 산다는 것두 그러니라. 너들 눈엔 여기 사람들 사는 게 우습지? 허지만 여기 사람들은 상팔자야.’와 같은 김 노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김 노인은 도시인의 면모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택의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인의 면모에서 벗어난 수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 ③ ‘정오로 친다면야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이 글치. 그래, 이 많은 인층에 정오만 가지고 살려구 들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수택의 태도를 꾸짖기 위한 말이다.
- ⑤ ‘도회 물을 먹은 아들은 물론 코웃음을 쳤었다.’와 ‘수택은 아버지가 너무 흥분이 돼서 서두는 통에 어리둥절하고만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택은 ㉠과 ㉡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

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

30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아무것도 없으니 나오! 나오.’와 “나갈 길을 좀 띄워 주서 유!” 그리고 김 노인이 수택에게 하는 말은, 의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벽에서 나는 황토 냄새와 그야말로 된장 내처럼 귀퀴한 냄새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택은 귀퀴한 냄새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는 공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손에 흥기 하나 들지 않은 좀도적임을 발견한 그는 ‘억’ 소리와 함께 덮치어 잡아났었다. 그는 학생 시절에 배운 유도로도 적을 메다치고는 제 허리끈으로 두 팔을 꼰꼰 묶었다.’와 ‘김 노인의 작대기는 재차 아들에게로 향하고 겨누어졌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결의 상대가 수택과 도적에서 김 노인과 수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결하는 상대가 달라짐에 따라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법으루만 산다면야 법에 안 걸릴 놈이 또 어딴단 말이나. 넌 법에 안 걸리는 일만 하고 사는 상십지? 그런 게 아니니라. 울 갈에두 면소 뒤 과수원에서 사과 하나 따 먹다가 징역을 갔느니라.’에서 알 수 있듯이, 김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수택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도적놈도 그랬고 수택이도 그랬고 온 집안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몽둥이에 맞을 사람은 그 도적이리라고— / 그러나 아니었다. 지켓작대기에 아랫종아리를 얻어맞은 것은 아들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몽둥이에 맞을 사람이 도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택이 몽둥이에 맞게 됨에 따라 의외성이 부각되고 있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그들은 동리 사람들의 이런 경이의 시선을 등 뒤에 느끼며 일을 했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위안이기도 했다. 지금의 그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자랑도 되었지만 못하는 것도 부끄럼이 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택이 ‘헌 양복 조각을 입고 밭을 매는 것’을 동리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 것은 수택이 농사일에 서툰 것에 대해 동리 사람들이 반감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보기>를 참고할 때, 흡수란 '기존의 생활 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도시인이 기존의 생활 방식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 양복 조각을 입고 밭을 매는' 수택의 행위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온전하게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택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농촌 문화에 흡수되었음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당당한 문화인인 아들은 흙투성이인 김 영감을 '내 아버지라'고 내세우기조차 꺼려 했다.'와 김 노인의 '사람이란 흙내를 맡아야 하느니라. 대처(도회) 사람들이 암만 고량진미로 음식을 만든대도 시골 음식처럼 구수한 맛이 없느니라.'에서 수택과 김 영감 사이의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택이 '결혼을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청하지 않은 것'과 김 영감이 '아, 그 잘난 놈 잔치에 못한 애비가 가?'라고 한 말에서 두 인물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너들 눈엔 우리가 이러구 사는 게 개돼지같이 비겠지만서두 알구 보면 신선야, 신선. 너들 월급쟁이에다 대? 그 연기만 자옥한 돌판에서 사는 서울 사람들에다 대? 보렴, 네. 여기 사람들이 어떻든? 너들처럼 얼굴이 새하얗진 않지? 그게 신선이 아니구 뭐냐?'에서 알 수 있듯이, 김 노인은 수택에게 도시의 삶과 다른 농촌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보기>의 '도시인이 기존의 생활 방식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에 동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④ '그들은 동리 사람들의 이런 경이의 시선을 등 뒤에 느끼며 일을 했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위안이기도 했다. 지금의 그들에게는 잘하는 것이 자랑도 되었지만은 못하는 것도 부끄럼이 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동리 사람들은 수택이 농사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는 수택이 귀농을 통해 농촌의 삶에 정착하려는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리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 <보기>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인에게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 농민들의 태도는, 도시인이 농촌 생활에 정착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 농민들의 태도가 수택이 농촌에 적응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광대 줄 타듯 하던 논두렁도 어느새 평지처럼 평탄해진 것 같고, 아랫종아리에 차이는 이슬이 생기 있는 감촉을 준다. 아스팔트를 거닐다가 상점에서 뿌린 물이 한 방울만 튀어도 시비를 걸던 일이 마치 옛날 꿈 같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택은 점차 농촌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보기>에서 적

응을 '이질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것을 참고할 때, 수택이 아스팔트에서의 물방울과 논두렁에서의 이슬에 대한 감촉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수택이 도시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 사회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32~34] 문학 - 현대시

(가) 정지용, 「인동차」

해제 이 작품은 노주인이 '인동' 삶은 물을 마시며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 내려는 모습을 통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묵묵히 이겨 내려는 의지를 감각적으로 보여 준 시이다. 생명력이 억눌려 있는 겨울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두 계절의 이미지를 적절히 드러내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를 보여 준 것이 특징이다.

주제 시련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

구성

- 1연: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
- 2연: 다시 살아나는 불
- 3연: 파릇하게 돌아나는 무순
- 4연: 풍설이 몰아치는 방의 외부
- 5연: 삼동의 추위를 묵묵히 인내함.

(나) 이성부, 「봄」

해제 이 작품은 '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를 통해 계절적 순환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올 봄을 '너'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시이다. 시인은 '너는 온다'와 같은 화자의 단정적인 어조와 '마침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반드시 찾아올 봄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독자에게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찾아올 봄은 힘든 순간을 지나 찾아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주제 언젠가는 올 봄(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구성

- 1, 2행: 봄이 올 것에 대한 믿음
- 3~10행: 봄이 오기까지의 과정과 봄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
- 11~16행: 마침내 온 봄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5연의 '산중'을 통해 5연에 제시된 공간이 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달력도 없다는 표현을 통해 산속이 시간을 초월한 공간임을 드러내면서 더불어 하얀 눈이 쌓인 모습을 제시하여 탈속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대비되는 공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동차를 마시는 모습을 '장벽', 즉 내장에 정해진 때 없이 아무 때나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마치 신체 내부를 보는 듯한 시인만의 발상으로 표현하여 구체화한 부분이다.
- ② 2연에서는 '붉고', 3연에서는 '파랗고'와 같이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이 타오르는 모습과 무순이 돋는 생명력 넘치는 분위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4연에서는 '풍설'이 있는 외부와 '훈훈히 김도 서리'는 내부 공간을 대비하여, 매서운 추위가 있는 외부와 따뜻함을 품은 내부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④ 4연의 '풍설'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소리에 '잠착'하는 화자가 나타난다.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바람'은 '다급한 사연'을 들고 '너'에게 달려가 '너'가 오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람'이 화자와 화자가 기다리는 '너'를 연결하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화자의 나약함이 작품에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③ 화자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너'가 올 것이라 믿고 있으며, '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화자는 '너'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 지쳐 나가 빠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바람'이 이를 정확히는 아니다.
- ⑤ '바람'은 '기다림마저 잃'어버린 다급한 순간을 '봄'에게 알리기 위해 가서 '봄'을 흔들며 깨우는 존재로, 부정적 현실을 보여 준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바람'이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에서 '봄'은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더디게' 오는 존재이지만 마침내 와서 본다면 눈이 부신 존재이고, 열렬하게 환영하며 '두 팔을 벌려 껴안'고 싶은 존재라고 노래하고 있다. '소리가 '굳'는 것은 기다리던 존재가 왔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에 의한 것인지 '만물의 생명력이 억눌려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는 '인동'이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 만물의 생명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을 '이겨 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가)의 '삼동'은 생명력이 억눌린,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화자가 녹록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만물의 생명'이 억눌린 '겨울'이 지나면 '생명력이 만발'하는 모습을 자연의 필연적 섭리를 바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 겨울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덩그럭 불'이 '도로' 일어나는 모습은 다가올 봄, 즉 생명력이 만발하는 시기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만물의 생명을 억누르'는 겨울을 (가)에서는 '인동 삼긴 물'을 마시면서 견디고 있고, '순'이 돋고, '흙냄새'가 나는 봄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은 <보기>에 제시된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필연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5~39] 언어

3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 '젓고[젓:꼬]'에는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ㄷ' 뒤에서 예사소리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 ㉡: '옹지[옹찌]'에는 'ㅍ'이 'ㅂ'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ㅂ' 뒤에서 예사소리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 자음군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었다.
- ㉢: '빋만[빋만]'에는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 'ㅁ' 앞에서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이 세 가지 예에서 공통적인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므로 그에 대한 설명인 ③이 정답이다.

36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해당 예문의 '얼굴'은 '어떤 사물의 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표상'이라는 뜻을 지닌다. '위신'은 '위엄과 신망을 함께 이르는 말'이므로 이와는 뜻이 멀다. 이 경우 '얼굴'은 '간판'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해당 예문의 '얼굴'은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표정'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 경우 '얼굴'은 '표정'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② 해당 예문의 '얼굴'은 '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 경우 '얼굴'은 '모습'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③ 해당 예문의 '얼굴'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 경우 '얼굴'은 '인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④ 해당 예문의 '얼굴'은 '주위에 잘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나 명예 또는 체면'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이 경우 '얼굴'은 '면목', '체면', '낯'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37 문장 종결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의 '-구려'는 상대에게 권하는 태도로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하오체 종결 어미이다. 이 문장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점잖게 상대를 존중해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이 문장은 명

령문이므로 하오체 명령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누구요'는 겉보기에는 해요체처럼 보이지만, 하오체를 쓸 만한 상대에게 하는 말이다. '요'는 '누구+이-(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오(하오체 종결 어미)'에서 '이오'가 줄어든 말이다. 의문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감시다'는 겉보기에는 하십시오체처럼 보이지만, 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는 점에서 하십시오체가 아니다. 하오체를 쓸 만한 상대에게 하는 말이다. 청유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가세'가 하계체인 것은 맞으나 평서문이 아니라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함께 하자고 하는 청유문이다.
- ④ '아름답구나'는 해라체이다. 그래서 '*아름답구나요'와 같이 '요'를 붙여 해요체 높임으로 만들 수 없다. 감탄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38 한글 맞춤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지문의 마지막 문단은 '개, 깨, 귀, 귀'가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다가 현대 국어에서 단모음이 되었고, 이들 모음 글자는 각각 'ㅏ + ㅣ', 'ㅑ + ㅣ', 'ㅓ + ㅣ', 'ㅕ + ㅣ'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요지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개, 깨, 귀, 귀'는 단모음이면서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개, 깨, 귀, 귀'는 단모음이지만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하므로 단모음은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단모음 가운데 'ㅣ, ㅡ, ㅑ, ㅓ, ㅕ, ㅛ' 등은 하나의 글자로 표시하므로 단모음은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ㅓ, ㅕ, ㅛ, ㅜ'는 이중 모음이지만 하나의 글자로 표시하므로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개, 깨, 귀, 귀'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표시하고 단모음이므로 '개, 깨, 귀, 귀'가 이중 모음이며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9 한글 맞춤법, 모음의 제자 원리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깨'는 'ㅋ'과 'ㅣ'가 결합된 글자인데, 1, 2문단을 통해 'ㅋ'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글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은 ‘ㅣ’, ‘ㄴ’, ‘ㅇ’이 합쳐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4,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의 단모음은 ‘ㅣ, ㅡ, ㅏ, ㅑ, ㅓ, ㅕ, ㅗ, ㅛ’의 7개인데, 현대 국어의 단모음은 중세 국어의 단모음에서 ‘ㅣ’가 빠지고 ‘ㅘ, ㅙ, ㅚ, ㅜ’가 추가되므로 모두 10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어의 단모음 수가 중세 국어의 단모음 수보다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 뒤에 반모음 ‘j’가 더해진 이중 모음이 ‘ㅘ, ㅙ, ㅚ, 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 뒤에 반모음 ‘j’가 올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1문단을 통해, 한글 자모 24개 가운데 모음 글자 10개는 하나의 글자이고 나머지 모음은 이 10개를 두 개 또는 세 개 합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 24 자모 가운데 모음 10개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4문단을 통해, 훈민정음 재출자 ‘ㅝ, ㅞ, ㅟ, ㅠ’는 단모음 ‘ㅓ, ㅑ, ㅓ, ㅕ’의 앞에 반모음 ‘j’가 각각 더해진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재출자는 반모음 ‘j’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40~42] 매체

40 매체 생산 계획의 반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우리 반 친구들을 직접 호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해야겠다는 내용은 슬라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도 관리나 시간 관리라는 기본 기능을 소개해야겠다는 내용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슬라이드에 반영되었다.
- ② 앱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앱이 필요한 상황을 안내해 주어야겠다는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에 반영되었다.

- ④ 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슬라이드 중간 부분 사각형에 설명을 넣어서 안내하자는 내용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슬라이드에 반영되었다.
- ⑤ 앱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자는 내용은 네 번째 슬라이드에 반영되었다.

41 매체 자료의 표현 맥락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친구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앱을 소개하고자 하므로, 수용자가 유용하게 여길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보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앱을 제재로 선정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생산자가 발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슬라이드를 매체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 ③ 생산자가 깨닫게 된 가치 있는 경험을 성찰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하고자 하는 표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생산자는 수용자의 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주제로 발표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다.
- ⑤ 생산자는 수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와 그 결과를 명시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다.

42 매체 자료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제목과 본문의 순서를 나타내는 목차를 별도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과 이미지가 복합 양식적으로 결합된 슬라이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이다.
- ② 제시된 문장의 종결 방식을 각각 달리하여 표현한 슬라이드는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이다.
- ④ QR 코드를 읽으면 ‘공부왕’ 앱으로 이동하므로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대략적인 내용을 직접 앱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QR 코드가 제시된 슬라이드는 네 번째 슬라이드이다.
- ⑤ 글자의 모양과 크기를 활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한 슬라이드는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이다.

[43~45] 매체 + 언어

43 뉴미디어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이는 라디오는 방송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건축가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사진 자료를 가져오는 돌발 상황이 그대로 영상으로 송출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와 건축가의 대화, 음악, 보이는 라디오 영상, 실시간 댓글 등을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방송실의 영상이나 건축가의 말에 시청취자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이에 대해 다시 진행자나 건축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되며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진행자의 첫 번째 말에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으로 접속해서 시청하고 있는 시청취자를 언급하였고, 마지막 말에 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다시 듣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으로 접속해서 시청하고 있는 시청취자들은 영상을 통해 건축가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사진 자료를 가져오는 돌발 상황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접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에 비해 방송실 상황과 실시간 댓글 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여 방송 시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건축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속 가능한 건축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였으므로 사회적 요구에 대해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금 꼭 해야 할 일'이라 하였으므로 필요성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비용 문제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였는데, 설명을 듣고 지속 가능한 건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많이 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으므로

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추산'은 짐작으로 미루어 셈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건축가의 말이 과장된 것일 수 있으므로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④ 건축가는 건축학과에 진학하려는 '불휘 기쁜 나무'에게 노먼 포스터의 말과 함께 응원만을 전하고 있으므로 건축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진로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부족하였다는 판단은 적절한 설명이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조사 '도'가 '에너지'와 '건축 재료' 양쪽에 쓰였으므로, 둘을 비교하여 '건축 재료'를 더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지금'과 '여기'를 사용함으로써 현장성을 부각하여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그러면'은 앞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현재 시각 자료가 없으므로 진행자가 시각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건축가가 이 요청을 수용하여 시각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다고 발화한 것이다.
- ③ 감탄사 '참'은 잊고 있었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내는 소리이다.
- ⑤ 라디오를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20세기 소년'의 댓글을 볼 수 없으므로, '이런'이라는 말을 통해 '20세기 소년'이 비용 문제를 질문하였음을 추측하게 하고 있다.

01 ⑤	02 ④	03 ⑤	04 ①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③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③	20 ⑤
21 ⑤	22 ②	23 ④	24 ⑤	25 ④
26 ④	27 ④	28 ④	29 ⑤	30 ③
31 ④	32 ⑤	33 ③	34 ④	35 ⑤
36 ①	37 ①	38 ②	39 ②	40 ⑤
41 ③	42 ③	43 ④	44 ④	45 ①

[01~05] 독서 - 예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

해제 이 글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대 로마의 건축물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그리스의 건축물인 신전은 주재료가 무거운 대리석이며 삼각 지붕, 기둥, 기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는 곡선형 구조물인 아치와 안정성이 높은 건축재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주로 만들었다. 아치와 콘크리트를 사용한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판테온 신전과 콜로세움이다.

주제 고대 그리스의 신전과 로마의 판테온과 콜로세움의 특징 구성

- 1문단: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인 신전의 특징
- 2문단: 고대 로마의 건축물의 전반적인 특징
- 3문단: 고대 로마가 사용한 아치의 구조와 원리
- 4문단: 고대 로마의 건축물인 판테온의 특징
- 5문단: 고대 로마의 건축물인 콜로세움의 특징

01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에서 로마는 기둥 간의 폭을 좌우로 넓게 하여 넓은 입구를 얻기 위해 아치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즉 두 기둥 위에 하나의 돌을 올릴 때보다 아치 형태로 돌을 조립하여 쌓아 올리면 기둥 간의 거리를 넓힐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에서 콜로세움은 1층에는 도리스식, 2층에는 이오니아식, 3층에는 코린트식 기둥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고 하였다. 1문단에서 도리스식 기둥이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 코린트식은 이오니아식 주두에 화려하고 섬세한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추가한 형태라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그리스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대부분 무거운 대리석을 활용하였지만, 로마는 주로 콘크리트를 건축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판테온 몸체의 돔형 지붕은 지름이 43미터인데 지붕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높이도 지붕의 지름과 같은 43미터라고 하였다.
- ④ 1문단에서 고대 그리스는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의 구획이나 건축물의 배치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반면에 2문단에서 그리스와 달리 전쟁을 통해 넓은 영토를 차지한 고대 로마는 이동의 편리성과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길과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사각형으로 구획했다고 하였다.

02 생략된 내용 추론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1문단에서 신전에서 기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건축물에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기>를 통해 건축물에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기단의 역할은, 기단이 건축물과 다른 공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전에서 기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을 모시는 공간인 신전과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단은 신전이 세워지는 터를 다듬어 신전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지만, 이는 기능적인 측면의 역할이다.
- ② 기단은 건축물의 터를 다듬은 다음 터보다 높게 쌓은 단이다. 건축물의 지붕면이 정면을 향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특징으로 기단의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
- ③ 기단은 무거운 신전의 하중을 기둥을 거쳐 분산시켜 신전이 기울거나 침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는 기능적인 측면의 역할이다.
- ⑤ 고대 그리스의 신전은 주재료가 대리석이므로 물에 약한 목조로 되어 있지 않다.

03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5문단에서 ㉠은 구조적으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식의 목적으로 그리스식 기둥이 조각되어 있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 5문단에서 ㉡과 ㉢이 자갈이나 모래를 혼합한 건축재인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4문단에서 ㉠의 입구가 그리스 신전과 같은 형태라고 하였고, 5문단에서 ㉡은 그리스식 기둥이 조각되어 있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의 돔형 지붕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었고, 5문단에서 ㉡ 또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지었다고 하였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자갈이나 모래를 혼합한 내구성이 강한 건축재이므로, ㉠의 지붕과 ㉡과 같은 건축물을 로마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④ 4문단에서 ㉠의 몸체 부분은 아치를 반구형으로 쌓은 거대한 돔 형태의 지붕이 있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은 벽돌을 쌓아 올린 아치가 연속으로 된 구조물을 원처럼 둥글게 붙인 형태로, 1층에서 3층까지는 아치가 있는 구조라고 하였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그리스 신전에서 사용한 세 가지 요소는 삼각 지붕, 기둥, 기단임을 알 수 있다. 덕수궁 중화전의 정면을 보면 기둥과 기단을 발견할 수 있지만 삼각 지붕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3문단에서 아치를 사용하면 하중이 양쪽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된다고 하였다. 덕수궁 중명전을 보면 1층과 2층에 아치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삼각 모양의 지붕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덕수궁 석조전을 보면 정면 중앙에 삼각 지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그리스 신전의 이오니아식 기둥은 주두 양쪽에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이 있다고 하였다. 덕수궁 석조전의 기둥에도 주두 양쪽에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이 있다.
- ⑤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 요소인 삼각 지붕과 이오니아식 기둥을, 중화전에서는 기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중명전에서는 고대 로마가 사용한 건축 요소인 아치를 발견할 수 있다.

05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의 ‘만들다’의 사전적 의미는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 목적하는 사물을 이루다.’이며 문맥상 개선문이라는 건축물을 세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건물, 기념비, 동상, 탑 따위를 만들어 세우다.’라는 뜻의 ‘건립(建立)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조직이나 단체 따위를 짜서 만들다.’의 의미이다.
- ③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의 의미이다.
- ④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키다.’의 의미이다.
- 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서 체계 있는 집단을 이루다.’의 의미이다.

[06~11] 독서 - 사회

처분의 무효, 취소, 철회

해제 처분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이 무효, 취소, 철회가 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된다. 무효란 처분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취소란 처분 당시에 하자는 있었지만 처분을 내린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하며, 추후에 처분을 취소하면 효력은 소멸된다.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직권 취소라 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키면 쟁송 취소라 한다. 철회란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그 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회가 결정된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그런데 하자가 있는 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사후 보완을 하여 처음부터 적법했던 처분으로 만드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 하고,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법한 다른 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하자의 전환이라 한다.

주제 무효, 취소, 철회로 인한 처분의 효력 변화

구성

- 1문단: 처분의 의미와 종류
- 2문단: 무효의 예와 무효로 인한 처분의 효력
- 3문단: 취소의 예와 취소로 인한 처분의 효력
- 4문단: 직권 취소의 주체와 상대방의 원칙
- 5문단: 쟁송 취소의 주체와 목적
- 6문단: 철회로 인한 처분의 효력
- 7문단: 하자의 치유와 하자의 전환의 의미

06 세부 내용 파악

답 ⑤

- ⑤ 2문단에서 무효란 처분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6문단에서 철회란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

정에 의해 그 처분을 소멸시키는 행위라 하였으므로 처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설명은 철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영업 허가처럼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수익적 처분이라 한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사망을 한 경우 행정법에서는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본다 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행정청의 착오로 세금의 액수를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거둔 경우 행정법에서는 이를 취소의 사유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 ④ 7문단에서 하자의 치유는 취소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무효인 처분은 치유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효인 처분을 적법한 다른 처분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하자의 전환이라 한다고 하였다.

07 세부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7문단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영업 허가 처분은 무효이지만 이를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영업할 수 있게 처분의 상대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하자의 전환이라 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6문단에서 철회가 결정되면 결정된 이후부터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였다.
- ② 2문단에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사유가 되는 처분이라 하였고, 7문단에서 무효인 처분은 치유될 수 없다고 하였다.
- ③ 2문단에서 행정청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하였다.
- ⑤ 2문단에서 처분 당시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었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08 숨겨진 전제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해 주지 않는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쟁송 취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을 구제받아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이란 수익적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줄여 주는 처분이다. 쟁송 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잃은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수익적 처분의 상대

방은 자신이 잃은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쟁송 취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쟁송 취소의 대부분은 수익적 처분이 아닌 침익적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처분 과정에서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은 모두 일어날 수 있다. 행정청이 법을 집행할 때 침익적 처분을 가급적 내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 ③ 처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청이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쟁송 취소가 발생한다.
- ④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다. 쟁송 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된다.
- ⑤ 침익적 처분은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 모두, 취소가 될 경우에는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

09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ㄱ: 자신의 소득을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은 처분의 상대방이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하자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경우 4문단에 따르면 상대방은 위법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위법한 처분으로 얻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직권 취소할 수 있다.
- ㄷ: 3개월의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1개월의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1문단에 따르면 처벌 기간을 줄여서 처분의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줄여 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4문단에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ㄴ: 건축을 불허한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다. 4문단에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하자가 있는 처분일지라도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사후 보완을 하여 처음부터

적법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 한다. 이때 사후 보완의 기한은 처분의 상대방이 쟁송 취소를 제기하기 전까지이므로 6월 1일 전까지 사후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치유가 가능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설 개선 처분과 영업 정지 처분은 모두 침익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②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한 소송이므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5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소송은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쟁송 취소이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 의해서 □□법 제58조에 따른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
- ⑤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은 분명 하자는 있지만 일단 처분을 내린 시점부터 처분의 효력은 발생한다.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영업 정지 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A는 영업을 할 수 없다.

11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4문단에서는 직권 취소를 할 때,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어느 시점부터 소멸이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의 앞 문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상당성의 원칙에 따르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경우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법령에 근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을 집행했던 행정청의 명칭이'로 바꾸어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 ② ㉡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하자를 인정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은'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 ④ ㉢는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소멸시켜야 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는 적법하지만 처분 당시에는 위법이었던 처분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 ⑤ ㉣는 하자의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하자의 치유에 해당한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12~17] 독서 - 주제 통합(과학 · 기술)

(가) 로켓 엔진의 종류와 특성

해제 이 글은 로켓 엔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추진제의 종류에 따라 로켓 엔진을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으로 구분하여 각 엔진의 장단점과 연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액체 로켓 엔진은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 비용이 많이 들지만, 추진제가 내는 추력이 높고 발사 뒤에도 점화와 소화를 반복하며 추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고체 로켓 엔진은 구조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벼우나 추력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며, 점화 후 연소 속도 조절도 불가능하다.

주제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의 특징

구성

- 1문단: 로켓 엔진의 일반적 특징
- 2문단: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의 장단점
- 3문단: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의 연소 과정

(나) 우주선 발사체를 이동하기 위한 중력 추진

해제 이 글은 우주선 발사체의 우주 임무 수행을 위한 기존의 이동 방법이 가진 한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수학자 마이클 미노비치가 제시한 '중력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노비치는 우주선 발사체가 근접 비행으로 행성 부근을 통과하면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가 행성 부근을 통과하기 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우주선 발사체가 연쇄적으로 행성과의 근접 비행을 통해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중력 추진이라 불렀다. 중력 추진의 방법을 통해 외행성까지 우주선 발사체를 빠르게 보낼 수 있고 태양계 바깥까지 멀리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주제 중력 추진을 통한 우주선 발사체 이동 방법

구성

- 1문단: 우주선 발사체를 이동하기 위한 기존 방법의 한계
- 2문단: 미노비치가 발견한 중력 추진
- 3문단: 중력 추진의 기본 원리
- 4문단: 중력 추진을 활용한 우주선 발사체 이동의 의미

12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나)는 중력 추진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 부근을 통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는 추진제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추진제의 종류에 따라 로켓 엔진을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 (나)는 모두 화제와 관련된 주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

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가)는 로켓이 우주 공간에서 비행하는 데 필요한 엔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로켓이 지구 궤도 밖 외행성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추력을 얻기 위한 중력 추진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을 비교하여 각 엔진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액체 로켓 엔진과 고체 로켓 엔진 모두 추진제 연소로 발생한 가스를 노즐을 통해 배출하여 추력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을 밝히고 있다.
- ④ (나)는 미노비치의 중력 추진의 원리를 인용하여 로켓의 기존 이동 방법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의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의 추력은 추진제 중앙에 형성된 빈 공간의 표면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추진제의 표면 형상이 추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추진제가 연소실에서 가스 형태로 뿜어져 연소가 일어나므로, ㉠의 추력은 추진제의 표면 형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추진제의 특성으로 인해 발사체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다. 고체 추진제는 연료와 산화제를 혼합하여 굳힌 것으로, 고체 추진제는 산화제를 담기 위한 별도의 탱크와 추진제를 이동하기 위한 장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발사체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
- ② ㉠은 같은 질량 대비 추진제가 내는 추력의 효율이 더 높다. 그리고 점화 후 연소 속도의 조절이 어려운 것은 ㉠이다.
- ④ 제작에 많은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이다.
- ⑤ 발사 뒤에도 점화와 소화를 반복하며 추력을 제어하기가 용이한 것은 ㉠이다.

14 구체적 사례 적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가)의 3문단에서 고체 로켓 엔진은 액체 로켓 엔진과 마찬가지로 추진제를 연소하여 만들어 낸 가스를 분출하여 추력을 얻는다고 하였다. 연소실에서 만들어 낸 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압축하여 노즐을 빠져나갈 수 있게 조절한다는 것은 로켓 엔진의 추력을 일정하게 조절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2문단에서 고체 로켓 엔진의 고체 추진제는 일단 제작이 되고 나면 형상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력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가)의 3문단에서 고체 로켓 엔진의 연소실 내부의 압력은 계속 변화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3문단에서 높은 압력으로 ㉡로 보내진 추진제는 ㉡ 내부의 수많은 분무공을 통해 물줄기 형태 또는 가스 형태로 뿜어지고, 이 가스는 서로 부딪치고 부서져 안개처럼 변하면서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 ② (가)의 2문단에서 액체 로켓 엔진은 추진제를 ㉡로 보내기 위한 펌프, 밸브 및 파이프 등의 많은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③ (가)의 1문단에서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연료와 산화제를 함께 연소시켜야 추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의 내부에서는 연료와 산화제가 함께 연소되어 가스를 생성하게 되고, 이 가스를 노즐로 내보내 추력을 얻게 된다.
- ④ (가)의 3문단에서 고체 추진제의 점화는 추진제 중앙의 비어 있는 내부 표면에서 시작되고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추진제의 연소면이 추진제의 내부로 파고들면서 추진제가 차지하지 않는 연소실 내부의 공간이 점점 넓어진다고 하였다.

15 세부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의 2문단에서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에 접근하기 전의 운동 에너지와 근접 비행 후의 운동 에너지는 좌표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행성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는 우주선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운동의 방향만 바뀐다고 하였다. 하지만 태양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 본 우주선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의 1문단에서 로켓의 힘으로 중력을 이기려고만 하는 방법으로 달성이 가능한 우주 임무는 지구 궤도 안쪽으로는 금성, 지구 궤도 밖으로는 목성까지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 ② (나)의 3문단에서 우주선 발사체가 한 행성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주선 발사체에 미치는 행성의 중력이 태양의 중력보다 큰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④ (나)의 2문단에서 미노비치는 중력 추진을 이용하면 우주선 발사체가 연쇄적으로 행성과의 근접 비행을 통해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와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 ⑤ (나)의 3문단에서 우주선 발사체가 어느 행성의 중력장 안으로 진입하면 우주선 발사체는 행성의 중심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하여 다시 태양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였다.

16 중심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3문단에서 발사체가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하여 다시 태양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행성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의 크기는 행성의 중력장에 진입할 때와 같고 방향만 바뀌어 행성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는 탐사선이 어느 행성의 중력장 안으로 진입하는 지점이고, ㉡는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하여 다시 태양의 중력장 안으로 진입하는 지점이다. (나)의 3문단에서 행성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의 크기는 진입할 때와 같다고 하였다.
- ② (나)의 3문단에서 태양계의 각 행성은 각자의 중력장을 가지며 모든 행성과 위성의 중력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태양의 중력장이라고 하였다. ㉢는 행성의 중력장을 탈출하여 다시 태양의 중력장 안으로 진입하는 지점이므로 ㉠와 ㉡ 사이를 벗어난 탐사선은 태양의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 ③ (나)의 3문단에서 태양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는 태양의 중력장을 탈출할 때와 진입 후에 방향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 ④ (나)의 3문단에서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의 중력장 안에 있는 동안 우주선 발사체가 행성에 이끌려 운동하므로 태양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는 행성에 대한 우주선 발사체의 속도에 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해진다고 하였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도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리거나 상대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② ‘어떤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③ ‘일거리를 처리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⑤ ‘기계나 기구 따위를 사용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8~23] 문학 - 현대시 + 고전 시가

(가) 김지하, 「무화과」

해제 이 작품은 속 꽃이 피는 무화과를 소재로 하여 억압적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루고 있다. 억압적 현실로 인해 청년기의 아름다움마저 빼앗겨 버렸다고 한탄하는 화자에게 무화과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친구가 위로로 건네고, 둘은 어두운 현실 속을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는 존재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추구하는 삶의 가치

구성

- 1연: 암울한 현실 상황으로 인한 고통
- 2연: 암울한 삶에 대한 자조와 이에 대한 위로
- 3연: 암울한 현실에서 비틀대며 함께 걸어가 모습

(나) 서정주, 「귀족도」

해제 이 작품은 촉나라의 망제가 죽어서 되었다는 귀족도의 전설을 모티브로 삼아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이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연결되고 싶은 욕망 등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귀족도는 서럽게 피 토하듯이 우는 슬픔의 새이자, 임과 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이별로 인한 정한의 객관적 상관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제 죽은 임을 향한 그리움과 회한

구성

- 1연: 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 2연: 못다 한 사랑으로 인한 회한과 탄식
- 3연: 귀족도의 한 맺힌 울음과 임에 대한 그리움

(다) 작자 미상, 「정석가」

해제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희구하는 고려 가요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나열한 후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별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역설하고 있다.

주제 임과의 영원한 사랑

구성

- 제2~5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한 영원한 사랑의 희구

18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 게 / 그게 무화과 아닌가 / 어떤가’와 같은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에서는 ‘~는 서역 삼만 리’, ‘~는 파촉 삼만 리’와 같은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는 ‘젯빛’, ‘검은’, (나)에는 ‘흰’, ‘푸른’과 같은 색채어가

사용되었지만, 작품에서 색채 대비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③ (가)와 (나)에서는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의미의 말을 활용한 반어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 ④ (나)에는 ‘아롱아롱’과 같은 의태어가 사용되었지만 의성어는 나타나지 않으며, (가) 역시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나)에서는 ‘호올로’와 같은 시적 허용을 활용하여 씬으로써 혼자 저승으로 떠난 입에 대한 정감의 깊이를 부각하고 있지만, (가)에는 그러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19 시적 상황의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무화과’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화자는 자신과 동일시하며 꽃이 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친구는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 꽃’이 피는 것이라고 ‘무화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이면서 화자를 위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는 대화 상황만 제시될 뿐 특별한 공간의 변화가 제시되지 않는다.
- ② ‘이봐’, ‘이것 봐’와 같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아픔과 이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화자와 ‘친구’ 간의 거리감이 심화되지는 않는다.
- ④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 주며’와 같은 표현을 통해 시적 청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화자와 청자 간의 대립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립이 해소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자신의 삶에 대해 ‘꽃 시절이 없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드러나지만, 이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반복적 표현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0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은 화자가 우려리보지만 색마저 잿빛이고, 그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은 화자가 사랑하는 입과 이별하여 슬픔에 젖어 있음을 드러낸 공간으로 사랑하는 입과 사별한 화자의 부정적 현실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지향하

는 이상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② 화자는 ㉠을 보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고, ㉡은 입과 화자의 단절감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화자는 슬픔이나 울분을 느끼며 ㉠을 보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고, ㉡은 화자가 입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는 공간일 뿐, 분한 마음을 토로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④ 화자는 힘든 현실에서 ㉠을 보려고 하지만 그곳에 의지하고픈 대상이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며, ㉡의 끝에는 사랑하는 입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입이 의지하고픈 대상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1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는 입과의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입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입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화자가 힘든 현실을 살아가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곳으로, 이곳에는 ‘비틀거리’는 화자와 달리 ‘날쌔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검은 도둑팽이’가 공존하고 있다.
- ② ㉢는 ‘초롱에 불빛’이라는 기다림과 ‘지친 밤하늘’이라는 시상 흐름 뒤에 나타나며 이후 울다가 ‘목이 젖은 새’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입과의 단절감과 그로 인한 슬픔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 입과 이별하겠다는 상황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므로, 입과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바람이 투영된 곳이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와 시적 청자인 친구가 함께 있는 곳이지만, ㉢는 화자가 머무는 곳이 아니다.
- ④ ㉠은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의 옆길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곳이지만, ㉣는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으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공간이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제4연은 '털스로 주름 바고이다'와 같이 표현하여 다른 연과 달리 공간에 대한 설정이 빠진 채로 화자가 쇠로 된 실로 주름을 박는 행위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2연은 '세몰에 별헤'라는 공간을 설정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 해당하는 구운 밤이 있는 것을 볼 때, '생밤'을 원재료로 넣는다면 '구워'서 구운 밤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구운 밤에 싹이 나는 설정을 통해 생명을 얻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설정하였고, 제4연에서는 철웃이 낡아지는 상태를 설정하였다.
- ④ 제4, 5연은 모두 '므쇠로'로 시작함으로써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무쇠'임을 알 수 있다.
- ⑤ 제2, 4, 5연은 모두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그 오시 다 헐어시아', '그 쇠 털초를 머거야'와 같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에서 화자는 저승 세계로 떠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입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저승길을 떠나는 입을 위해 신을 만들어 주지 못해 애석한 마음을 드러내며 곁에 없는 입을 계속 생각하면서 입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화자는 푸르른 '하늘'이 아닌 '젯빛'인 '하늘'이라도 우려하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무화과 한 그루'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답답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이미 '열매'를 맺어, '무화과'처럼 '꽃 시절'이 없었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성취하고픈 시절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 버린 것에 대한 한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서역 삼만 리'나 '파촉 삼만 리'는 저승길로 떠나는 입과의 거리감을 드러낸 것으로, 죽음으로 인해 함께하고픈 입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한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다)에서 화자가 구운 밤에서 싹이 나고,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에 접붙여 그 꽃이 피는 등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입과 이별을 하겠다는 것은, 입과의 영원한 사랑을

희구하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한을 풀어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27] 문학 - 현대 소설

이동하, 「장난감 도시」

해제 이 작품은 1980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로서, 「장난감 도시」의 연작 중 하나에 속한다. 1950년대 후반 전후의 피폐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궁핍한 삶을 견뎌 내는 과정을 소년의 시선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성장 소설의 면모를 보여 준다.

주제 절망적 현실을 견뎌 내는 법을 체득해 나가는 소년의 아픔
전체 줄거리 전쟁 후 도시 빈민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기와 공복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머니는 물만 마셨다. 아버지가 없는 가을에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만 지냈다. '나'는 잠자리의 투명한 날개를 보면 병든 어머니를 연상하곤 했다. 판자촌 아이들을 따라 '나'는 일요일이면 전지분유를 얻기 위해 교회로, 옥수수가루를 얻기 위해 성당으로 달려갔다. 두부 공장 집에서 누나는 민머느리로 데려가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어머니는 단번에 거절했다. '나'는 추석에 기동이 없던 어머니를 따라 외삼촌 집엘 갔다. 냉랭한 어머니와 외삼촌의 대화가 오갔고, 집에 돌아와서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겨울은 더욱 견뎌 내기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고, 개척 교회와 성당에서 더 이상 구호물자를 얻을 수 없었다. '나'와 누나는 시장 관리인에게서 수모를 겪으며 시장 바닥에서 푸성귀를 주웠다. '나'와 누나는 물을 마시며 견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겨울이 찾아들었다. '나'는 군용 반합을 들고 식사를 하는 집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뜻밖의 행운으로 돈을 얻게 되었다. '나'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허가 요구하는 욕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궁핍으로 인해 공원에 주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끝내 누나는 두부 공장 집에 민머느리로 들어갔다.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여 함께 살기를 소망하던 어머니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짜장면 한 그릇을 마지막 음식으로 취하고 숨을 거두고 만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 벽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참으며 울기 시작했다.

24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거다.” / 누나가 대접을 집어 갔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모금 들이켰다. 나는 다시 그것을 받아 들고 누나처럼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 또 한 모금을 마셨다.’에서 알 수 있듯이, 누나는 ‘나’에게 탈 없이 물을 마시는 법을 말하고는 천천히 물을 마신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우리는 손 대신 발로 가위바위보를 했다. 그가 이겼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태길과의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지 못하였다. 또한 ‘열 개의 손가락 틈새마다 그날의 포획물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 그가 왼손 것을 택했다. 바른손 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몫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태길과 승부를 겨루는 이유는 잡자리를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겨울로 접어들면서부터 그곳 창고는 바닥이 나 버렸다. 전지분유의 그 빠닥빠닥하고 찰진 맛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일마다 몰려갔지만 그러나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개척 교회에서 전지분유를 얻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 ③ ‘그녀가 만약 독실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 휴전선 너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와 ‘소량의 전지분유와 두 뒷박의 옥수수가루 또는 풀때죽 중 그녀 역시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녀가 교회와 성당에 번갈아 다니는 까닭은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전지분유와 옥수수가루 혹은 풀때죽을 얻기 위한 것이다.
- ④ ‘때로는 소녀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공복감을 잠시 달랠 수 있었다. 물론 아주 잠시였다. 하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드림으로써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이 내게도 조금은 수궁이 되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가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배고픔을 잊기 위한 것이다.

25 서술자의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은 인물이 배고픔을 견딜 만했던 과거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은 소녀에 대한 인상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 ㉡이 모두 서술자가 과거 자신의 외양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고통 없이는’, ‘회상할 수가 없다’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드

러내고 있다.

- ② ㉢은 ‘관자놀이계로 찬바람 한 줄기가 빠져나갔다. 진저리를 친 다음에 나는 또 한 모금을 들이켰다. 이번에는 견딜 만했다. 식도를 타고, 비어 있는 위장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감촉을 나는 의식했다.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의 ‘고통 없이는 ~ 회상할 수가 없다.’와 ㉡의 ‘고백해야겠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소녀의 얼굴에 대한 회상의 성격을 갖는 내용을 서술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은 ‘나’가 소녀에게 조금씩 이끌려 들고 있었다는 고백의 성격을 갖는 내용을 서술할 것을 밝히고 있다.
- ⑤ ‘고백’의 사전적 의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이라는 점에서 ㉠은 서술자가 과거에 숨겼던 사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은 서술자가 물을 들이켜고 배고픔을 견딜 만했다고 느꼈던 과거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고 있다.

26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육식이 아니라 설사 풀을 먹는다고 해도, 또는 그 끝에 맺힌 이슬만 취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투명한 낮을 지닐 수는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A]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물의 회의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바람 드센 언덕배기의 그 천막 교회를 그녀는 새벽마다 오르내렸다. 한겨울에도 내의를 입지 않았다. 믿음이 추위를 잊게 해 준다고 여전히 창백한 얼굴과 나약한 몸매의 그녀는 말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B]에는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소녀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마치 여우고 굶주린 혼백처럼 더할 수 없이 나약하고 투명한 몸짓으로…… 육식이 아니라 설사 풀을 먹는다고 해도’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A]에서 인물이 느끼는 감정은 포만감과 거리가 멀다.
- ② [B]에서는 “기도를 해. 열심히, 열심히 기도드리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린다. 너. 아버지가 말했어.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소녀의 말과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잘 견디어 냈다.’라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 대해 신앙으로 맞서려는 인물인 소녀가 좌절하게 되는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A]의 “많이두 잡았네…….” / 누나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와 ‘우리는 결코 그들처럼 투명한 녀를 지닐 수는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와 누나는 ‘우리’라는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B]의 ‘가없는 그들 부녀가 어떤 식으로 날마다의 허기를 달랠 것인가를 나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 머지않아 그 병약한 소녀마저 제 아버지의 곁에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소녀에게 연민을 느낀다. 따라서 인물 간의 반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A]에서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고물 자전거를 툴툴거리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가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런데 [B]에서는 ‘그 병약한 소녀마저 제 아버지의 곁에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부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차라리 그 소녀에게 기도를 드렸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공복감 때문에 나는 잠시도 버터 널 재간이 없었다. 부끄럽게, 허망하게 나는 도망쳐 나왔다. 몸이 온통 걸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심한 떨림이어서 식은땀이 끈끈하게 내뿔 지경이었다. 바람 세찬 언덕배기를 계걸음으로 내려오면서 나는 딱히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알감자를 먹여 주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가 소녀에게 기도드렸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궁핍한 전후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소녀에게 기도드렸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고 생각한 것이 ‘나’가 창백함을 드러내는 소녀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념을 제공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을은 속이 온통 비어 있는 계절이었다. 티끌 한 점 없이 파랗게 드리워져 있는 하늘이 그랬고, 물처럼 말갭게 흘러내리는 햇살이 그랬다. 적어도 거기에만은 지난 전쟁이 아무런 상흔도 남기지 못한 셈이었다.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눈에 띄는 모든 사물들은 제각기 텅 빈 속을 흰히 드러내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가을에 대해 ‘티끌 한 점 없이’ 혹은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식한다. 이는 ‘나’가 현실의 질곡에 무심한 가을의 일상을 투명함이라는 속성을 통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온통 투명하기만 한 두 쌍의 날개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거의

모든 잠자리들은 투박한 머리와 육식용의 단단한 구기와 한 쌍의 크고 불량한 겹눈과 그리고, 끝 같은 턱을 지니고 있는지…… 그 불가해한 모순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투명한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본능에 충만한 식욕을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잠자리에게 매료된다. 따라서 ‘나’가 잠자리에게 매료된 것은, 잠자리의 생김새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을 느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③ ‘벽을 향해 죽은 듯 누워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곧잘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아주 눈부신 환상이었다. 마침내 남루한 육신을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또는 잠자리처럼, 햇빛 화사한 창공으로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환상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병든 어머니가 나비처럼 투명하게 날아오르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의 극심한 고통을 ‘나’가 투명한 이미지의 환상을 통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물의 빛깔과 형태와 미각으로 쉽게 환치되었다. 온통 푸짐한 환상의 만찬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소망은 환상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 물을 마시면서 음식들로 가득한 환상의 만찬을 상상하는 것은, 다채로운 이미지를 드러내는 상상을 통해 궁핍한 현실을 벗어나고픈 ‘나’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31] 문학 -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적성의전」

해제 이 작품은 성의와 향의의 선악 대결 구도를 통해,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동생 성의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주제 의식을 담은 소설이다. 불교 설화의 바탕 위에 도교적 색채가 가미되는 한편, '효'라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했다. 점이 특징이며, '집을 떠남. → 모험과 고난 끝에 일영주를 찾음. → 돌아와 명예를 얻음.'의 서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의가 서천 서역으로 가서 약을 구해 오는 구약(求藥) 여행 모티브가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바리데기」 설화와 유사하며, 성의가 개안(開眼)하는 장면에서는 「심청전」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부모에 대한 효와 권선징악

전체 줄거리 강남 안평국 왕의 맏아들 향의는 성격이 어질지 못한 반면 둘째 성의는 재덕과 인덕을 겸비했다. 왕비가 갑자기 병이 들자, 어느 날 홀연 나타난 한 도사의 말을 듣고 성의는 일영주(日映珠)를 구하기 위해 서역으로 떠난다. 성의는 한 도사를 만나 일영주를 얻고 동방삭의 도움으로 파초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향의의 공격을 받는데, 향의는 성의로부터 일영주를 뺏은 후 두 눈을 찔러 멀게 하고 바다에 던져 버린다. 성의는 표류하던 끝에 안남국 사신인 호 승상에게 구출되고, 천자의 딸 채란 공주와 인연을 맺는다. 그러던 중에 성의는 자신의 어머니가 기러기 편으로 보낸 편지를 채란 공주가 읽어 주는 소리를 듣고 두 눈을 뜨게 된다. 성의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채란 공주와 결혼한 후에 안평국으로 돌아오는데, 향의는 죽임을 당하고 성의는 안평국 왕이 되어 영화를 누린다.

28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안평국 협객은 지약불량한 향의의 목을 벤 후 자신도 스스로 목을 벤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향의를 징벌하기 위해서이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평국 왕자의 목을 벤 것이기도 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목을 스스로 벤 것이지, 성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스스로 목을 벤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대 몸이 영귀할 때니 이제는 귀국 부모를 뵈옵기 쉬운지라.'를 볼 때, 승상은 성의가 부마가 되어 지체가 귀해지면 안평국에 있는 성의의 부모를 만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황상은 사천관에게 성의와 공주의 혼인날을 택일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혼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황후에게 말하는 것

을 볼 때, 황상은 사천관이 택일한 일정대로 혼인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안평국 왕은 제신을 모아 놓고 성의 일행이 무사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향의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라는 부마 일행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부마 일행을 공격하는 부라의 행위는 성의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왕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⑤ 성의는 악행을 일삼던 향의의 죽음에도 대군의 격식으로 장사를 지내 주었다. 이는 성의가 향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향의에게 대군의 예를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9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장군은 자신이 직접 부래를 벨 것이니 물러나 있을 것을 군관에게 명하였지만 군관은 부래를 조그만 도적이라 칭하며 조그만 도적을 잡는 데 장군이 수고를 할 필요가 있냐며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장군의 명령을 수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성의는 자신이 됴됨이가 둔하고 미련하고 타고난 운수가 사납다며 스스로를 낮추고, 성의(聖意)가 융성하고 성인이 크고 두텁다며 황상의 은혜를 칭송하고 있다. 또한 공주와 혼인을 하라는 황상의 제안에 부마지교를 거두어 주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내심과 달리 거짓으로 사양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성의는 안평국 출신인 자신이 중국에 들어와 부마가 되기까지의 행적을 공주에게 이야기하며 어찌하면 본국에 돌아가 부모를 볼 수 있을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한탄하고 있다.
- ③ 공주는 아내가 군자를 좇아 여필종부하는 것은 몇몇한 일이라며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고, 황상께 아뢰어 몇 달 말미를 얻겠다며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부라는 부마 일행을 도적이라 지칭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부마 일행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부모를 뵈고 싶어 하는 성의의 말을 듣고 공주는 입궐하여 황

상께 시부모를 찾아뵙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황상은 이를 허락하며 군관과 군사, 명장을 정해 주고 사자를 안평국에 미리 보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가 황상께 시부모를 찾아뵙고자 청한 것은 성의가 안평국으로 돌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성의는 자신을 부마로 삼으려는 황상의 제안에 거짓 사양을 하였지만 결국 공주와 혼인을 하였으며, 성의가 황상의 제안에 거짓 사양을 하는 것은 항의가 성의에게 가하는 악행과 관련이 없다. 또한 성의가 안평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항의가 보낸 부래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장면 역시 성의가 황상의 제안에 거짓 사양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황상이 성의에게 공주와의 혼인을 제안하면서 '경이 비록 타국 사람이나 짐의 나라에 들어와'라고 말한 것을 볼 때, 황상은 성의에게 공주와의 혼인을 제안할 시점에 성의가 고국에서 타국으로 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항의가 심복 무사 부래를 불러 여차여차하라고 한 것은 성의가 타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악인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영향을 준 것이지, 성의가 고국에서 타국으로 밀려나는 것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 ⑤ 안평국 협객이 항의를 베어 죽인 것은 성의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제거한 것이지, 성의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3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안평국 왕은 계홍 감사가 보낸 서찰을 보고 적성의가 부마가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안평국 왕은 성의가 도성으로 돌아온 후 성의로부터 직접 항의의 소행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점을 볼 때, 서찰에 '항의가 성의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실려 있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천자가 '하교'를 하여 군관 수십 인과 군사 일천과 명장 일인을 따로 뽑아 정하였고, 군관은 항의가 보낸 적 부래와의 승부 끝에 적 부래를 물리쳤다. 따라서 천자가 군관 수십 인과 군사 일천과 명장 일인을 따로 뽑아 정하는 하교를 내린 것은 성의가 안평국으로 가는 길에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기러기'는 성의와 왕비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성의가 쓴 서신을 왕비에게 전해 주어, 왕비가 성의의 과거 행적에 대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 ③ 항의는 왕비의 '울음소리'를 듣고, 왕비가 우는 이유가 성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항의는 성의가 살아 돌아오는 상황을 대비하여 심복 무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 ⑤ 항의가 군마가 패함을 듣고 대경실색하였다는 것을 볼 때, 항의는 군마가 성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32~34] 문학 - 시나리오

김민숙, 「호로비츠를 위하여」

해제 이 작품은 피아노로 인해 열등감을 갖게 된 지수와 불우한 천재인 경민의 만남을 통한 성장 서사를 담아내고 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경민을 이용하려던 지수는 경민의 사정을 알게 될수록 진정으로 경민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경민을 자식처럼 사랑하게 된다. 경민 또한 아무에게도 열지 않았던 마음을 지수에게만 열며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아무도 관심 가져 주지 않던 이들의 인생은 이토록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아름답고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게 된다.

주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

전체 줄거리 꿈을 이루지 못하고 번두리에 음악 학원을 개업한 지수는 영업을 방해하는 경민을 만나게 되고, 경민의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다투면서 영겁결에 경민을 돌보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경민이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지수는 경민을 통해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경민을 연습시킨 뒤 콩쿠르에 나가지만 기대와 달리 경민은 무대에서 공포를 느낀 채 콩쿠르장을 도망치듯 나오게 되고 지수는 경민에게 학원에 오지 말라고 말한다. 경민의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지수는 경민의 할머니를 통해 경민의 트라우마를 알게 되고 그 상처를 이해하게 된다. 지수는 경민을 위해 해외 입양을 알아보고 자신과 헤어지지 않으려는 경민을 뒤에서 눈물지으며 보내게 된다. 훗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경민은 내한 공연을 하게 되고, 지수는 그 연주회에서 경민의 손가락에서 자신이 준 반지를 보게 된다.

32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㉔: 할머니의 말투와 행동에서 경민을 거칠게 대하는 면모가 있음을 알 수는 있지만, 할머니 곁에 남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습과 잠이 든 할머니에게 까치발을 들어 이불을 덮어 주는 경민의 모습을 볼 때, 할머니를 거부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는 연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요구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 콩쿠르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조명이 꺼지는 상황을 통해 당황한 지수와 불안을 느끼며 서 있는 경민의 모습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극적 긴장감이 드러나도록 정확한 순간에 조명을 꺼 달라는 요구는 적절하다.
- ② ㉒: 경민의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자신이 유명해지고자 경민을 연습시켰는데, 경민이 연주를 하지 못하자 지수가 안달 난 모습으로 사인을 보내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신이 준비한 경민의 연주를 보여 주지 못할까 봐 애태우는 심리가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는 요구는 적절하다.
- ③ ㉑: 갑자기 밝아진 조명이 과거 엄마와 사별하게 된 교통사고를 떠올리게 하면서 경민이 불안감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는 요구는 적절하다.
- ④ ㉐: 연주도 하지 못한 채 콩쿠르장을 나와 망연하게 앉아 있는 인물들과 대비되도록 최대한 행복하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 달라는 요구는 적절하다.

33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INSERT'는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장면을 삽입하는 것으로, 현재 콩쿠르장에서 조명을 받는 경민과 과거 교통사고 현장에서 트럭의 조명을 받는 경민을 교차시켜 보여 줌으로써 경민이 불안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편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러 장면을 이어 붙여 새로운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몽타주이며, 이 장면에서는 INSERT 기법이 사용된다.
- ② 지수는 경민이 무대에서 연주를 못 하거나 난동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 ④ 과거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경민의 죄책감은 드러나지 않으며, 다른 인물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감하기 어렵다.
- ⑤ 경민이 강한 조명이 비치는 것에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인물의 오해를 푸는 것과 연관되지는 않는다.

3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S#106에서 지수가 경민을 이전에 본 적 있는 외국인 부부에게 입양시키려 하는 것은 경민이 자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 경민이 자신의 꿈을 이뤄 주지 못해 이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74에서 지수가 콩쿠르장에서 거만한 포즈를 취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경민을 자신이 가르쳤다는 것을 통해 유명인이 되어 열등감을 없앨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에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② S#76에서 지수가 경민에게 학원에 오지 말라며 화를 내고, 자신의 인생에서 없어져 달라고 심한 말을 하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은 경민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즉 '자기 서사'에 매몰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S#98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를 잃게 된 경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지수가 눈시울을 붉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경민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통해 '자기 서사'에서 벗어나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S#108에서 지수가 경민이 자신을 엄마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민을 잡지 않는 것은 경민과 함께하고픈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경민의 미래를 위해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참아 내는 희생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5~39] 언어

3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뵈히는[발피는]’에서는 ‘ㅂ’과 ‘ㅎ’이 합쳐져 ‘ㅃ’으로 되는 축약만이 일어났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들끓는[들끓는]’에서는 ‘ㅎ’이 탈락하고, ‘ㄴ’이 앞의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다.
- ② ‘서울역[서울역]’에서는 ‘ㄴ’의 첨가가 일어난 후 유음 ‘ㄹ’ 뒤에서 ‘ㄴ’이 유음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다.
- ③ ‘집합소[지합소]’에서는 ‘ㅂ’과 ‘ㅎ’이 합쳐져 ‘ㅃ’이 되는 축약이 일어났고, ‘ㅂ’ 뒤에서 ‘ㅅ’이 ‘ㅆ’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다.
- ④ ‘젓혀서[저쳐서]’에서는 ‘ㅈ’과 ‘ㅎ’이 합쳐져 ‘ㅉ’이 되는 축약이 일어났고, ‘ㄷ’에서 ‘ㄷ’가 되는 반모음 ‘j’의 탈락이 일어났다.

36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가 부사격 조사인 것은 맞지만, ‘중국에’는 ‘중국과’로 해석되므로 ‘에’는 다른 것과 비교함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아니 할 씨’의 현대어 풀이가 ‘아니하므로’이므로, ‘-르 씨’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 ③ ‘배’의 현대어 풀이가 ‘바가’이므로, ‘배’는 ‘바+ㅣ(주격 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 ④ ‘하나라’의 현대어 풀이가 ‘많으니라’이므로, ‘하다’의 의미는 현대 국어의 ‘하다’의 의미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 ⑤ ‘뿌메’는 ‘뿌-+ -음+에’로 분석된다. ‘뿌메’의 현대어 풀이가 ‘쓰메’이므로,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 ‘-ㅁ’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어미는 ‘-음’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어미 ‘-음’과 ‘-음’이 나뉘어 쓰였다.

37 파생어 분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몰상식하다’의 ‘몰-’은 ‘그것이 전혀 없음.’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고, ‘몰표’의 ‘몰-’은 ‘모두 한곳으로 몰린’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설익었다’의 ‘설-’ 그리고 ‘설말라’의 ‘설-’은 모두 ‘충분하지 못하게’의 의미를 갖는 동일한 접두사이다.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라고 할 수 없다.
- ③ ‘덧니’의 ‘덧-’은 ‘거듭된’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고, ‘덧대어’의 ‘덧-’은 ‘겹쳐’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하나의 접두사가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라고 할 수 없다.
- ④ ‘되찾다’의 ‘되-’는 ‘도로’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고, ‘되새기다’의 ‘되-’는 ‘다시’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하나의 접두사가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라고 할 수 없다.
- ⑤ ‘맞대결’의 ‘맞-’은 ‘마주 대하여’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고, ‘맞들었다’의 ‘맞-’ 역시 ‘마주’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하나의 접두사가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접두사라고 할 수 없다.

38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 ‘별나다’의 ‘-나다’는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별나다’는 파생어이다.
- ㉡ ㉡: ‘값지다’의 ‘-지다’는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값지다’는 파생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 ‘숫아나다’는 ‘숫다’와 ‘나다’가 연결 어미 ‘-아’로 연결된 합성어이다.
- ㉡ ㉡: ‘주름지다’의 ‘지다’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 ‘주름지다’는 합성어이다.

39 품사의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그’는 ‘포기하자는 의견’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지시 대명사의 용법으로 적절한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는 ‘마음’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의 용법이므로 삼인칭

대명사의 예가 아니다.

- ③ ‘그’는 보조사와 결합한 삼인칭 대명사이므로 관형사의 예가 아니다.
- ④ ‘그’는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키’는 관형사이므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의 예가 아니다.
- ⑤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이므로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키’는 관형사의 예가 아니다.

[40~45] 매체 + 언어

40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에서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배려를 통한 디지털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에서는 처벌 등에 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노력을 언급하고 있어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에서는 웹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기술적으로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공감을 통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정보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고려를, ㉡에서는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을, ㉢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소외 문제 해법으로 정책적 노력을, ㉣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웹 접근성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디지털 소외 계층임을 알 수 있으므로 디지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 ② ㉠은 고령자나 장애인도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기 쉽도록 기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은 디지털 격차 해소

를 위해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에 대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 ③ ㉠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식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은 인증 제도의 의무화 등 정책적 노력을, ㉢은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므로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 ㉡을 참고해야겠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 ④ ㉢에서는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언급하고 있고, ㉡에서는 웹 접근성의 개념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 웹 접근성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웹 접근성의 개념과 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을 참고해야겠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41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b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웹 접근성 수준이 담보 상태인 상황을 ●●부의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의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2004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늘었다고 추론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가 웹 접근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잡지에 실린 인쇄 기사로 디지털 배려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수용자가 선택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a는 디지털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실제 경험과 관련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도 보도 자료와 시각 장애인 A 씨의 사례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로서, a가 b에 비해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b는 웹 접근성을 위반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시각 장애인 A 씨의 사례와 웹 접근성 준수와 관련된 기사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의 사례와 준수의 방법이나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해결의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a에

비해 문제 상황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재감'은 매체를 이용할 때 마치 미디어 속에 자신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키오스크로 커피 한 잔을 사며 겪은 김<< 씨의 당혹감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a가 오히려 b에 비해 정보를 실재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a와 b의 '소통과 배려의 디지털 세상',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매체는 모두를 위해 디지털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각각 다른 특정 계층의 입장에서 웹 접근성을 다루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2 매체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독자 2'는 정부 차원에서 웹 접근성 준수 조항을 개발자가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독자 4'는 웹 접근성 미준수 조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엇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준수 조항에 대한 정보가 개발자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독자 1'은 기사를 읽고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도밖에는 알 수 없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독자 4'는 웹 접근성 평균 점수만 제시되어 있어 무엇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으므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판단하였다는 것은 적절하다.
- ② '독자 2'는 저시력이신 어머니의 경우를 들어 웹 접근성 인증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웹 접근성 인증제보다 정부 차원에서 웹 접근성 준수 조항을 개발자가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더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독자 3'은 웹 접근성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기사를 읽고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였고, '모두를 위한'이라는 제목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하였으므로 정서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기사라고 기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독자 5'는 시각 장애인의 70% 정도가 후천적 장애라는 통계에 놀라움을 표하고 자료가 믿을 만한지 묻고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43 정보 전달과 설득·심미적 정서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a는 소통과 배려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결할 방법으로 배움의 기회 제공, 기기의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의 배려,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이 제작한 광고 포스터는 '나의 유년, 성년, 노년의 모습을 제시하여 인식의 개선을, '포용'의 내용으로 기기의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의 배려인 '세심하게 만들기'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따뜻하게 알려 주기'를 통해 '포용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에 초점을 맞추어 소통과 배려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이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상황을 이미지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a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 줄 방법으로 배움의 기회 제공, 기기의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기능 추가,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광고 포스터는 이를 포괄하여 디지털 세상에 필요한 태도를 '부사어+서술어' 구조로 '세심하게 만들기', '따뜻하게 알려 주기'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a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노년층을 위한 배움의 기회 제공, 기기의 개발 및 제작 단계에서의 기능 추가와 같은 방법, 즉 '포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행복한 디지털 세상, 즉 디지털 '포용' 세상 만들기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광고 포스터에서 '포용'과 '포용'이라는 유사한 음운의 두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들을 다른 글자와 형태를 달리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내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a에서 소통과 배려의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였고 광고 포스터에 이러한 '포용'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두 손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고령자를 감싸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나)-a에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무엇보다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세상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광고 포스터는 이를 반영하여 인식 개선을 위해 유년, 성년, 노년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보여 주고, 이것이 모두 '나의 모습'이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정보 전달과 설득·사회적 상호 작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b는 웹 접근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의 준수 실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내용을 기술한 기사이다. 카드 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카드 3]에 웹 접근성 미준수 사례로 (나)-b의 4문단에 제시된 시각 장애인 A 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고령자의 사례를 추가하여 문제 상황을 부각할 수는 있으나 웹 접근성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공공 기관에서의 비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율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b의 제목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과 2문단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차별 및 제한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5문단의 '웹 접근성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내용에서 [카드 1]의 제목은 바람직한 디지털 세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웹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부제를 통해 아직 갈 길이 먼 웹 접근성의 실태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카드 2]는 (나)-b의 1문단에 제시된 웹 접근성 평균 점수를 전년과 대비한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웹 접근성 수준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③ [카드 2]는 웹 접근성의 실태를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나)-b의 2문단에 제시된 웹 접근성의 개념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답보 상태에 있는 웹 접근성 수준을 실감할 수 있도록 (나)-b의 1문단에 제시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새로운 카드를 [카드 2]의 앞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카드 4]는 [카드 1]의 제목 '모두 함께 누리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를 위한 웹 접근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b의 5문단에 제시된 연구원의 말에서 정책적 방안 두 가지 외에 '웹 접근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45 안은문장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에서 명사절 '커피 한 잔을 사기'가 '까지'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명사절 '기차가 떠났음'이 '에도'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관형사절 '방 안을 비추던'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와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없다.
- ③ 명사절 '비가 오기'가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와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없다.
- ④ 명사절 '겨울이 오기'가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와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없다.
- ⑤ 부사절 '돈도 없이'가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와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없다.

[수록 작품 출처]

『말아톤』, 정윤철·송예진·윤진호, (주)쇼박스, 2005 | 본문 196~198쪽

[수록 사진 출처]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 본문 121쪽
- '덕수궁 중명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본문 241쪽

한눈에 보는 정답

실전 모의고사 1회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⑤
08 ⑤	09 ④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⑤
15 ⑤	16 ④	17 ⑤	18 ②	19 ②	20 ⑤	21 ④
22 ⑤	23 ②	24 ④	25 ②	26 ④	27 ④	28 ⑤
29 ③	30 ③	31 ②	32 ③	33 ④	34 ④	35 ③
36 ②	37 ②	38 ①	39 ④	40 ③	41 ②	42 ①
43 ④	44 ⑤	45 ②				

실전 모의고사 4회

01 ①	02 ④	03 ①	04 ⑤	05 ⑤	06 ②	07 ③
08 ④	09 ①	10 ③	11 ③	12 ⑤	13 ①	14 ①
15 ②	16 ⑤	17 ③	18 ⑤	19 ④	20 ③	21 ⑤
22 ②	23 ④	24 ③	25 ④	26 ④	27 ②	28 ①
29 ④	30 ②	31 ③	32 ⑤	33 ①	34 ⑤	35 ③
36 ⑤	37 ⑤	38 ③	39 ①	40 ③	41 ②	42 ③
43 ⑤	44 ⑤	45 ④				

실전 모의고사 2회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④	12 ②	13 ⑤	14 ⑤
15 ⑤	16 ④	17 ④	18 ②	19 ①	20 ④	21 ③
22 ②	23 ④	24 ①	25 ③	26 ③	27 ⑤	28 ③
29 ①	30 ④	31 ③	32 ④	33 ③	34 ②	35 ④
36 ②	37 ⑤	38 ④	39 ②	40 ④	41 ④	42 ④
43 ④	44 ④	45 ④				

실전 모의고사 5회

01 ⑤	02 ④	03 ⑤	04 ①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③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③	20 ⑤	21 ⑤
22 ②	23 ④	24 ⑤	25 ④	26 ④	27 ④	28 ④
29 ⑤	30 ③	31 ④	32 ⑤	33 ③	34 ④	35 ⑤
36 ①	37 ①	38 ②	39 ②	40 ⑤	41 ③	42 ③
43 ④	44 ④	45 ①				

실전 모의고사 3회

01 ②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④
08 ⑤	09 ①	10 ③	11 ②	12 ⑤	13 ④	14 ④
15 ④	16 ④	17 ⑤	18 ②	19 ②	20 ④	21 ⑤
22 ①	23 ③	24 ⑤	25 ⑤	26 ⑤	27 ③	28 ⑤
29 ⑤	30 ③	31 ②	32 ④	33 ④	34 ④	35 ⑤
36 ①	37 ④	38 ③	39 ④	40 ④	41 ③	42 ③
43 ⑤	44 ②	45 ③				